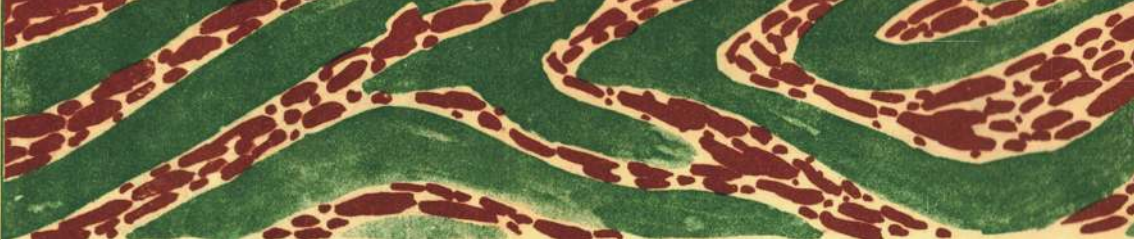


THE COMET

三 哩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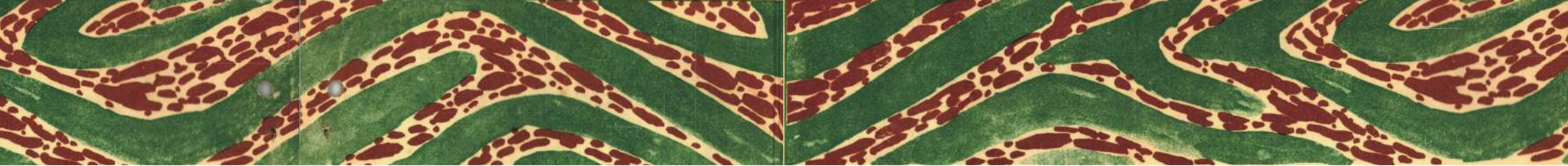


第 26 號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라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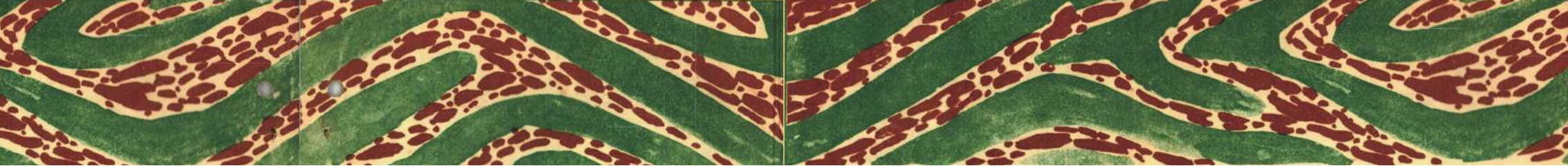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피에테 → 괴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크바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런던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야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째한다 → 붙잡는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벌서 → 벌써

을 꺼야 → 을 거야

씨운 → 씌운

오랭개 → 오랑개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한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러 → 미루러

하루밤 → 하룻밤

서둘러 → 서두르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순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삼펜 → 샴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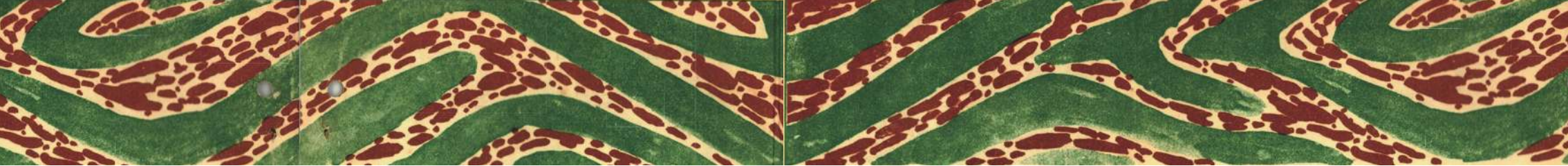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어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텔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씨어클 → 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26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컷, 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 정물(靜物)〈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②〉	부락크
화보(畫報)	
◇ 장(張) 참모총장 각하 국부군(國府軍)을 시찰	
◇ 4월 10일 진해(鎭海) 공군사관학교서 제5기 졸업식을 성거(盛學)	
◇ 2월 9일 공군대학 제1회 졸업식을 거행	
◇ 자유월남(越南)베트남에서 개최한 아세아반공대회(亞細亞反共大會)에 우리 대표를 환송한 C-46	
◇ 미국 공군군악대 행진군악(行進軍樂) 취주(吹奏)를 성료(盛了)	
〈권두언(卷頭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종승(李鍾勝) 2
국제연합(國際聯合)의 과제(課題)	윤치영(尹致暎) 4
국제정치(國際政治)와 군사력(軍事力)	이상조(李相助) 8
3차 대전(三次大戰)과 공군력(空軍力)	최의영(崔毅英) 16
한국(韓國)의 공업화(工業化)	
〈주(主)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재건(再建)에 있어서〉	이중재(李重宰) 23
시원(詩苑)	
귀뚜라미	이설주(李雪舟) 48
갈보리의 노래 III	박두진(朴斗鎭) 50
파이프 20	김종문(金宗文) 52
9만척(九萬呎) 고공(高空)을 날다	A 머어레이 31
—높은 고도(高度)에 올라가 경험(經驗)한 지구(地球)의 외계(外界)에 관(關)하여—	
인류(人類)의 미술(美術)과 현실(現實)의 소고(小考)	한순정(韓舜政) 82
정유년(丁酉年) 사회(史話) 〈동방(東方)의 닭의 신앙(信仰)〉	이홍직(李弘植) 150



☆ 해외만화선(海外漫畫選)과 만화(漫畫)	여기저기	
☆ 가위와 풀	중간중간	
☆ 격언(格言)·금언(金言)·명언(名言)	이곳저곳	
일본방위청기술연구소(日本防衛廳技術研究所) 현황소개(現況紹介)		104
자유(自由)에의 반응(反應)	J R 레이즈	26
—자유세계(自由世界)로 넘어온 전(前) 파란(波蘭)(폴란드) 조종사는 말한다—		
공중위기(空中危機)에의 저항(抵抗)	이광래(李光來)	100
수필(隨筆)		
바람에 부치는 노래	곽종원(郭鐘元)	94
봄 4월(四月)	김동사(金東史)	97
나의 공군시대(空軍時代)	현승중(玄勝鐘)	120
조종사(操縱士)의 아내	김태희(金泰嬉)	128
교양(教養)		
군인(軍人)과 사회(社會)	변시민(邊時敏)	56
셰익스피어 진부론(眞否論)	이윤희(李允熙)	62
현대시(現代詩)와 시조(時調)	김규동(金奎東)	72
모차르트의 생애(生涯)	정세문(鄭世文)	79
은막(銀幕)위의 시(詩)〈이태리영화(伊太利映畫)의 신사실주의(新寫實主義)〉		137
지붕〈IL TETTO〉	박용화(朴龍華)	138
—데 시카 감독(監督)의 신사실영화(新寫實映畫)—		
명장일화(名將逸話)	백대진(白大鎭)	86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의 전인격(全人格)을 말하는 일화(逸話) 몇 가지—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생환기(生還記)	K 히트니	41
지성배우(知性俳優)〈잉그리드 버그만〉	빌 데이슨	130
정복(征服)되지 않는 인민(人民)들〈소설(小說)〉	W 서머싯 몸, 이기석(李基錫) 역(譯)	155
상흔(傷痕)〈소설(小說)〉	박영준(朴榮濬)	167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정물(靜物)

브라크(Georges Bra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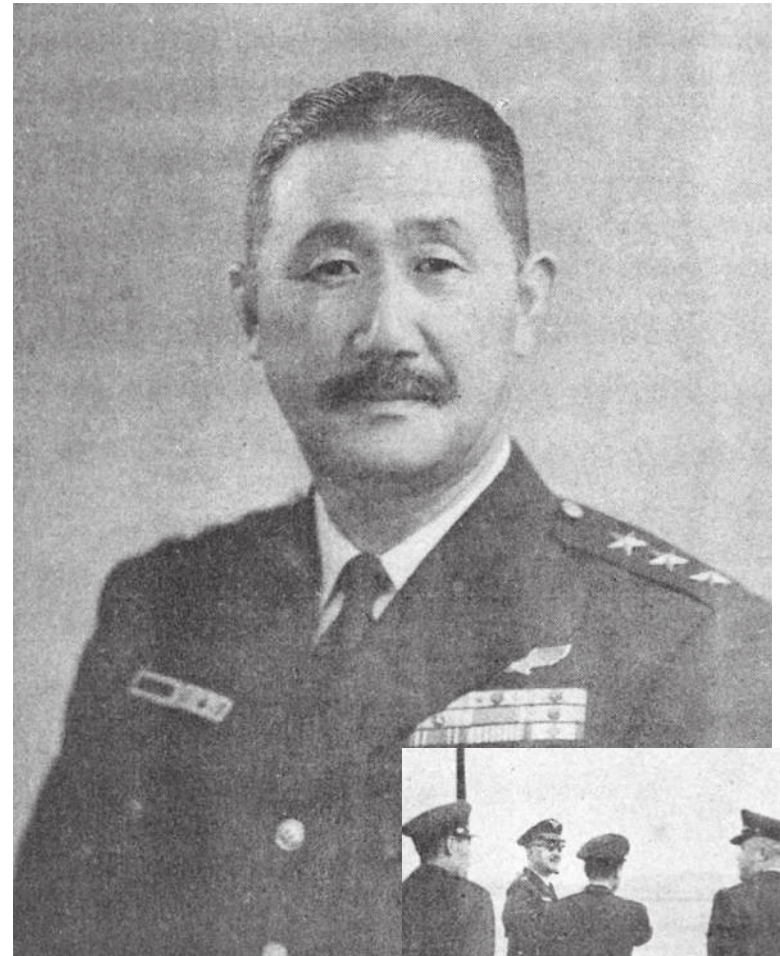
(1926년 작(作))

조르주 브라크의 작품은 피카소와 같이 대단히 알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느껴 집니다. 또 그와 반대로 요즘의 젊은 화가들은 브라크야말로 현대회화(現代繪畫)의 아카데미의 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브라크의 혁명적인 신예술은 모든 저항을 밀어 제치고 풍순(豐醇)한 예술의 완성기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시 말하면 브라크의 예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현대회화를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회화는 자연의 모사(模寫)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탓이겠습니다. 맨 먼저 이러한 관념을 버리고 좀 더 편한 기분으로 이 작품을 봐 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음악가가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감동을 소리의 맞춤으로써 표현하듯이 현대회화는 예술가의 감동을 순수하게 색과 형(形)과 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잔은 이러한 일에 착수한 최초의 화가였으며 이어서 피카소, 브라크, 마티스가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시 순수한 회화세계의 확립에 매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26년의 작품이며, 초기 입체파의 고뇌에 찬 탐구가 겨우 한 체계를 발견하여 형식을 잡은 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 위에 서서 한 번 더 세잔과 대결하고 있을뿐더러 세잔보다도 더욱 엄격히 2차원의 세계를 의의(意識)하여 공간의 자유로운 맞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감동을 아름다운 조형적인 말로, 다시 생각대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의 큰 특징은 광선이라는 것을 색으로 환원하여 색면(色面)의 균형과 조화로 해결한 것입니다. 흔히 일컫는 색가(色價)라는 것은 이 작품의 백(白), 흑(黑), 다(茶), 황록(黃綠)의 각 색을 아름다운 형으로 표현한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재료에서 보더라도 유희구(油繪具)와 에나멜이 병용되어 있으며 극히 적으나 회구(繪具) 속에는 금강사(金剛砂)가 섞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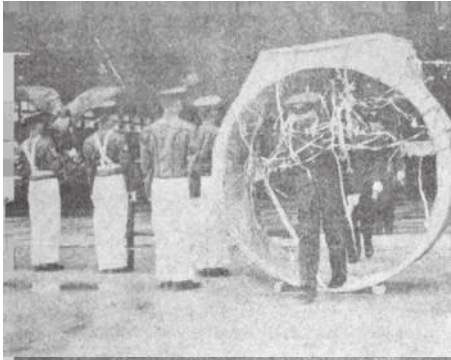
브라크는 1882년 파리 근교 알잔도이유에서 출생, 아버지는 상당히 이름난 장식업자이며 그는 소년시대부터 펜키의 여러 가지 기술을 체득하고 있었다. 1902년 파리로 나왔다. 구실은 펜키 장식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은 최초부터 회화를 공부하였다. 피카소를 알게 되어 함께 새로운 미술의 연구에 골몰하였으며 1908년 입체파의 최초의 형식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남불(南佛)에서 그리고 있던 세잔의 작품을 더욱 발전시켰다. 풍경화였으나 피카소도 동시에 니구로 예술에서 영향된 입체파풍의 작품을 그렸다. 최초의 개인(個展)은 1908년 칸웨에 화랑에서 열렸으며 1911년의 살론 데 잔테판단에서는 입체파의 특별실이 개설되었다. 그 후 끊임없는 화업(畵業)의 진전에 의하여 오늘의 풍순한 브라크 예술에 이르렀다.

장(張) 참모총장 각하 국부군(國府軍)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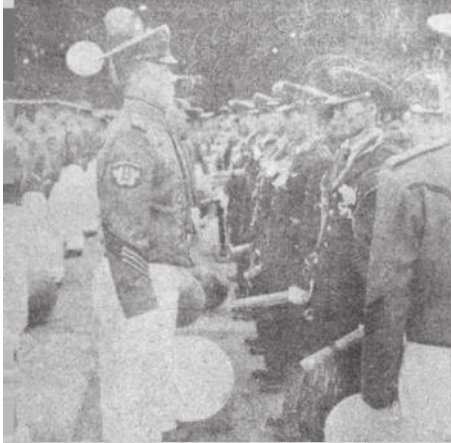


출발 직전의 장 참모총장 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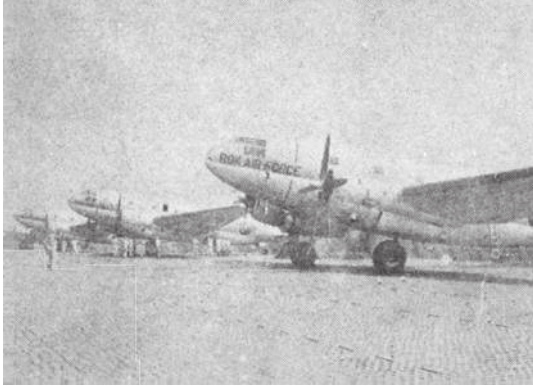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서 제5기 졸업식 성거(盛學)
4월 10일 진해(鎭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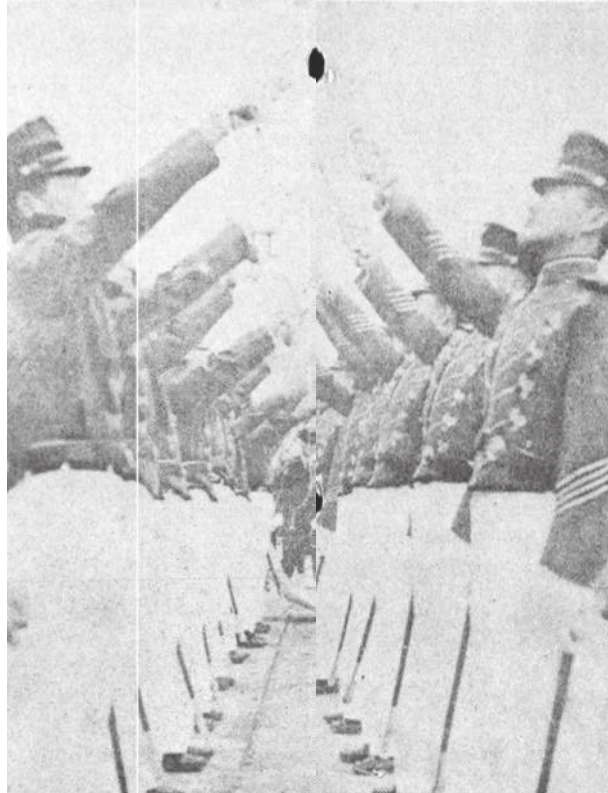
지환문(指環門)을 나오는 졸업생들



졸업생과 재학생의 작별 인사



자유월남(越南)[베트남] 사이공에서 개최한 아세아반공대회(亞細亞反共大會)에 우리 대표를 환송한 C-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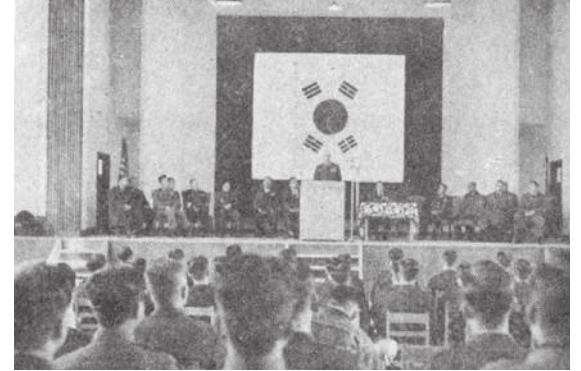
대통령 각하의 훈시



전(前) 미 8군 사령관 밴프리트 장군의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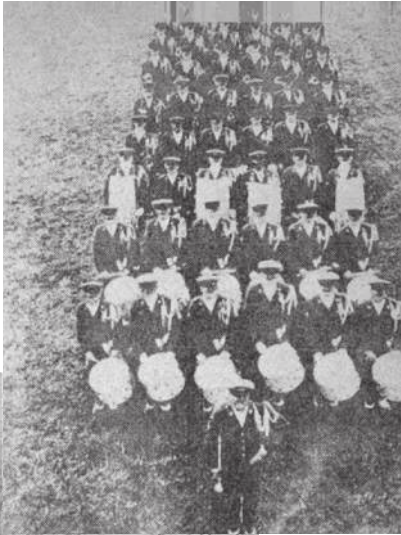


공군대학 제1회 졸업식 광경



미국 공군 행진군악(行進軍樂) 취주(吹奏) 성료(盛了)

대오 정연히 행진
취주(吹奏)하는 전(全) 대원



북을 치며 묘기를
보여주는 장면



칼춤을 추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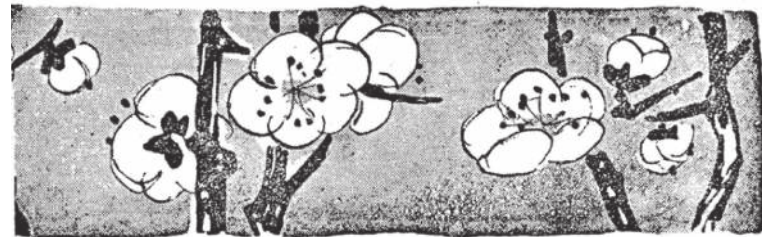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정훈감(政訓監) 이종승(李鍾勝)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고 있다. 심경과 환경이 찾아온 봄을 느끼기 어렵고, 즐기기 힘 든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춘래불사춘이란 말 자체에 이미 봄은 감각되는 것이라 하겠다. 자연의 봄은 왔는데 마음은 봄과 같이 화려하지 못하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이다…… 하나 의욕을 돋우고 구곡(舊穀)을 떨치기에 봄은 절호의 계절이니 우리 주위에 춘곤(春困), 춘한(春恨), 춘면(春眠) 등이 있어 마음의 일월(日月)이 밝지 않다 하더라도, 춘분(春分)도 지나면 춘치자명(春雉自鳴)격으로 느끼고 보고 행동하여 왕성해지는 의욕은 인위로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춘래불사춘—이에 극복해야 하겠다. 춘빙(春氷), 춘설(春雪)이 자취를 감추면 춘매(春梅), 춘맥(春麥)이 눈을 떠서 춘우(春雨)에 춘기(春機)를 재촉하니 춘경(春景), 춘광(春光)을 춘풍(春風)과 더불어, 춘야(春夜) 춘월(春月)을 춘소(春宵)에 비롯하여, 즐기고 싶은 것은 춘계(春季)의 춘정(春情)이라 벗에게 춘신(春信)을 전하여, 춘흥(春興)을 춘화(春花) 밑에서, 춘사(春思)를 춘강(春江) 위에서, 춘몽(春夢)을 춘초(春草) 위에서 만끽(滿喫)하는 것도 좋으려니와 춘수(春水) 흥건하면 춘경(春耕)을 급히 해야 하겠다. 어찌 어느 사람치고 봄을 싫다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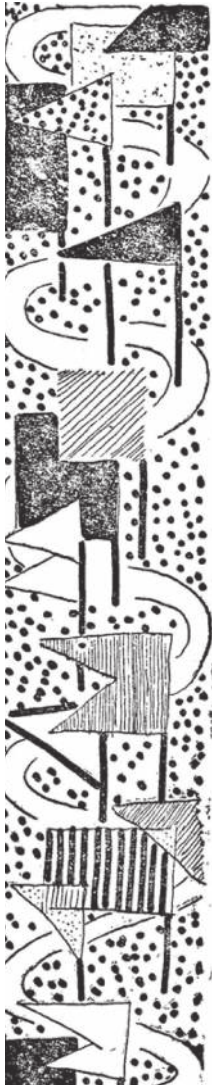
여기 「코메트」, 춘신을 전하여 춘공(春空)에 사활(死活)을 맹세하는 동지들에게 일설(一舌)을 정(呈)하기를, 청춘 뜻을 결(決)하였거든 이 봄을 기(機)하여 응보(應報) 장(壯)하고 거사(學事) 공(功) 있도록 역궁(力躬), 권만(憊慢)함시다 라고 한다 면 이 어찌 춘일(春日)의 한가로운 농설(弄說)이라 하겠는가.

자칫 얼굴 보이기를 게을리 하는 「코메트」 자(子), 스스로 봄타령을 엮어 신춘 초호(新春初號)의 권두언(卷頭言)을 파격(破格)하니 이 또한 춘의(春意)의 작란(作亂)장난이라 탓하기 주저(躊躇)있기를 바란다.



국제연합(國際聯合)의 과제(課題)

공산세력(共産勢力)의 방지(防止)와 평화유지(平和維持)에 언급(言及)하여
윤치영(尹致暎)



자연계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고귀하다고 일컫는 것은 문화의 창조와 그 진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문화의 창조와 진보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는 오로지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걸어온바 과거를 회고, 반성, 비판하는데서 비로소 빛어내게 된 것이며 이것이 또한 이 우주 안에 있어서 생에 의식을 가졌다는 동물과 사람과 크게 다른 점을 우리 스스로 구별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이라 할지라도 생에 대한 의식과 욕망은 있으나 그들의 움직이는 생태로 보아서 그들의 과거 경험한 바를 회고, 반성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그들 세계에게는 창조와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 원래 과오와 결점은 많았었지만 그 잘못된 것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쓰며 또한 보다 나은 데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직 인간으로서 금일(今日)의 진보, 발전이 있게 한 근본이며, 이리함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창조되고 발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연계의 역사는 그 누구에게든지 다 있지마는 그것을 살리어 토대 삼아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서 자기를 보다 더 나은 데로 발전시키며 불완전에서 완전한 것으로 이룩하려는 이 총명스러운 노력이야말로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국제연합'의 성스러운 주장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회원국이 되건 아니 되건 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그 당시의 경험에 의하여 이 세계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참화가 없게 할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위하여서는 오직 강력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것보다 강자가 약자를 도와 주며 또한 세력 있는 사람이 세력 없는 사람을 짓밟을 것이 아

니라 이를 동정하며,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조해 주는 것이 교만하고 냉정하게 서로 다투는 것보다 확실히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것임을 깨닫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호소하여 서로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며 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인류로 하여금 번영과 발전으로 이끌 것이며 저마다 행복스러운 생을 누릴 수 있다하여 마침내 '국제연맹'을 빛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불란서나 영국 등등 나라의 지도자들이 싸움에 이겼다는 자부심과 악감정에 사로잡혀 1919년 파리에서 열린 소위 평화회의라는 것이 평화회의가 아니라 패전인 독일로 하여금 불행에 빠진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약을 강제(強制)함으로써 그 나라로 하여금 강력한 복수심을 품게 하였고, 그들 전승국의 무자비한 처사는 벌써 그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씨를 뿌렸다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생겨난 것을 역사상으로 고찰할 때 이와 같이 독일 국민의 복수심에서 계통 있게 빛어내려 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을 다시 빛어낼 때에 지나간 '국제연맹'에서 체험한 부족한 점을 수정 보강해서 제3차 대전을 없이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 것이 바로 일본과 같이 많은 과오를 범한 패전국에 대하여 역사상 처음 보는 자유와 평등과 모든 문제를 편리보아 주면서 강화조약을 맺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진리로서 인류의 참다운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똑같이 살아나가고려고 노력하는 자유주의진영에 미국을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그 생활 면에와 헌법기구와 또는 정치 선(線)으로 아름답게 나타나 있으며, 공산주의 악도(惡徒)들의 악착스러운 선전, 조직, 냉전, 열전을 물리치면서 금일에 제3단계에 이르기까지 오직 선(善)으로써 주의(主義)를 삼으며, 진리로서 25억의 인류를 자유와 평화 속에서 다 같이 잘살자는 큰 사명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을 비롯하여 80여 개국의 UN 회원국들은 각각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국제사회 공동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산세력은 스탈린이 암살을 당하고 그들 안에 많은 정치적 변동이 생기며 1억 6천만에 가까운 인구 중 겨우 5백만 공산당원의 무서운 조직체와 억압 아래에서 2천여만에 달하는 청년들을 집단감옥, 공장, 농장 또는 광산 등에 보내어 노예와 같이 사역(使役)시키며 말할 수 없는 부자연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들은 오직 힘으로써 위성국가를 독재해 가면서 국민을 속이고 마음껏 착취하기 위하여 그 무서운 철의 장막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

사상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모순성과 강압정책은 이 이상 더 지탱할 길이 없어 이미 소련 자체와 그 위성국가인 여러 나라에서 빠짐없이 폭동이 일어났고 특히 폴란드와 또한 헝가리 등의 의거(義舉)를 철의 장막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저앉히려 했으나 너무도 힘차게 터져 나오는 이 사태는 마침내 막을 길이 없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공산악당에 제2기(期)가 지나 3기가 도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실증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정치가 '순전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한 당과 몇 사람을 위하여 전 국민을 노예화하고 너무나 과도착취를 자행한 결과가 그 자체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번 헝가리의 의거 문제가 영국 불란서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같이 애급(이집트)을 강타케 하였지마는 소련의 동아세아 침투계획과 그 전범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對) 중동경제원조와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격퇴하였으며 중동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진영의 기반을 다시금 확고한 자리에 서게 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6.25 전란을 계기로 한국에서 겪은 훌륭한 경험과 중화민국 대만(臺灣) 타이완에서와 또는 불란서로 하여금 월남(越南)베트남에서 체험한 결과로서 취하여진 적절한 시책인 동시에 온 세계로 하여금 3차 대전의 무참한 회생을 방비하고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존귀한 생명과 재물이며 헛된 수고를 피하는 한편 악독한 공산주의가 그 자체의 죄악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정책 즉 싸우지 않고 이기자 하는 전범으로 대처하는 것이니 이 전범이야말로 앞으로 가장 흥미 있는 국제적인 정치동향의 한 초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으며 또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지향하는바 그 정책, 정략 또는 방법, 이상, 목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초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국제연합 그 자체에 있으면서 오히려 파동적 운영 선(線)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일(週日)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정책이나 또는 텔레스 미 국무장관이 미국 국회에서 답변한 그 내용이야말로 확실히 소련으로 하여금 가슴이 서늘케 하셨을 것이요 또한 크렘린 지도자의 무리들에게 경종이 되었으리라 믿는 바이다. 그들이 만일 잘못 움직인다면 이 지구상 그 어느 편에서든지 미국의 완전히 준비된 원자탄 세레나 또는 수소탄의 총공격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또한 미국이 알라스카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2만 리 이상 되는 소련국경선을 완전히 포위하고 엄중한 감시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미국은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싣고 이 지구를 일주할 수 있는 제트

기를 가졌으며 또한 가장 완벽한 해군과 인적자원에 있어서도 제2차 대전에 완전 대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소련으로서 잘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도의 네루는 스스로 중간적 처지를 취하면서 자기나라 안에서는 공산당을 원수 같이 대하며 한편으로 중공과 소련을 통하여 중공과 소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였지마는 그가 직접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완전히 자기의 망령된 생각과 그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3차 대전을 대비한다는 것은 순전히 공산주의국가를 대항하는 것이요 공산주의국가를 대항한다는 것은 크렘린의 몇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크렘린 안에 3파(派)의 대립이 생겼고, 인간성으로서 더 참고 더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한 증거로서는 흐루시초프도 하여금 유고스라비아에 티토를 찾아가게 한 것이며 또한 티토를 흑해 연안으로 초청하였고, 다시금 중공(中共)의 주은래(周恩來)[저우언라이]를 급히 모스크바[모스크바]로 불러서 폴란드를 방문시킨 것이 그들의 정치적 움직임인바 그 이면을 속이려야 속일 수 없는 표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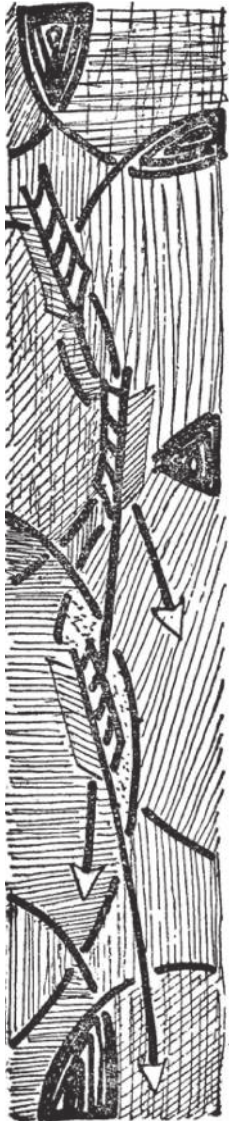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진영의 제1선에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 첫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며 전 세계의 번영, 발전, 행복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대의(大義)상 총을 들고 추우나 더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묵묵히 엄연한 태세를 취하고 전진명령을 기다리는 이 나라의 중견이요 간성(干城)인 백만의 청장년이야말로 25억 인류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성스러운 존재로서 일호(一毫)의 사심이 없이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하신 하나님의 선(善)을 찾으며 진리로써 싸우려는 우리 참된 인류에게 사랑의 재판을 내리실 것을 믿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고요한 듯하나 미묘히 움직이는 국제정세가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유리하게 비추어 오는 이때에 우리는 먼저 원리원칙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제일 첫째 조건인 그 나라의 국내 태세를 정비, 강화, 확충하여 장차의 대발전의 토대를 확립할 것이며 또 우리는 이 중대한 때와 곳에 있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몸을 단정히 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의 심경으로 정과 사를 구별하고 오직 공평을 부르짖음으로써 천시(天時), 지리(地理), 인화(人和)를 완성시킬 때에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세 반석 위에 설 것이요 3천만 우리 겨레는 하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락(福樂)을 이루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筆者) 민의원(民議院))

국제정치(國際政治)와 군사력(軍事力)

이상조(李相助)



1. 서설(緒說)

일반으로 국제정치라 하면은 그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정치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나 금일의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 즉 권력정치(power politics)로 되어있는 까닭에 국가 간에 있어서의 권력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일체의 국제관계를 포괄적으로 칭하게 되었다. 물론 국제관계는 반드시 국가 간의 정치관계 만에 한하지는 않는다. 국가에 속하는 개인 간의 문제도 국제관계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 내의 어느 사회집단이 국제관계에 연결되어 대상(對象)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국제결혼이라든지 국제기업연합 같은 사법적(私法的)인 것, 경제적인 관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제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정치관계로서 그것은 '힘과 힘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는 투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정치는 국가 간에 있어서의 세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에는 전쟁만으로 시종(始終)할 수는 없는 것이니 비록 전쟁의 가능성을 배후에 예상하여 끊임없는 군비확장과 국제경쟁을 전개하면서도 직접 전쟁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어느 정도 것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모색하며, 또 국제간에 어떠한 질서를 형성하려는 행동이 출현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제관계는 세력투쟁만이 아니라 세력균형에 의한 무장평화도 있게 되고 혹은 국제협력 내지 연대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금일의 국제관계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무력적 대립투쟁에서부터 평화적인 공존협력이라는 질서 형성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불안정한 관계가 시현되는 것이다.

여사(如斯)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를 이른바 국제정치관계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정치를 진단하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2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 국제정치를 '권력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대립된 견해이다. 전자는 국제정치

의 기초를 '권력적 우월의 투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제적 신질서의 탐구'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국제정치관계는 강대한 2대(大) 국가 또는 그 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군(國家群) 간의 세계적 우월을 추구하는 투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혹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또는 전체주의)와의 대립이라는 이데올로기(Ideology)의 일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해석은 이상주의적, 평화적 해석도 있고 또는 전투적, 광신적 해석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모두 인간과 집단과 세력이라는 것을 이념에 봉사하는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니 이데올로기에 대한 소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 예컨대 나치스에 의한 정복은 열등종족에 대한 우월종족이라고 자부하는 게르만 종족의 우월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며 서방민주주의제국(諸國)에 대한 소련 블럭의 투쟁은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라 하여도 가상적으로 별천지(別天地)의 운상(雲上)에서 상호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된 집단을 통하여 투쟁하는 것이니 즉 어느 집단에의 타 집단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탈린은 그 자신과 정치국의 소수자에 의한 절대적 통제가 없는 세계사회주의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였던 것이며 미국의 장성(將星)과 산업계의 거두들은 군비와 원폭사용에 대한 자기들의 단호한 발언력이 없이는 침략적 공산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파멸을 저지할 수 없다고 사유(思惟)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정치는 권력적인 측면과 현념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의 상호반응관계에 있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그것은 또한 권력정치로서 '군사력'과는 분리하여 고찰할 수 없다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권력정치란 세력의 획득, 유지 및 확장을 지향하는 정책과 그 정치의 본질이 권력적 계기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시현되는 것을 말한다. 즉 금일의 다수의 주권 국가가 국제정의(正義)나 윤리적 계기에서 존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실력(권력)에 의해서만 존립을 보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간의 정치관계, 따라서 끊임없는 세력투쟁으로 특질을 이루는 정치 현상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정치를 여사(如斯)한 권력정치로서 이해할 때 그것과 군사력과의 관계를 고찰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긴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정치를 더욱 정확히 또 본질적으로 파악하는데 첩경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근본법칙부터 구명(究明)하기로 한다.

2. 국제정치(國際政治)를 규정(規定)하는 법칙(法則)

1. 생존경쟁의 법칙(principle of struggle for existence) 국제정치의 이념은 국

제평화주의, 국제협력주의, 국제민주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공존의 이상에 결부되지 않는 현실의 국제정치는 생물(生物)사회를 지배하는 기본법칙 즉 '생존경쟁의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법칙은 투쟁주의의 원리로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국제정치에 발현되는 것이니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세력투쟁은 이 법칙에 기인하는 것이다. 개인에게도 부단히 발전하고 승자가 되려는 자유경쟁의 자연적경향이 있지만 국가 또는 민족 간에는 더한층 노골적으로 끊임없는 생존경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물계에는 '호투(好鬪)의 본능(本能)'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호투의 본능(The Instinct of pugnacity)은 욕망의 기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식욕근원설(食慾根源說)과 성욕(性慾)근원설로 나뉘고 있다. 이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배타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식욕근원설에 있어서는 동 종류의 다른 식물을 대체할 수도 있어서 그것으로 요구자의 욕망을 만족할 수도 있으나 이에 반하여 이성에 대한 욕망은 본래 어느 특성의 이성에 편경(偏傾)하는 경향이 있어서 용이하게 대환(代換)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질(特質)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경쟁에 있어서 노현(露現)되는 양상은 동(同) 종족 간에 있어서는 이성에 대한 경쟁이 더한층 현저하고 이(異) 종족 간에 있어서는 식욕에 대한 투쟁이 강렬하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이러한 생존경쟁의 법칙이 노현되는 이유는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여 자손을 번식하는데 그 본능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물의 결핍은 점차 심각화하며 동시에 그들의 생존하는 장소가 협소해짐에 따라 장소에 대한 욕구도 강렬해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성에 대한 독점경쟁은 동족에 있어서만 다소 엿볼 수 있고 이 종족 간에는 그다지 현저하지 않으나 반대로 민족 간 또는 국가 간에 있어서는 투쟁의 본능이 식욕과 장소의 양면에서 격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발달된 언사로 표현하면 식욕은 경제적 이권의 투쟁으로 전개되고 장소는 영토적 야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가 간 또는 민족 간의 투쟁은 경제적 이권에 대한 투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토에 대한 투쟁으로 되어있고 혹은 경제적 이권과 영토적 야망이 동시에 투쟁의 대상이 되며 이 양자를 떠난 순수한 이념상의 투쟁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찰할 때 국제정치는 결국 세력투쟁에 대한 변명 내지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생존유지와 더불어 경제적 이권과 영토적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떤 국가 간의 분류를 진단할 때는 먼저 그것이 '경제적 이권'을 대상으로

하느냐 '영토상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 분쟁이 '법률적 분쟁'으로 주장되느냐 '정치적 분쟁'으로 주장되느냐 하는 점을 고찰해야 되는 것이니 동일한 영토귀속문제에 관한 분쟁도 일방의 당사국은 법률적 문제로서 주장하는가 하면 타방의 당사국은 정치적문제로서 주장하는 경우가 예사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재판의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법률적 구속력 있는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을 원치 않을 경우에 정치적 문제로서 주장하며 그 배경에는 실력적 자구(自救)수단을 예견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 간에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는 표면상으로는 국제평화협력이니 하며 정치외교가들의 허울 좋은 이상론을 내세워 논쟁하고 '공동의 이익'과 '경제적 문화적 발달'과 '공존공영'의 구현을 촉진하느니 운운 하지마는 그 내실은 자국의 이익과 필요에 한해서만 주장하는 것이고 자국본위(本位)로 행동하는 것이며, 자국의 목적달성이라는 견지에서만 타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데 끝나는 것이다. 그것은 타국과의 연관이 자국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하고 유용할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취하는 태도고 타국을 위하여서가 아니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국제정치의 이념과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현실로 모든 국가는 국가주의를 버리지 않는 까닭에 이른바 권력정치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치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자국의 이익만을 전념하며 타국 또는 그것과의 공동생활을 위한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상도(常道)로 되고 있다. 만약에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상대방 타국을 희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 위에 타국의 영토를 침해하며 그 독립까지도 박탈하는 것도 사양치 않는다. 다만 현실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국제도이나 정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실력이 아직 그토록 우세하지 못하다는데 끌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국의 실력이 여하한 항거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침략하려고 서두르며 그것을 부정이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의 국제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근본법칙은 생존경쟁의 법칙이며 '힘과 힘의 관계'에 있어서 세력투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2. 연대(連帶)의 법칙(principle of solidarity) 생물사회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기본법칙은 '연대의 법칙'인바 이 법칙은 역시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근본법칙의 하나로 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협력주의의 이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니 국가 간에는 끊임없는 세력투쟁의 일면이 있는 반면에 상호 의존 혹은 상호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일면(一面)에는 배타적 독자성에서 자유 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일면에는 상호 의존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성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 간에도 대립과 투쟁을 하면서도 일방에서는 만국(萬國) 적십자사나 만국 우편기관이나 만국 무선통신연맹이니 하는 기관을 통하여 상호의 이익과 조화적 발달을 도모하며 현대에 와서는 국제연맹이니 국제연합이니 하는 국제평화기구를 통하여 더한층 다각적으로 연대 또는 협조(協調)를 도모하려는 자연적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국제정치가 '힘의 투쟁'만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일면을 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관계는 연대의 법칙보다 생존경쟁의 법칙이 일층(一層) 우위를 점하고 현저하므로 국제정치는 결국 '강자대(對) 강자의 관계'를 노현하는 것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3. 세력균형의 원리(principle the balance of power) 세력균형이란 정치적 세력이 평균하여 우열(愚劣), 경중(輕重)의 차(差)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니 본래 정치사회는 제(諸)사회집단의 '세력과 동적인 대립과 균형'과의 과정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력균형은 국내정치나 국제정치나를 막론하고 편재(遍在)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국내정치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격률(格率)로 시현되는 것임에 대하여 국제정치의 경우에는 권력수단의 다원성에 의하여 '지배'라는 것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응하여 국제정치를 권력정치로 해석하며 원리적으로 지배를 부정하려는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이 생(生)하여 유일한 "무장평화의 유지 원리"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간단한 형식으로서는 어느 일국(一國)(또는 국가군)이 세력을 팽창하고 강대해짐에 따라 다른 어느 국가(또는 국가군)가 그 침략의 위협을 느낄 때 여타의 국가와 동맹 제휴하여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쌍방의 세력이 대등하게 평균상태를 이룰 경우이다.

환언하면 일방에 강자가 대두하여 우월한 세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자를 침략하게 되므로 그러한 침략의 위협을 느끼는 약자들은 상호 제휴하여 동맹을 체결하고 침략에 대항하려고 세력을 규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양자의 세력은 우열의 차가 없는 상태로 된다. 여기에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 어느 쪽도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므로 전쟁은 발발하지 않고 자연히 무장평화가 유지된다.

이것은 근대국가의 외교원리로서 특히 영국이 외교원리로서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것이다. 그 현저한 예로서는 제1차 대전 전에는 독일, 오흥제국(奧洪帝

國)[오스트로-헝가리] 및 이태리가 '삼국동맹'을 체결하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끼는 노(老)대제국 즉 영, 불, 러는 '삼국협상'으로 대치하였던 것이며 제2차 대전 전에는 일본, 독일, 이태리가 3국 추축(樞軸)동맹을 체결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 불, 미, 중국 및 화란(和蘭)이 식 5국 동맹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소련이 연합국 측에 가담함으로써 추축동맹은 세력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패전으로 된 것이다.

또 제2차 대전 후에는 소련이 동구로부터 극동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위성국을 건설하여 세력권을 확대함으로써 공산침략의 위협을 느끼는 자유국가군은 미국을 선두로 하여 민주진영의 결속으로 반공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산진영 대 민주진영의 대립은 세력균형원리에 입각한 두 개의 세계라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하건대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근본법칙은 생존경쟁의 법칙이요 연대의 법칙이요 세력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실의 국제정치는 권력정치로서 그 내실은 a, 세력투쟁의 과정과 b, 국제협력 또는 연대의 행동과 c, 세력균형의 불안정한 관계 등으로 착중(錯綜)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3. 국제정치(國際政治)와 군사력(軍事力)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일의 국제정치는 세력투쟁과 세력균형이 주(主)내용으로 되고 있으므로 비록 국제평화기구로서 '국제연합'이 수립되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대립투쟁이 종식(終熄)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국가가 '나쇼나리즘'(민족주의 또는 국민국가주의)과 '인더스트리 아리즘'(산업주의)과 '데모크라시'(민주주의)로 발전해 왔고, 그것을 근대국가의 형성 제력(諸力)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아무리 표면상으로는 국제평화주의나 국제협력주의나 국제민주주의나 하여도 근본적으로 자국의 우월적 패권획득의 의욕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끊임없는 세력투쟁을 종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회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금일의 전쟁은 피아간에 막대한 희생과 손실을 재래(齎來)할 뿐 아니라 원폭, 수폭 등의 열양자(熱量子)무기는 만약 대전으로 발단되면 인류의 파멸 혹은 지구의 종언을 예상케 하므로 쌍방은 모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산진영이나 민주진영은 상호 상대방의 군사력과 신무기의 보유량 및 생산력을 탐색하기에 분망하며 상대방에 우월한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만약에 어느 쪽이나 상대방이 약하다고 간취(看取)되어 자기 측에 승산의 확신만 갖게 되면 직시(直時)로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은 명관화(明觀火)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제관계는 원래 세력

균형을 기조로 하는 것이며 어느 쪽이나 약하게만 보이면 공격이 감행되는 것이므로 군사력을 배경으로 다양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금일에 있어서 어느 국가나 단독으로 고립할 수는 없는 것이니 대립된 두 개의 세계에서 자국의 처할 바를 택하지 않고는 그 존립을 보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소위 중립국가군은 불편불당(不偏不黨)식의 중간노선을 견지하려 하지마는 그것도 13개국이라는 거대한 수자와 세력권을 이루고 있음으로서 가능한 것이고 결코 개개 국가가 고립하여 중립주의를 견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중립국가군이 어느 쪽으로 견인되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중대한 영향성이 미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므로 중립국가군을 자기 진영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서방측과 공산측 간에 냉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중립국가군의 군사력은 현재로서는 대단치는 않지만은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인 면에서는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쌍방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한 냉전을 전개하게 될 것이며 또한 중립국가군은 양 진영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제적 위치를 높이는 동시에 조만간 반드시 피치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제3차 대전에 있어서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위험을 모면해보겠다는 심산도 있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국제정치관계를 말해주는 현상이라 할 것이니 즉 중립주의는 전쟁에 제(際)하여 중립을 표방함으로써 쌍방에 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경제적 추리(追利)조건과 강대국 간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방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면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쌍방 간에 기진맥진하였을 경우에 제3국의 거중(居中) 조정자(調停者)로 개입하여 '어부지리(漁父之利)'를 구득(求得)한다는 타산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력투쟁에 의한 세력 확대의 가능성이 희박한 국가들이나 혹은 전기(前記)한 '어부지리'를 피하는 국가들이 직접적인 희생을 회피하면서 대립된 양 진영의 투쟁에 편승하여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하나며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제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중립노선을 견지하기는 극난(極難)할 것이다.

여하간 국가 간의 정치관계는 국내정치와 같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라는 것은 없으므로 오직 실력만이 최후의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로서는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월이 배경으로 되어있지 않고는 국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어있다. 비록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국가 간의 관계는 역학적인 물리력 즉 군사력이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어야만 발언권이 중시되며 따라서 군사력을 전제로 하는 국력이 약해 가지고는 결코 어디서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국력의 기준에 대하여 모겐소(Morgenthau)는 군사력 이외에도 그 국가의 천연적 자원, 지리적 조건, 인구, 산업생산력, 경제금

용력, 국민적 단결력, 문화적 생활수준, 정치적 역량, 외교의 역량 등을 열거하여 종합적인 국가총력을 측정해야만 된다고 하였다.

확실히 금일의 외교는 '전체외교'라 칭하여 국력을 총체적으로 경주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총력의 발현 특히 군사력의 우월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금일의 국제정치가 권력정치라는 특질을 여실히 웅변해 주고 있다. 현재 소련의 군사력은 175개의 전투사단과 4만대의 전차, 2만대의 항공기 그리고 근대식 잠수함대의 강대한 보유 장비가 그들의 배경으로 되어있다. 이 밖에 동구(東歐)의 위성국 군대가 약 60개 사단으로서 소련제무기로 장비되고 소련장교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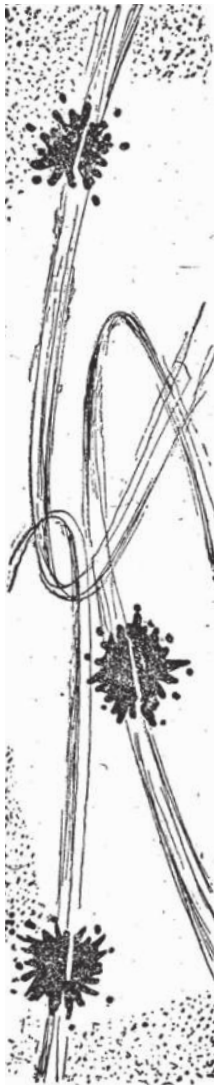
또 중공의 군사력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 지상부대로서 5백만의 소위 인민해방군과 1천 3백만의 민병 그리고 공안부대로서 2백만, 의용군으로서 약 2백만이 추산되며 공군력은 약 2천대의 비행기와 2만 5천명의 공군병이 있으며, 해군은 각종의 함정 340척이 있으며, 약간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는 소련이 2억 7백만, 중공이 4억 4천 5백만이라고 하므로 상당한 인적 자원의 풍부함을 과시하고 있다.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에 있어서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우세를 갖추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또한 강력한 결속으로 집단적 안전보장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서방측의 약점은 불란서가 또다시 본토의 전쟁장화(戰爭場化)할 것을 두려워하여 직접 소련과 대치할 것을 회피하는 것이요 또 영국이 소련 공군의 폭격을 두려워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표면으로도 내세우는 점에 강력한 결속단결이 여의치 못한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필자(筆者) 법대교수(法大教授))

3차 대전(三次大戰)과 공군력(空軍力)

최의영(崔毅英)



1. 미래전(未來戰)의 형태(形態)

국제연합조사통계위원회(國際聯合調查統計委員會)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의 인구는 매년 약 천만 명이상이 늘어가는 반면에 지구의 면적은 사람이 기거(起居) 동작(動作)할 수 있는 부분이 9백 에이커 정도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고로 해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덩어리의 인구밀도는 상승하여가고 있기 때문에 생존경쟁의 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곧 인류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니만치 우리는 역사가 되풀이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투쟁의 경력을 체험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여사(如斯)한 전쟁형(戰爭型)은 유발되리라는 필발(必發)적인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제2차 대전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전쟁에서 제1차 대전 당시보다 공군력이 작용하는 힘이 절대적으로 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쟁을 예상한 다면 반드시 공군력의 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연 3차 대전이 발발하였다고 가정할 때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느 부분이 전쟁의 핵심을 장악하느냐?가 문제이다.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앞으로의 전쟁은 반드시 공군이 전승의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가 공군이 전승의 패권을 잡으리라는 공통된 이론은 다음과 같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앞으로의 전쟁은 소규모적인 국부전이 아니라 전쟁(戰場)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병부대의 도보(徒步) 작전으로서는 승패의 결전을 해결할 수 없으며 장거리 작전에는 속도가 빠른 공군부대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근대전은 소총이나 포탄 또는 인해전술로서는 승패를 겨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어느 나라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은 열핵무기 이상의 것이 아니면 적의 모든 전력이 될 수 있는 핵심을 파괴시

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핵무기를 지상군이 승용차로 운반한다든가 또는 함정을 가지고 장거리 장시간 동안 수송할 수는 없으며 만약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는 적에 교묘한 탐색전에 의하여 모든 계획은 좌절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근대전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보다도 물(物)과 물의 경쟁이기 때문에 물량전에는 대규모적인 파괴능력이 없이는 적의 물량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파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략폭격기군(群)의 후방 교란작전에 절대적인 성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현대전은 민족과 민족 또는 국가와 국가의 상호 투쟁은 아니다. 사상과 사상의 대치전이다. 고로 적의 사상적 해를 양성(釀成)하기 위해서는 심리작전의 주효(主效)를 거두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중공격능력을 가지고 적지(敵地)의 주민생활을 파탄시키는 방법으로 교통망을 파괴하고 생산기능을 마비시키며, 주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전략공군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대전에서의 승패는 규모가 큰 공군력이 핵심을 견지하리라는 것과 또한 열핵무기의 경쟁에 달려있다는 것, 즉 현대전은 물자전(物資戰)이며 사상전이라는 기초 아래 절대적으로 공군력이 우월한 지위를 점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공(可憐)할 3차 대전에서 공군이 열핵무기를 장비하고 전투에 임하리라는 필연적 사실이 미래전의 형태라고 할 것이다. 미래전의 양상 가운데서도 공군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규범이 폭격기나 기의 대전(對戰)에 앞서서 지상군이나 해군도 원자장비로 재개편되어 교육훈련 등 각 방면으로 전쟁형태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군축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이유도 열핵무기가 나왔을 뿐이지 이를 방비할만한 무방비전쟁은 오히려 인류의 모든 문화재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명을 멸살하리라는 터무니없는 무계획전쟁은 피하는 게 좋다는데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열핵무기와 공군이나 지상군, 해군의 발전적 경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일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경제력이 지속되지 않는 한 불가한 것이다. 3차 대전의 형태는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불력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세련된 기술을 발휘하여 우수한 비행기와 숙련된 조종사를 많이 배출하느냐? 에 모든 승부는 결정될 것이다.

2. 현유(現有) 공군력(空軍力)

제2차 대전 후 미국은 매년 지출되는 국방예산을 감소하고 국가산업동원능력이 부대라는 소비체(消費體)에 동결시키느니 보다는 동결된 노력(勞力)자원을 전

후(戰後) 산업경제부문에 전용할 목적으로 예비역에 편입한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주로 육군부대에서 전용되었지 공군이나 해군은 극히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해군보다도 공군은 또 적은 편이다. 그러나 소련은 계속하여 지상군의 병력도 대량 확보하고 세계 적화(赤化)정책을 지속시켜 왔었다. 그러기 때문에 1950년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때는 미소(美蘇) 간의 병력이 대단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미국을 위시(爲始)로 자유진영은 급속히 예비군을 소집하기 시작하여 국방예산은 놀라운 상승지수를 표시하게 되었었다. 고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병력을 기초로 한 군사력 대비는 공산진영이 훨씬 우세한 때가 있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공산북한과되는 안심하고 남침하여 한국 전역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선발(煽發)시키게 되었었던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공군력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별로 대비한다면 자유진영이 우세하다. 항공기의 숫자도 그리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공산진영은 자유진영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공산진영이 자유진영에 비하여 공군력이 열등하다는 것은 항공기나 병력이 적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諸)조건이 개재(介在)하고 있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자유진영의 공군은 실제 전술 면에서 제2차 대전 후 전투에 참가하였던 경험 있는 조종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산진영은 공군이 근대화되기는 하였으나 출격경험이 적기 때문에 훈련만 가지고는 만약 전면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 전술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둘째로는 자유진영은 집단적 군사단체 즉 북대서양동맹 또는 동남아방위조약기구, 바그다드 조약기구, 발칸동맹 기타 개별적 군사동맹에 의하여 광범한 출격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산진영을 완전히 포위상태에 있는 전략기지가 있다. 즉 전략기지가 소련권(圈)의 주변에 군재(群在)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 전면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출격하는 항공기들이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시간 아 축소되며 공격목표를 파괴하고 출격기지에 돌아올 수 있는 호조건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는 근대 공군이 핵열무기로 재개편되고 훈련의 태도를 제고시키려면 방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어진다. 이르기 위해서는 재정적 보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유진영의 각국은 대체적으로 공산진영에 비하여 국민소득이 많은 뿐더러 산업생산량과 기술혁신 방면에 우수하다.

넷째로는 공산진영에 대한 출격 지역이 자유진영으로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용

이하지만 공산진영으로부터 자유진영 제국(諸國)에게 공격을 가하려면 동서양(東西洋)을 통하여 광범한 목표의 분산으로 진격이 불편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자유진영의 각국 공군은 저마다 특수한 전술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산진영은 전부가 소련의 공군기예다가 소련이 조종전술을 습득한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공격방법이 일정하다.

이러한 호조건으로 자유진영의 공군력은 공산진영에 비하여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구라파에 동서구(東西歐)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 각국의 공군력은 다음과 같다. 자유진영은 다음의 통계에서 집계된 외로도 많이 있으나 동구(東歐) 제국(諸國)은 전부 집계된 숫자이다.

자유진영의 공군력

구별 나라별	항공기	병력	비고
미국	22,900	975,000	전폭기 36연대, 중폭기 50연대, 본토 방위수송 44연대
영국	5,000	254,000	영국은 1939~1945년까지 전성기에는 43,000대를 보유하고 있었음.
프랑스	1,000	138,000	51개 연대
캐나다	2,800	49,500	방공(防空) 21개 중대, NATO 파견 12개 중대, 기타 8개 중대
네덜란드	525	18,000	21개 중대
이탈리아	350	25,000	제한되었음.
서독	1,200	7,000	서독은 이 이상은 금지되었음.
그리스	250	12,000	7개 전술중대

자료: 1957년도 외국연감에서

동구(東歐)진영의 공군력

구별 나라별	항공기	병력	비고
동독	300	8,000	대부분이 연습용 전투기임.
소련	23,430	800,000	18개 항공군(航空軍)
폴란드	800	70,000	일선기(一線機) 300 예비기(豫備機) 500
체코	1,000	25,000	4개 사단
헝가리	500	15,000	
불가리아	100	6,000	
루마니아	300	18,000	

자료: 민주주의와 군사력(1956년 외국판)

한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세아 지역의 공군력을 자유진영, 공산진영, 중립진영 별로 집계하면 항공기가 자유진영이 2,158대, 공산진영이 4,050대, 중립진영이 185대, 총계 6,393대가 있다. 이 외에도 아세아 지역에는 미 공군기 또는 미 해군기, 미 해병지가 자유진영을 엄호하고 있다. 공산진영도 소련의 극동공군이 중공, 북한, 외몽고 등의 제(諸)공군을 엄호하고 있다.

아세아 공군세력의 대비

구별 진영별	항공기	병력	비고
자유진영	2,158	137,369	미 극동공군의 세력은 제외하였음.
공산진영	4,050	253,010	소련 극동지구 공군세력도 제외하였음.
중립진영	185	16,000	
계	6,393	406,379	

자료: 자유중국 국방대학교 교재(1956년판), 자유통계연감(1956년 외국판)

3. 미래전(未來戰)과 공군(空軍)의 임무(任務)

미래전의 형태는 광범한 지역에서 민족과 민족의 전투가 아니라 사상과 사상의 대상에서 오는 진영별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투형태가 지상군이나 해군에 의하여 결전(決戰)되고 승패의 판권이 해결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면 미래전의 이러한 형태 가운데서 공군이 담당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미래전의 공군은 두 가지 사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지상군이나 해군의 작전을 엄호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전보장을 기하는 방공임무 등 즉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하기 위한 전술공군이 있으며 또 하나는 적의 보급로를 파괴하고 국내 산업신경을 두절시킬 수 있는 전략공군이 담당하는 임무가 있다. 미래전에서 전술공군과 전략공군이 활동하는 역량여하가 전승의 기본 요소로 되리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전술공군과 전략공군별로 나누워 그 임무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공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상군과 해군의 작전을 엄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적의 공군기들이 아군의 작전을 저해시키거나 또는 적의 전략공군기들이 침투하여 아방의 생산시설, 교통시설, 체신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보장시설을 파괴하러 오는 침략의도를 방어하는데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아 공군기들이 작전할 수 있는 작전지역의 공중안전보장과 적기(敵機) 활동을 제압할 수 있는 제공권을 장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략공군이 담당하고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임무는 극히 중요한 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적의 산업생산기능을 마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고성능 원자무기를 가지고 대지공격(對地攻擊)을 감행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적지(敵地) 주민으로 하여금 압전(壓戰)사상 또는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심리작전의 주효(奏效)를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파괴, 농목장, 도로, 교량, 철도, 터널, 개관수리(灌溉水利)¹⁾ 시설 등 여하튼 주민의 불안정한 생활요건을 가(加)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적지에 대적(對敵)심리작전의 일부로서 전황의 보도, 비라의 산포(散布), 구호물자의 투입 등으로 전쟁소아병(戰爭小兒病)을 유발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공군수송의 원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공중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고 방파작업을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실로 앞날에 있어서 전면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상한다면 공군이 담당하여야 할 임무는 전쟁의 핵심요소 대부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앞으로의 전쟁은 반드시 공군만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공군이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전선의 지상군을 엄호하고 적 지상군이나 해군의 진출을 저지시키며 적 공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점령된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적(對敵) 점령지역의 군정이라든가 선무(宣撫)공작 같은 것까지도 공군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육군이 필요하고 해상의 영역 보호라든가에 대하여 역시 해군이 하여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고로 앞으로 미래전 적어도 수소탄이 전쟁무기로서 최고 영역을 차지하는 현실정 하에서는 수개(數個)의 열핵탄을 이 지상에 폭발시킴으로서 모든 생물의 생명을 사멸시킬 수 있는 현 조건으로는 전쟁의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뿐더러 거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수소탄이나 원자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능력이 생긴다고 하였을 적에도 공군이 차지하는 전장(戰場) 영역은 극히 광범하다 고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하에서 양성(釀成)되는 전쟁관(戰爭觀)을 인식한 우리나라에서도 공군의 급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조국통일이란 목적을 이룩하는데도 공군의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끝)

1) 원문의 灌溉는 灌溉의 오기로 보임.



초음속 폭격기 출현

델타 익(翼)과 백색 기수(機首)를 가진 미국 최초의 초음속 폭격기가 텍사스 주 포트 워즈 기지 상공에서 시험비행을 하는 중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성층권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이 콘베어 B-58 후슬러(Hustler)²⁾ 폭격기는 4발의 터보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폭격기인 것이다.

2) 원문의 Huseur은 Hustler의 오타임. Convair B-58 Hustler²⁵⁾ 1927년은 오타로 보임.

한국(韓國)의 공업화(工業化)

주(主)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재건(再建)에 있어서

이중재(李重宰)

한국의 총인구를 3천만으로 추정하고 농민의 수를 80%로 추정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식량상태를 보면 전체인구의 80%의 인원으로서도 식량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현상이나 미국의 예를 보면 전체인구의 40% 미만의 인원으로서도 전체인구의 식량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잉여농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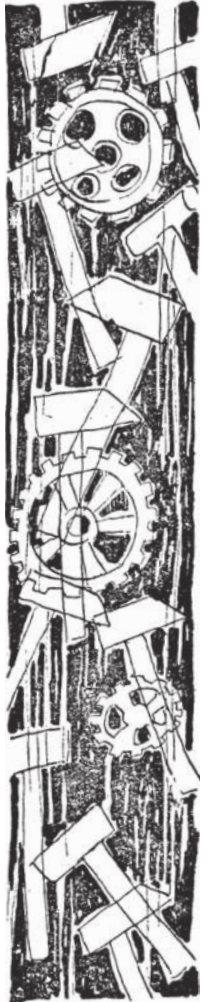
이렇게 80%의 농민을 가진 우리나라이면서도 미국의 농업에는 도저히 미급(未及)하는 현상이니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산업의 방향은 고도의 공업화도 요망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농업국이 되어야만 할이다.

즉 선결문제인 농업의 자급자족이 해결된다면 연간 수천만 불의 외곡(外穀)을 도입하는 불화(弗貨)를 공업의 원료 또는 생산기관용 자재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간단히 한국의 정업화(正業化) 농산물의 자급자족이 수년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첫째로 산업기초의 제1위를 차지하는 비료생산공장의 건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료공장의 설치는 현재 연간 수천만 불의 농산물과 연간 5천만 불 이상의 화학비료를 도입하는 외화가 절약되며 이에 따르는 화학약품공장, 기계공장 등의 중소기업이 육성되며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의할 것은 기초공업을 지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란 일조일석에는 성립될 수 없겠으나 초기에 있어서의 제품의 조악(粗惡) 또는 생산가의 고율(高率)은 국내기술





<필자(筆者)>

의 육성, 국내자본의 축적과 제품의 경쟁 등에 의하여 자연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이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이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심과 방법에 따라 시간과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공업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과 금액의 차이에서 오는 곤란을 극복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전원(電源)개발을 들고자 한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충주(忠州)비료공장만 하더라도 20,000kw의 자가발전시설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도 카바이트공장, 알루미늄공장, 제지공장 등 대부분의 공장이 전력을 원료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말기의 공업화시대와 현재의 미국, 일본 기타 고도로 공업화한 제(諸)국가의 전력개발은 제반(諸般) 공업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며 전력 수용(需用)과 생산은 경쟁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연간 1,000만 kw 이상의 발전능력이 증가되며 일본에서도 연간 3, 40만 kw의 신규전원을 개발하고서도 공업의 진도에 따르는 전력 수용에 미급한 것을 볼 때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공업은 전력개발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발전능력을 본다면 미국이 1억 2천만, 일본이 1,300만 kw 즉 국민 1인당 평균전력으로 미국은 약 1kw, 일본은 약 0.2kw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보면 남한 총발전시설 30만 kw로 남한인구 2천만에 대하여 1인당 평균 15w의 극소한 전력 분포이니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공업화의 뒷받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제 말기에도 국민 1인당 평균 75w의 전력을 가지고서야 흥남(興南)비료, 카바이트, 인조석유(人造石油), 마그네슘, 알루미늄공장 등 전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제공업의 뒷받침을 한 것을 상기(想起)할 때 금년도부터 점차로 완성되어가는 ICA 자금에 의한 방직공업 기타 중소기업시설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는 차제(此際) 전력의 생산이 여기에 미급한 상태이니 공업화의 절대 긴급한 제1단계는 전원개발에 있으며 전력증강으로서만이 공업화의 전제(前提)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통기관의 완비를 말하고자 한다. 현재와 같이 발전소는 있어도 연료수송이 원활치 못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를 볼 때 제반 공업에 있어서도 원료 및 생산품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며 이와 동시에 제반 생산가격에 있어서도 수송비와 수송의 불원활로 인한 생산의 지장에 따르는 금리(金利)의 손실, 도중분실의 빈발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발전에 일대(一大) 암이 되고 있으니 운수에 있어 철도를 위주로 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피하겠으나 보조기관으로서 도로망을 이용하는 자동차 운송, 하천 및 연안(沿岸)을 이용하는 해상 수송 등을 다각적으로 확충하여 때때로 일어나는 열차운행 감소를 상호 보충케 하여 수송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연료문제 해결을 들고자 한다. 현재 교통, 발전(發電) 기타 공업의 원동력을 주는 연료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실현하기 곤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료생산은 주로 무연탄인바 그 질은 비록 좋지 못하나 매장량이 많음으로 발굴과 수송의 합리화를 기한다면 연료문제는 태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유연탄과 중유, 경유, 휘발유 등 외화로 도입하는 연료소비가 연간 수천만 불에 달하고 있으니 매장량이 풍부한 무연탄의 적극적 사용과 연구를 강행하여 유연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또 풍부한 원료를 가진 전분으로 알코올생산을 장려하여 휘발유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면 외화의 절약은 물론 연료공업의 발전도 성립될 것이다. 요(要)는 무연탄의 사용범위를 넓히며 언제든지 요구되는 장소에 염가로 공급할 수 있는 태세가 완비되어야 한국 공업화의 기초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 공업화의 전제조건은 농산물의 자급자족이 선결문제며 비료공장 설치 및 이에 따르는 제(諸) 공업전력의 증강, 운수의 강화 또한 연료의 보충 이것이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에 이의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 경전사장(京電社長))

자유(自由)에의 반응(反應)

MIG-15를 몰고 자유세계(自由世界)로 넘어온
파란(波蘭)[폴란드] 전(前) 제트조종사는 말한다



조지 R. 레이스

제트조종사 프란시스제크 자렉키는 사람이 미국에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가장 좋은 실례일 것이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폴란드 공군 중위였으며 철의 장막 뒤에서 MIG-15 안에 앉아 여하한 자유서방 측의 항공기라도 이를 격추할 것을 노리고 있던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완고한 전투기조종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쾌활하고 마음이 편한 대표적인 미국의 대학생이다. 그는 자신을 가지고 한동안 미 공군에서 활약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침내 미국에서 실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조그마한 마을 캠프릿지 스프링스에 있는 엘라이언스 대학에서 사업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3년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시민이 되어 공군에 입대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F-100이나 F-102 혹은 F-104를 조종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렉키는 MIG-15A를 타고 다른 폴란드 공군조종사 셋과 함께 발틱 해상(海上)을 초계비행하고 있을 때 돌연 편대에서 이탈하여 철의 장막을 뚫고 나와 정말(丁抹)[덴마크] 영토인 보른홀름 도(島)의 짧은 초원(草原) 활주로 위에 착륙을 하였던 것이다. 최신형 소련항공기의 하나였던 그의 비행기는 자유서방 측으로 넘어온 최초의 손상되지 않은 MIG기였다.

이 비행기는 연합국의 가장 우수한 테스트 파일럿들에 의해서 누차 조종되었으며 또한 항공설계기들에게 그 성능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분해와 재조립이 거듭되었다. 그러한 정보는 미국의 항공기설계기들과 한국의 자유세계 조종사들에게 MIG기의 약점에 대한 많은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MIG기에 대한 최선의 전술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며 장차에도 더욱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조종사인 자렉키도 역시 자유세계에 대해서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소련 및

폴란드 공군에 대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아직도 철의 장막 뒤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서 ‘자유구라파방송’을 도왔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폴란드를 노예화한 나의 이전의 상전들인 소련인들과 공중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나는 머리 위에 비행기소리를 들을 때마다 특히 제트기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초조해 못 견디겠습니다.”

자렉키는 폴란드의 스타니슬로우우라고 하는 곳에서 한 폴란드군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제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살해되었다. 그는 소련이 그의 조국과 학교를 점령하게 되자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 폴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글라이더학교에서 비행술을 배웠으며 1950년 10월에 2,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150명의 합격자의 한 사람으로서 폴란드 데블린에 있는 국립항공대학에 입학하였다.

자렉키는 폴란드 사관생도의 훈련을 상기하면서 그것은 미 공군에 있어서의 훈련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 물리학, 항법 및 그 밖의 학과에 대한 많은 학술공부에 이어서 YAK-9 프로펠러 연습기로, 그 다음에는 제트기로 비행훈련을 받는다.

그는 처음에 와르소오 교외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대에 배속되었는데 이 부대는 초기(初期)형의 MIG-15로 장비되어 있었다.

“그건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하고 그는 회상한다. “봉급은 많이 받았습니다. - 한 달에 2,450즐로티³⁾를 받았는데 이것은 600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폴란드 공군이 소련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속으로 크게 분개하였습니다. 소령급 이상 장교의 약 99%가 소련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나는 도저히 나의 동료장교들에 대해서 스파이행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공산주의와의 인연을 끊고 자유세계로 넘어올 것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자렉키는 그가 단지그에서 서방으로 50리 떨어져 있는 슬러로스크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대대로 배속되었을 때 드디어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부대는 MIG-15 최신형으로 장비되어 있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서방측의 공격이 절박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자유세계와 공격

3) zeloty 폴란드 화폐 단위.



<유나이티드 항공회사의 한 기장이 DC-7 여객기의 조종실에서 프란시스제트 자렛키에게 내부를 설명하고 있다>

을 격퇴하기 위해서 순식간의 명령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그 혹한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요격기 안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다.

1953년 3월 5일, 자렛키는 마침내 탈출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초계비행에 4대의 비행기를 지휘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고도 18,000의 희미하게 보이는 상공을 순항 중 돌연 나는 바로 지금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

을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렛키는 버튼을 눌러 날개 끝에 달린 연료탱크를 떨어트리고 급강하를 하기 시작하였다. 깜짝 놀란 그의 동료들은 곧 멀리 뒤떨어졌다. 그 다음 그는 한 동료가 라디오 마이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노벨머어(기지본부의 암호) 731호가 도주하고 있다!” 731호는 자렛키의 MIG기 번호였다.

그때 자렛키는 묘한 충동에서 마이크를 향해서 이렇게 빈정대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 나는 스탈린을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간다.”고. 당시 스탈린은 병으로 몹시 앓고 있었으며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죽었다.

자렛키는 덴마크 영토인 보른홀름 도를 향해서 날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미 공군기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었다. 물론 그가 들은 정보는 허위였으나 그는 그곳에 3,000척(呎)에 달하는 초원 활주로를 발견하였다. 바로 그때 그는 슬러프스키 기지본부의 라디오가 다시 4대의 MIG기를 출격케 하고 자렛키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 초원 활주로는 너무도 짧았다.

“그러나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여지가 없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는 숲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의 MIG기를 착륙시켰다. 비행기는 수목 밑을 쏘살같이 활주하고 머리위에서 폭음이 들려오는 추격 전투기들의 눈을 피하였다.

덴마크인들은 조사를 끝마친 다음 자렛키를 석방하였고 그와 MIG-15는 서방측으로 이양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위스콘신 주 출신의 국회의원 알빈 옌스키 씨는 그에게 영구적 망명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렛키는 그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와 미 공군과 해군당국자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국회의원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그는 할리우드에서 그의 극적경험에 관한 영화에 연출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비행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 주 메드버일의 레이 B 스팔딩이라는 친구와 함께 흔히 비치 보난자 기(機)로 비행하고 있다. 그는 폴란드계 미 공군 용사인 프란시스 가브레스키 대령과 함께 T-33 제트연습기를 조종하였는데 가브레스키 대령은 그에게 일부의 가장 우수한 미국 제트기를 연구하고 조종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최근에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에리에서 비행시험을 받고 개인면허를 얻었으며 미국 내에서의 개인 비행과 사업 비행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비행의 자유에 대해서 “철의 장막 뒤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다. “정부 관리(管理)의 사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비행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의 비행은 정부 후원의 클럽에서나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군대에 들어갈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렛키는 시민권을 얻는 즉시로 미 공군에 입대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투기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신반의의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즉 미국 전투기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너무도 많으며 따라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만일 내가 미국의 깃발아래서 할 수 있다면, 전투하는데 F-86보다는 오히려 가볍고 상승속도가 빠르고 선회속도가 빠른 MIG-15A를 조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군사이론이지만, 홀

☆ 소아(小兒) 훔친 도녀(盜女)에게 소아 제공(提供) 돼도(殺到) ☆

도린 하리스라는 23세 되는 부인, 부(夫) 존 씨(氏) 간에 어린애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생후 16일 되는 소아를 훔친 지 2일 후 이 소식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그런 얘기를 탐내거든 나의 얘기를 드리겠다.”는 편지가 10여 통이나 보내왔다. 그중 한두 장의 편지내용을 소개 하면 “나에게는 어린애가 4명 있는데 이 중 어느 애든지 좋다는 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장은 “나는 내월에 해산하니 이 애를 드리겠소.” 이것은 영국 하릿스의 이야기.



를 공격은 최일선의 방어인 것이며 MIG-15A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MIG기에는 중량이 가해지는 불필요한 장식이 없습니다.— 방호구도 없고 캐노피를 올리고 내리는 멋진 장치도 없으며 우수하고도 중량이 가벼운 라디오통신을 장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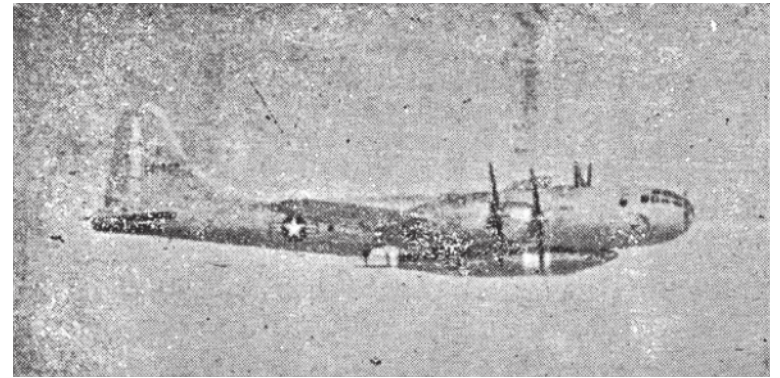
“많은 미국인은 구식 소련전투기 MIG-15가 보잘것없는 값싼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비행기로 시속 700리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이 비행기는 세이버제트기보다 높이 그리고 빨리 상승하였습니다. MIG-15기의 상승한도는 51,000척인데 반해서 세이버제트기는 45,000척입니다. 그 중량은 불과 12,000파운드이며 5,8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지고도 굉장한 추진력과 상승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 같으면 상대방의 비행기보다 높이 그리고 빨리 상승할 수 있고 빨리 선회할 수 있는 비행기만 준다면 방호구는 없애버려도 좋습니다. 나는 방호구를 주고 적기의 뒤와 위로 달라붙을 수 있는 기회와 바꾸겠습니다. 방호구는 여차피 기관포탄이나 로켓탄에는 견지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한국전쟁에서 F-86 1대가 13대 내지 14대의 비율로 MIG기를 격추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렉키는 이 숫자를 깔보는 듯이 무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전선에서 F-86을 조종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이 나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의 F-86 조종사는 훌륭하게 훈련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제2차 대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MIG-15기는 소련이 중공군과 북한괴뢰군에게 양도한 구식기였다.

“농군으로부터 조종사가 된 그들은 불과 수백 시간의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조종사들에 의해서 쉽게 격추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철의 장막 뒤에서는 인적자원과 인명이 몹시 값싼 것입니다……” (끝)



<모기(母機) B-29에 의해서 고도 6마일까지 운반되는 벨 X-1A>

<항공실화(航空實話)>

9만척(九萬呎) 고공(高空)을 날다

미 공군 소령 아더 머어레이

세계항공사상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고도에 올라갔던 한 로켓 시험기의 테스트 파일럿은 그가 경험한 정막한 지구의 외계에 관해서 말한다.

잭크 리들리 중령은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띠면서 나의 비행계획서를 내민다. 나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가볍게 휘파람을 분다. 검은 연필로 위로 올라가는 선이 그려져 있다. 선은 30,000피트에서 시작하여 한없이 위로 올라간다. 리들리 중령이 더 큰 종이 위에 그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만큼……

“최고의 고도일세.”

하고 그가 말한다.

“할 수 있겠나?”

리들리 중령은 벨 X-A 로켓 시험기의 계획기사이다. 이 고고도 시험기는 남부 캘리포니아 주의 모하브 사막에 있는 거대한 비행시험소,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시험되고 있다

“당신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말한다.

최고의 고도는 90,000피트이다. 17마일이다. 아무도 일찍이 그만한 고도에는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리들리 중령도……

그런 고도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우주로 통하는 그 입구를 지나가려는 최초의 인간에게 어떠한 예기치 않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고고도 여압복을 입고 F100초음속 제트전투기 앞에 서있는 머어레이 소령>

없다. 공기는 사람의 피(血)를 주전자의 물처럼 끓게 할 만큼 희박하고, 온도는 한난계의 수은을 얼어 붙일 만큼 차고, 우주선이 방사하고, 운석이 날아오고, 이상하게도 증량감이 없어진다.

“공군에서는 꼭 한 번만 더 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네. 잘 해보세.”

리들리 중령은 말한다.

나는 그가 말하는 뜻을 알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X-1A와 같은 로켓기는 우주를 향하여 높이,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는 자

연폭발지구에 들어가기 전에 조종능력 한계라는 무서운 괴물이 존재한다.

“자네는 근 30,000에서 모기(母機)로부터 낙하된다.”

리들리 중령은 계속해서 말한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따라서 검은 선을 주시한다.

“아음속(亞音速)에서 30도의 상승을 한다. 이때 자네는 3개 로켓 챔버로 비행한다. 50,000에서 제4의로켓에 점화하고 연료의 흐름을 주시한다. 그 다음에 약간 상승도를 감하여 초음속으로 난다. 신속의 고향력범위(高抗力範圍)를 탈출한 다음에 다시 기수를 든다.”

바로 여기에서 2분 동안의 상승으로 나의 연료는 절반이 소모된다고 리들리 중령은 말한다.

“비행기는 총알같이 빨라질 것이다. 자네는 50,000에서 약 70,000으로 상승한다. 연료압력의 동요를 체크하고 그 과산화물(過酸化物)의 온도를 주시한다. 속도는 마하 2를 유지한다.

자네는 80,000에서 90,000으로 올라가는 동안 조종성(操縱性)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자네는 가벼워진다. 연료는 거의 다 소모되고 추력과 증량의 비율은 거의 1대 1이다. 자네는 여기에서 더욱 속력을 내어 목표 고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척크 이거 소령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1953년 12월 13일에 X-A시험기를 나에게 인계하였다. 12일에 이거 소령은 그 로켓기를 몰고 시속 1,600마일이라는 세계 속도기록을 수립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생환하였던 것이다.

이거 소령은 고도 약 70,000에서 속력을 내어 마하 2미터의 바늘이 마하 2를 지나갈 때까지 지속하였다. 음속의 2배 이상을 날고 있을 때 X-1A는 상부의 희박

한 공기의 충격파가 그 뜨거운 기체표면 위에 그림자처럼 내습하자 예기치 않은 힘에 의해서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거 소령은 조종간이 굽힐 때까지 조종장치와 씨름을 하였다. 그는 심하게 캐노피에 에 부딪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가 다시 그 견잡을 수없이 날뛰는 비행기를 다루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에드워드를 향해서 50,000피트나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다행이었다 - 당시 X-1A에는 사출식 좌석이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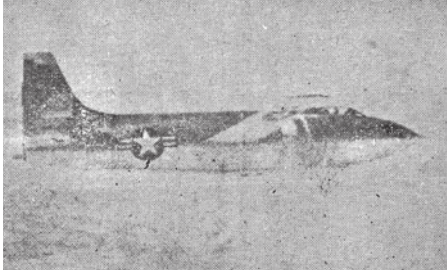
그날 이거 소령은 단순히 라이트 형제가 키티 호크에서 비행에 성공한 이래 반세기의 항공발달을 훌륭하게 완결하는 세계속도기록을 수립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보다 6년 전인 1947년 10월 14일에 그가 최초로 돌파한 음의 장벽보다 더 무서운 새로운 문제에 조우하였던 것이다.

고고도에서 음속 이상의 고속도로 비행할 때에는 또한 실속(失速)의 속도도 커진다. 왜냐하면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더욱 희박하여 저속에서는 날개를 받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속하지 않도록 더욱 빨리 날아야 한다고 중령은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험기는 새로운 초음속 설계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그 이상 더 빨리 날 수 없으며 더 빨리 날으려는 충격파의 내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독자는 리들리 중령이 말하는 ‘조종능력 한계’라는 기술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얼음으로 덮힌 커브를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빨리 달리면 길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만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하다. 오직 다른 점이라고는 로켓기로 비행할 때에는 얼음으로 덮인 길이 아니라 희박한 공기와 싸운다는 것뿐이다.

마하 2 이상의 속도에서는 풍동시험(風洞試驗)에서 얻은 자료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X-1A와 같은 시험기는 기술자들이 예언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 한 번 로켓 시험기가 비행하고 나면 그때마다 초음속비행의 공기역학적인 자료가 조금씩 더 는다. 이거 소령이 발견한 사실은 내가 맡은 일을 더욱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발견한 사실은 그 다음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설계자들은 우주에 도달하기 전에 성층권 상부를 나는 신형기를 만들어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켓기를 코스에 따라서 조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주선 설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우주에 있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속인(俗人)이며 나는 피곤하다. 나는 리들리 중령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기지 가까이 있는 집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아온다. 나는 아내 베테에게 어린애 넷을 잠자리에 누이도록 하고



<비행중인 X-1A>

일찍 자리에 눕는다.

잠자리에 누우니 내일의 문제가 불쑥 생각난다. 나는 베틀이 그의 냉장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얼음을 녹이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우리의 시험비행 수석 파일럿 프랭크 K. 에버레스트 중령을 위해서 추적비행 하던 때를 회상한다.

에버레스트 중령은 X-1A의 전신

인 X-1 고고도비행을 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기지를 향하여 굉장한 속도로 활공하고 있었다. 흑한 높은 공중으로부터 뜨거운 사막의 공기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X-1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 속을 돌진하여 에버레스트 중령의 풍방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두터운 서리로 덮이고 말았다. 그러나 풍방을 닦는 장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옆에 접근하여 장님을 인도하는 개의 역할을 하였다. 라디오를 통하여 에버레스트 중령을 에드워드에 있는 큰 건조호상(乾燥湖床)으로 유도하면서……그러나 그는 나에게 그 빛을 갇았다. 나의 초기의 비행에서 X-1A의 풍방에 역시 얼음이 얼었을 때 에버레스트 중령은 나를 유도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테스트 파일럿의 팀워크는 위기에서 살아나는데 편리한 것이다. 유능한 추적 파일럿은 사전에 사고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를 방지한다. 로켓의 화염을 체크하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해서 비행할 때도 그렇다. 그 색깔로 그는 그 연료의 혼합이 정확한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나도 리들리 중령에게 한 번 조그마한 친절을 베풀 적이 있다. 그가 6마일의 고고에서 모기의 폭탄창에 매달린 X-1B의 킷트 안에 들어앉아 있을 때이다. 투하되기 불과 1분전에 나는 그 밑으로 비행하여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 액체산소가 몹시 심하게 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라디오로 모기의 승무원에게 리들리 중령을 투하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의 마지막 비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초기의 X-1A비행으로 액체산소의 상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직접 경험에서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추적 파일럿 이거 소령을 뒤에 남기고 3개의 로켓 챔버로 급상승을 하고 있었다. 그때 중심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판 것이 아니라 내가 알뜰 로켓 연료를 연소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액체산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다른 탱크에서 충분한 연료를 쏟아냄으로써 위기일발에서 치명적인 테일스핀(미부를 휘둘리며 돌립 비행을 하는 것)을 면하였다. 테일스핀이라도 보통 기수를 밑으로 하고 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치는 비범한 동작이다. 미부의 과고한 중량으로 말미암아 억제할 길 없이 꺼꾸로 나선(螺旋)비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다.

나는 옆치락뒤치락 하면서 손을 내밀면 닿을 것같이 가까이 서있는 그로테스 크한 요수어 나무 위에 떠오르는 모하브 사막의 은빛처럼 맑은 달빛을 향해서 눈을 감는다. 나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안 되는 베틀의 걱정을 한다. 우리의 다섯째 어린애는 사산을 하였다. 여덟 살 난 마이크는 기관지폐렴에서 회복 도중에 있다. 세살 먹은 크리스는 최근 넘어져서 몹시 머리를 깨었으나 그리 심한 증세는 아니다.

그럼 이제 달콤한 꿈나라로 들어간다. 피부를 졸라매는 T-1 여압복을 간신히 입고 모기가 들어가도 긁을 수도 없는 어항 같은 헬멧을 쓰는 꿈을 꾸면서……

사막의 눈부신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비친다. 벌써 날이 섰다. 1954년 8월 26일이다. 운명의 날이다. 속히 목욕을 하고 아침밥을 많이 먹는다. 몇 시간을 요하는 비행이 끝날 때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베틀은 근심을 억제하고 미소를 띠운다. 테스트 파일럿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결혼은 미리 각오한 모험이다. 작별 키스를 하고 아직 잠들어 있는 어린것들을 힐끗 들여다보고는 '미 공군 연구발전사령부 비행 시험서'라는 어마어마한 간판이 붙은 사무소를 향해서 집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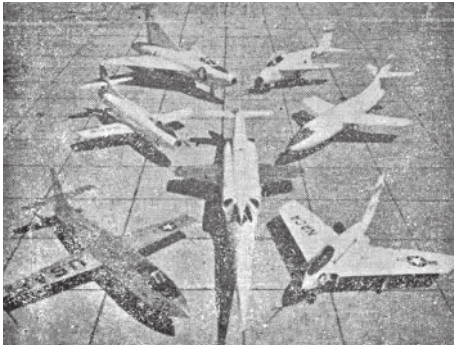
나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 다만 나는 테스트 파일럿이고 오늘 90,000피트 고공을 올라간다는 것뿐이다. 요수어 나무가 서있는 이 한적한 곳에서 활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스릴을 느낀다. 수백 마일 떨어져있는 주변에는 레이더 스테이션이 고독하게 서있고 그 전자안(電子眼)은 차가운 허공으로 나의 비행로를 따를 것이다.

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공기의 장막 위에서 더욱 더 높이 진로를 타개해나가고 있는 한 탐험가 팀의 일원이다. 나는 최후의 미개지로 올라가는 것이다. 한난계(寒暖計)가 화씨 영하 67도를 가리키는 흑한과 적막 속으로……

“집에 오실 때 빵 한 덩어리만 사가지구 오세요.”

하고 베틀이 문간에서 말한다. 나는 곧 여압복을 입고 B-29 폭격기를 개조한 모기 안에 올라탄다. 폭탄창에 X-1A를 끼고 활주로를 달린다. 핏쓰허어 풀른 대위의 승무선이 나를 6마일 정도까지 끌고 올라간다.

이것은 이 지구를 멀리 떠나서 굉장한 속도로 비행하기 위해서 3일동안 72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준비하여온 최후의 순간이다. 나는 지상에서 이미 몇 시간동안 로켓기 안에 앉아 눈을 감고 킷트를 마음속으로 더듬어 본 일이 있다.



<미국의 실험기들. 중앙 더글라스 X-3, 좌로부터 벨 X-1A, 더글라 D-558-1, 컨베어 XF-92A, 벨X-5, 더글라스 D-558-II, 노오스토크X-4>

나는 텔리케이트한 압력조절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 나는 비행기의 여압장치를 조작하기 위하여 병에 수천 파운드의 질소를 소지하고 있다. 활성이 없는 질소는 호흡할 수는 있으나 연소를 돕기 때문에 위험한 산소와 같은 그 밖의 가스 대신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컵핏트 안에 적당한 압력을 조성하도록 이 장치는 충분한 질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과열되면 X-1A와 모기를 공중에서 폭발시키고 말 과산화물도 또한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연료를 로켓 챔버 안으로 들여보내는 과열된 증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다.

플톤 대위는 그 대형폭격기를 더욱 더 높이 끌고 올라간다. 마치 사막상공을 올라가는 거대한 독수리 모양으로……고도 7,000에서 나는 X-1A의 조그마한 컵핏트 안으로 기어 내려가면 승무원은 나를 그 안에 '가두어버린다.'

로켓기 안에 갇금된 나는 외로운 생각이 든다. 그것은 마치 잠수함 속에 들어 앉은 것 같다. 폭탄창속 깊숙히 있기 때문에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컵핏트 안에는 밝은 전등이 비치고 있다. 이것은 내가 투하될 때에 눈부신 사막의 태양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의 맹목으로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투하 전 한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컵핏트를 체크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런 직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나는 혼자 빙그레 웃는다. 나는 이 직업을 사랑한다.

공군에서 테스트 파일럿 생활을 해온지 9년 동안 나는 언제나 위험과 싸우는 전투비행을 해왔다. 그것은 내가 제2차 대전 중 켄터스 P-40으로 50회의 전투 출격을 하는 동안에 조우한 위험에 조금도 못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고도 고속도 비행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투하 전 10분이다. 몇 번이나 반복한 세밀한 조절절차를 다시 한 번 외운다. 조그마한 컵핏트 안에 나지막하게 앉아서 발을 방향타 페달 위에 얹는다. 지금 조종장치는 가볍게 움직이지만 멀지 않아 리들리 중령의 비행계획에 따라서 4분간의 굉장한 고속도 비행을 하게 되면 굳어지고 말 것이다.

4분이란 얼마나 긴 시간인가?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면서 여섯 개의 타이어가

모두 핑크 난 트럭을 몰고 몹시 험한 산길을 240초 동안 굉장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X-1A로 나의 목표 고도까지 도달하자면 그 정도의 시간을 요한다. 그 곳에서 나는 호(弧)를 그린다. 마치 부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종능력한계 근처에서, 거의 초음속의 실속상태에서……

그 곳에서 나의 근육은 아프기 시작하여 조종장치를 움직이는 나의 동작은 몹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떨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각오를 하고 있다. 이거 소령은 나에게 오버콘트롤을 말라고 주의해주었던 것이다.

투하 전 5분이다. 승무원이 액체산소의 공급을 중지한다. 액체산소는 뜨거워지고 끓기 시작한다. 액체산소와 추운 바깥 공기와의 기온 차이는 300도나 된다.

나는 초록빛 투하신호 등을 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다. 너무도 순조롭게…… 비행이 실패에 돌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승무원의 긴장을 느낄 수가 있다. 플톤 대위는 나를 33,000피트까지 끌고 올라갔다.

나는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에 앞서 하듯이 손가락을 움직인다. 조종장치를 예민한 촉각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는 얇은 장갑을 끼고 있다.

투하 전 1분이다. 데이터 스위치를 켜다……! 카메라를 돌아가게 한다……

나는 긴장한다.…… 투하 5초전 …… 4초전 …… 3초전… 2초전…… 1초전…… 투하!

비행기가 폭탄창에서 이탈하는 순간 갑자기 '부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대로 멀어진다. 이제 비행기를 조작한다.……조심해야 한다.…… 플톤 대위가 나에게 준 귀중한 고도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소령이 따라오고 있다……세이버제트의 날개를 나의 컵핏트 가까이 대고……

제1 로켓 챔버의 점화 스위치를 누른다……신음하는 듯한, 가는 듯한, 불평을 말하는 듯한 굉장한 소리가 들린다.……

"제1점화!"

하고 나는 라디오에 대고 말한다.

이거 소령은 나를 살펴보며 말한다.

"보기에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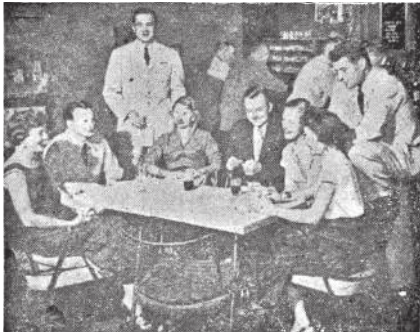
"제2점화!"

나는 또 말한다.

그리고

"제3점화!"

나는 연료로 말미암아 무겁지만 3개 로켓 챔버로 추적기에서 서서히 떠나 높



<에드워드 공군기지 장교구락부에서 잭 리들리 중령, 스튜어트 최일드 소령, 플랭크 에버레스트 중령 등 동료 테스트 파일럿들과 한 때를 즐기는 머어레이 소령(사복)과 그 부인들>

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서쪽으로 6마일 쯤 떨어진 곳에 에버레스트 중령이 또 하나의 호위하는 F-86으로 고도 45,000에서 원(圓)을 그리고 있다. 슬라이드 넷 쉬는 셋째의 세이버제트로 모하브 사막 상공에서 나를 기다린다. 지상에서는 레이더의 눈이 나를 응시한다.

동요하는 계기의 바늘이 안정됨과 더불어 나의 긴장도 완화된다. 로켓 엔진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밖을 내다볼 시간은 없다. 고도계, 속도계, 마

하메터를 주시하는데 바쁘다. 나는 아직 아음속(亞音速)으로 날고 있지만 속도는 증가되고 있다. 이거 소령은 훨씬 밑에 떨어져 있다.

고도 50,000…… 리들리 중령의 말대로 알코올과 액체산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우유 빛 섞인 흰 비행운이 뒤에 일어난다. 지상에서 보면 마치 백목으로 푸른 하늘에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한줄기의 줄을 그어놓은 것 같을 것이다.

“제4점화”

하고 나는 말한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본다. 제4 로켓 챔버의 점화는 전체의 로켓 엔진을 스톱시키는 수도 있다. 그러나 순조롭게 나가고 있고 비행기는 다시 한 번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약간 기수를 숙여 초음속으로 난다……음의 장벽을 돌파할 때 조종장치가 흔들린다…… 다시 기수를 든다…… 수톤의 연료가 소모되었음으로 비행기는 훨씬 가볍다…… 나는 마하 메터를 응시한다. 마하 1.5…… 마하 2……견지한다……나는 이제 조종능력한계 근처에 접근하고 있다.

나의 밑에는 70,000의 하늘이 가로 놓여 있다. 조종장치가 다시 진동한다. 이번에는 더욱 심하게 조종장치가 뻑뻑한 것 같다. 팔에 힘을 주어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외부의 기압은 나의 피를 끓게 할 만큼 낮다는 것을 나는 안다.

고도 80,000 - 아직도 상승한다. 여기서 연료가 다 소모되었다. 그러나 타력(惰力)은 나를 더욱 위로 상승시킨다.

바로 여기서 리들리 중령이 표시한 고도로 올라가고 있다. 역사적인 마일스톤(路程標)을 지나서…… 83,235피트에서 나는 새로운 세계고도기록을 수립한다. 1년 전인 1953년 8월 20일에 마리온 카알 해병 중령이 더글라스 D-588-II로 수립한 세계기록을 깨뜨리고……이제 나는 과거의 그 누구보다도 달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나는 중량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계기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날고 있다 - 계기는 2마일 전의 일을 표시하고 있다. 나는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급상승을 하고 있고 정신이 혼동된 감이 온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을 붙잡아 의지하고 싶다.

돌연 로켓기는 왼쪽으로 심하게 쏘리고 전후좌우로 흔들린다! 나는 겨우 조종할 수 있는 X-1A의 실속도로 조종능력 한계를 향해서 돌진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한쪽 날개가 쏘린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타에 힘을 주려고 애쓴다. 나의 조정은 정말 순간적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부드럽게 조작하려고 전력을 다하여 진땀을 흘리면서 애쓴다.

이어서 그것은 회복된다. 나는 견잡을 수 없이 사납게 초음속으로 나선급강하를 한다. 나는 위를 향한 채로 시속 1,400마일로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다!

무서운 충격파가 격렬하게 나의 로켓기를 강타함에 따라서 땅과 하늘이 빙빙 돈다. 긴 몇 초의 시간 이 흐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운석을 재로 태워버릴 수 있는 예언할 수 없는 자연력을 뚫고 나는 홀로 투쟁한다. X-1A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고 무서운 15초 동안 나는 그 히스테릭한 변덕을 억제할 길이 없다.

나는 그대로 붙잡고 늘어져서 난다. 이윽고 나는 무거운 공기 속을 근 70,000까지 떨어진다. 여기에서 점차로 시간과 공간은 다시 한 번 융합하여 나는 일찍이 아무도 도달한 일이 없는 고도를 로켓기로 비행하였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는 급히 킷트트의 주위를 둘러본다. 모든 것이 기본 나뭇 정도로 조용하다. 나는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친 공기의 흐름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속도로 날고 있었다. 하늘은 검푸르고 속 빛은 눈부시다. 나는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 평평하지 않고 공처럼 둥글게 굽어진 지구를 향해서……

나는 순조롭게 속도를 줄인다. 음속도까지……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은 큰 소리가 킷트트를 뚫고 들려온다. 나의 위치를 살펴볼 때 초음속 비행이 발생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한꺼번에 들려온다.

나는 기지에서 서쪽으로 100마일 떨어져 있다. 나는 급강하 자세를 취한다. 한편 레이더 오퍼레이터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를 호위하는 파일럿들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소리가 들린다. 나는 나와 같은 인간들이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세상에 다시 돌아왔다.

나는 8,000피트에서 급강하하면서 눈앞에 다가오는 큰 건조호상을 주시한다. 나는 속도를 줄이고 가볍게 바퀴를 땅에 대어 단단한 땅위를 2마일이나 길게 굴

러간다. 기분이 상쾌하다.

돌아와서 기쁘다. 정비사가 캐노피를 열어준다. 나는 질소가 가득 찬 컷핏트에 서 기어 나와 헬멧을 벗고 머리를 긁는다.


리들리 중령이 걸어와서 나의 등을 치면서 큰 미소를 띄운다. 그가 검은 연필로 그린 선은 달성되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비행에 대한 지루한 평이 있고 나의 하루의 일은 끝났다. 나는 매점에 들러 빵 한 덩어리를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가서는 잔디에 물을 주겠다. 오늘 밤은 애쓰지 않더라도 잠이 잘 오리라.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지(誌)에서

전등(電燈)달린 팔뚝시계(時計)
스위스에서 완성(完成)

어떤 밤중에도 편히 시각을 알 수 있는 전기조명이 달린 팔뚝시계가 스위스에서 완성되었다. 야광도료를 사용치 않고 길이 3밀리, 직경 1밀리 정도의 초소형전구로 문자반(文字盤)을 비치도록 되어 있고 시계 내부의 1.5볼트의 전지의 효력은 4, 5년을 보지할 수 있으며 이 전구(電球)는 세계 최소라고 하는바 광도(光度)는 강하며 회중(懷中)전 등의 대용이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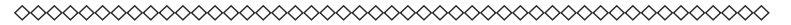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생환기(生還記)



고장(故障)난 C-119 수송기(輸送機)에서
암흑(暗黑)의 태평양해상(太平洋海上)으로 뛰어내린
비행사(飛行士)의 수기(手記)

미 공군 중위 케네스 히트니



해리 브리네가와 제어리 케이우우드와 나는 C-119 수송기의 뒷문에 몰려 서 있었다. 해리는 문을 떼어버리고 우리 세 사람은 미익(尾翼)이 두 개 달린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파라슈트로 태평양 위에 떨어질 준비를 하였다.

열려있는 문 밖에는 바람이 췌췌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나의 심장은 목 위에 까지 치밀어 올라와 있었다. 똑같은 의문이 자꾸만 나를 중얼거리게 하였다. 너는 어떻게 이 캄캄한 어둠속을 뚫고 태평양바다위에 강하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대형수송기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도중 하와이군도 동쪽에서 돌연 엔진에 고장이 일어났던 것이다. 고도 8,000피트에서 계속 고도를 잃어 지금은 겨우 해상 1,500피트의 상공을 날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파일럿 도날드 벨슨 중위는 우리 세 사람에게 뒷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와 그의 코파일럿 데이비드 N 허바아프 중위는 아직도 컷핏트 안에 있다. 우리가 뛰어 내리는 즉시로 그들도 역시 컷핏트 안에 있는 탈출구를 열고 뛰어 내릴 것이다.

나는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브리네가를 쳐다보았다.

그는 안심을 시키려는 듯이 빙그레 웃어 보였으나 그의 얼굴은 창백하였다. 케이우우드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은 의심할 여지없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벨슨은 비행기 왼쪽에 있는 제1엔진을 동결(凍結)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 프로펠러는 회전을 멈추고 한쪽 엔진만으로 호놀룰루에 있는 Hickam 공군기지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벨슨은 경종을 울리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는 브리네가에게 말하였다.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여전히 열린 문 밖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

었다.

경종은 C-119의 뒷문에 달려 있다. 파일럿이 킥핏트 안에서 단추를 누르면 그 벨은 울린다. 보통 때 같으면 그 신호는 대기 중의 낙산병들에게 비행기가 예정된 고도와 지점 상공에 도달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브리네가와 케이우우드와 나는 이미 문 옆에서 5분이라는 지리하고도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계속해서 생각하였다. 벨슨이 그놈의 엔진을 열어 붙인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된다. 암흑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상상할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생전 파라슈트로 뛰어내려 본적이 없는 것이다.

그 순간에 경종은 울렸다.

브리네가와 나는 7인용 구명뗏목을 문 밖으로 떠밀고, 나는 뛰어내려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드는 듯한 태평양의 파도위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 사크라멘토 근처에 있는 맥클레란 공군기지를 출발하였을 때 갈아서는 우리 비행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미 공군 제1708항공기운반비행단 제1파견대에 소속하고 있는 항법사이며 파견대장 하워드 L 보오 소령 밑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비행단은 몇 개의 대대와 파견대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맥클레란에 있는 우리파견대는 극동에 있는 공군기지에 항공기를 운반하는 승무원으로서 항법사와 통신사를 차출하고 있다. 운반을 마치면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동일한 임무에 대비하는 것이다.

벨슨 중위와 히바아드 중위와 그리고 브리네가 2등 중사는 텍사스 주 마마릴로에 있는 제1739항공기운반대대로부터 그 C-119를 맥클레란까지 비행하여 왔다. 맥클레란에 배속되어 있는 케이우우드와 나는 그들이 1955년 11월 8일 이른 오후에 도착하였을 때 처음 만났다.

그 이튿날 아침 우리 다섯 사람은 찰스 쉬퍼어디커 대위와 도널드 모스 대위의 브리핑을 들었다. 급발에 운동가처럼 훌륭한 체격을 한 파일럿 벨슨 중위는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서류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필요한 예방주사들 맞았다는 것과 C-119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도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비행기는 우리의 목적지인 일본에 병균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브리핑이 끝난 후 나는 파라슈트와 고무로 만든 1인용 구명뗏목과 구명대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또한 차가운 물속에 떨어질 때 큰 도움이 되는 고무복(服)도

집어 들었다.

벨슨과 나는 또한 기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였다. 기상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일기는 청명하리라는 예보였다.

정오 조금 후에 우리 다섯 사람은 C-119에 올라탔다. 벨슨과 그의 코 파일럿 히바아드는 조종간 앞에 앉았다. 나는 벽을 맞대고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우리 비행기는 맥클레란의 활주로를 달려 곧 공중에 뿔었다. 30분마다 내가 우리의 위치를 기록해서 그 종잇조각을 케이우우드에게 주면 그는 본기지로 연락을 하는 것이었다. 이전에 한 번 케이우우드와 나는 필리핀까지 함께 비행한 일이 있었다.

태평양의 중간 즉 미국과 하와이 사이에는 해상에 고정되어 있는 선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행기에 대한 라디오 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파일럿들은 그 상공에 오면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이 선박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비행사들은 그것이 바로 밑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의 C-119가 그 선박상공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선박을 볼 수 없었으나 나는 레이더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비행기의 두 엔진은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부드러운 흰 구름을 뚫고 나갔다.

나는 계기를 점검하는데 꽤 바빴다. 계기의 수는 상당히 많다. 나는 장거리항법을 위한 로오란(장거리 맹목(盲目)비행장치) 비행기의 바람에 대한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편류계, 별(성(星))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한 육분의(六分儀), 비행기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천체나침의(天體羅針儀), 고도계, 속도계 등을 사용한다.

몇 시간이 지나갔을 때 태양은 멀리 서쪽으로 지기 시작하였다. 간혹 구름에 가려진 일은 있었으나 햇빛은 대부분의 비행 중 우리를 비춰주고 있었다. “엔진이 좀 이상하다.”고 벨슨 중위가 말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나는 왼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하였으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바빴기 때문이다.

“각자 구명장구를 입으라.” 벨슨이 명령하였다.

우리 네 사람은 비행기의 뒤로 가서 구명대와 파라슈트를 메었다. 1인용 구명뗏목은 파라슈트에 매달려 있다.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 비행기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우리는 호놀룰루 동쪽 약 800마일 밖에 있었다.

나는 종잇조각을 케이우우드에게 주었고 그는 라디오로 본기지에 우리의 위

치를 보고하였다.

나는 아직도 별로 적정하지 않고 있었다. 벨슨은 엔진을 동결시키고 그로부터의 연료를 차단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프로펠러는 결국 회전이 중지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비행기에 미치는 항력이 제거되어 운만 좋으면 한쪽 엔진만으로 호놀룰루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운이 없었다. 나는 눈앞에 있는 고도계를 보았다. 우리 비행기는 매분 300피트의 비율로 점차로 하늘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다지 급격한 강하가 아니다.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서 강하할 때의 그 정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태평양 상공에 떠있는 것이다.

만일 벨슨이 엔진을 동결시킬 수만 있다면 고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기가 더욱 농후하고 주익(主翼)에는 더욱 많은 공기가 흐르게 되어 그 위에 진공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벨슨은 곧 이와 같은 나의 희망을 깨뜨리고 말았다.

“우리는 비행기를 포기해야겠네.”하고 그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고도 2,000피트 상공에 내려와 있었다.

“자네들 세 사람은 뒤로 가서 경종의 신호를 기다리게.”하고 벨슨은 말하였다. 케이우우드와 브리네가와 나는 급히 뒤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경종이 울리자 우리는 뛰어 내렸다. 나는 이미 나의 구명대의 한쪽을 부풀렸다.

나는 생전에 한 번도 파라슈트로 뛰어 내려 본 적이 없었으나 지금 나는 공중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곧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겼다.

파라슈트가 열렸다. 굉장한 힘이 전신을 갑자기 위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고 어깨의 관절이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다.

“어이!”하고 나는 소리쳤다. 나는 브리네가와 케이우우드가 나의 옆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뒤에서 소리쳤으며 나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묵(墨)을 푼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의 세계이다. 심지어는 나의 손도 안 보인다. 오래지않아 물위에 떨어지겠지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갑자기 바다는 바로 내 밑에 있었다. 흰 파도가 나의 발을 할퀴려는 듯이 뛰어 올랐다.

나는 물에 철석 떨어져 그 속에 빠져 들어갔다.

태평양의 물이 한꺼번에 나의 폐(肺)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물위로 다시 떠올라 왔을 때 파라슈트의 캐노피는 바람에 불려 나를 얼굴도

못 들게 과장한 힘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였다.

나는 큰 실수를 하였던 것이다. 나는 파라슈트를 떼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여야 했을 일이다. 이제 바람이 나에게 덤벼들고 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뒤쳤다. 됐다, 이제는 등을 아래로 하고 해상에서 끌려가고 있다. 몇 톤이나 되는 파도에 부딪칠 때 이외에는 숨을 쉴 수가 있다.

곧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가까이 있는 파라슈트의 줄을 확 잡아 당겨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파라슈트를 움츠러들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파라슈트는 여전히 부풀어져 있다.

파도는 더욱 나의 얼굴위에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일부의 파도가 파라슈트의 캐노피 위에 부딪쳐 그 안에 든 공기를 빼어버렸다. 파라슈트는 물위에 찌그러졌고 나는 급히 다리와 허리에서 혁대를 풀었다.

나는 고무로 만든 구명뗏목을 떼어내어 실신더 장치로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5피트의 길이를 가진 이 고무뗏목이 부풀어 오르자 나는 그 안에 기어 올라갔다.

바닷물은 따스했다. 그러나 일단 물에서 기어 나와 바람을 맞으니 온몸이 오싹 추워졌다. 나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파라슈트와 적어도 10분간은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열 시간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뗏목 안에서 캔바스의 덮개로 몸을 썼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고 영원히 나는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입술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았으며 나는 햇바닥으로 피를 핏아서 빨았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바람 때문에 한쪽 손이 입을 때린 것 같다. 이빨이 세 개 흔들거렸다.

나는 딴 사람들도 무사히 물위에 떨어졌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있는 것일까? “어이!”하고 나는 소리쳤다. 아무런 대답도 없다. 오직 썹썹거리 는 바람소리와 부딪치는 파도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후에 나는 브리네가가 물위에 떨어질 때 그의 고무뗏목을 잃어버려서 구명대만으로 떠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친구에게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안경을 벗었었는데 물위에 떨어진 후에 다시 안경을 썼던 것이다. 그의 안경은 뛰어내릴 때 부서지지 않았다.

그러나 케이우우드는 운이 나빴다. 그는 물속으로 멀리 파라슈트에 끌려가 익사하고 만 것이 분명하였다.

넬슨 중위와 히바아드 중위는 킷핏트 안에 있는 탈출구로 비행기를 빠져나왔다. 히바아드는 잘 파라슈트를 벗고 고무뗏목에 올라탔다. 그러나 넬슨은 물위에 떨어져 파라슈트의 다리 혁대를 풀려 했을 때 그중의 하나가 미끄러져 내려가 구두위에 걸렸다. 파라슈트는 물위에서 그 파일럿을 끌고 갔다. 그는 무척 애를 썼으나 구두위에 걸린 그 혁대에 손을 뻗칠 수가 없었다.

그때 다행히도 큰 파도가 구두에 부딪쳐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는 미친 듯이 날뛰는 캐노피를 처치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 통에 심한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한편 나의 고무뗏목은 높이 15피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흔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파도가 내 위에 떨어지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물은 나의 배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토하였다. 적어도 열두 번은 토했을 것이며 나는 점차로 기진맥진해졌다.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 나는 몰랐다. 파도는 나의 조그마한 고무뗏목을 사정없이 후려 갈겨 뗏목은 마치 팽이처럼 뱅뱅 돌았다.

몇 시간이 흘러갔으나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른다. 마침내 뗏목이 큰 파(波)에 부딪쳐 나는 다시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바닷물은 바람보다 따스했다.

나는 뗏목을 움켜쥐고 그 안에 올라 타 칸바스로 몸을 썼다. 나는 그냥 그대로 물속에 있을 걸 그랬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 나는 다시 파도에 부딪쳐 물속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고무뗏목에 기어 올라갔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고 정말 기진맥진하였다. 만일 다시 한 번 파도에 부딪쳐 물속에 빠진다면 그대로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상어가 있진 없진.

머리위에서 비행기의 폭음이 들려왔다. 어둠속 어느 곳에 비행기가 떠있는 것이다.

나는 옷 호주머니를 뒤져 플래시 라이트를 꺼냈다. 버튼을 눌러 하늘을 향해서 라이트를 비쳤다. 나는 크게 원을 그리며 플래시 라이트를 흔들었다.

라이트는 그다지 강하지 못하여서 나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라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의심이었다.

공군구조기의 착륙등이 비쳤다. 나는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 비행기는 계속해서 나의 머리 위를 뱅뱅 돌았다. 당시 나는 모르고 있었으

나 우리의 C-119가 1,500 피트로 떨어졌을 때 해군 수상기의 부속선 한 척이 우리에게서 약 84마일 밖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 선박은 이미 우리의 조난신호로 경계 중에 있던 다른 선박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다.

갑자기 강력한 라이트가 바로 해상에 떠있는 나의 얼굴을 비쳤다. 그것은 그 부속선의 서치라이트였다.

그 배와 나는 서로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

내가 그 배를 향해서 가려고 허덕이고 있을 때 큰 파도가 나를 선미와 프로펠러 쪽으로 밀어 넣었다. 큰일 났구나, 구조되기 직전에 죽고 말겠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의 머리위에서는 수병들이 로프로 잡아매어 놓은 구명장구를 풀어 내렸다. 그러나 나는 그에 닿을 수가 없었다. 기진맥진해서 뗏목을 저어 선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시시각각으로 나는 회전하는 프로펠러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의 고무뗏목이 나에게서 벗어져나가며 거대한 프로펠러의 입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순간에 나의 전신은 갈기갈기 찢어질 차례다.

그때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물거품이 멈추었다. 위기일발에 동력을 끊은 것이다.

“거기 있으라.”고 한 수병이 외치면서 나를 향해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한쪽 팔로 나를 움켜쥐고 배를 향해서 헤엄쳐갔다.

배에 타고 있던 군의관이 나를 진찰하였고 이어서 나는 굉장한 양의 블랙커피를 들이켰다. 한 시간 후에 브리네가가 발견되었다. 그는 플래시 라이트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도 배위에 올라왔다.

아침에 태양이 바닷물을 붉은 색깔로 물들일 무렵, 구조대원들은 넬슨 중위와 히바아드 중위를 발견하였다. 넬슨은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상어 떼가 덤벼들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바아드는 그의 플래시 라이트를 잃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는 만일 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배를 향해서 구두를 내던질 작정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케이우우드만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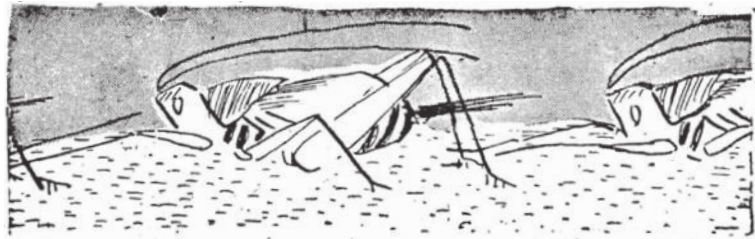
시(詩)

귀뚜라미

이설주(李雪舟)

성(城)같이 쌓인
창고(倉庫)들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목이 말라도
목이 말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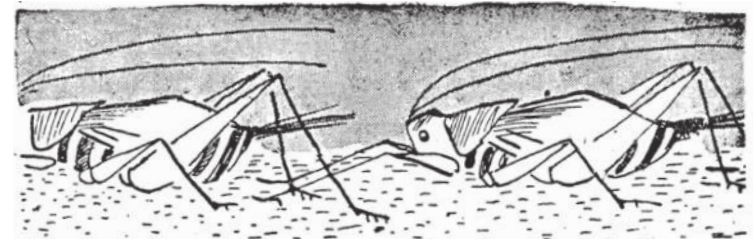


대리석 주초(柱礎) 밑엔
숨이 막혀
울지 않는다.
낙엽(落葉)이
아사(餓死)한 냇이나
썩은 거미 줄

서족(鼠族)도
치량한 부역
헐어진 벽(壁) 틈

그런데서
울음도 보람인양
자지 않는다.

195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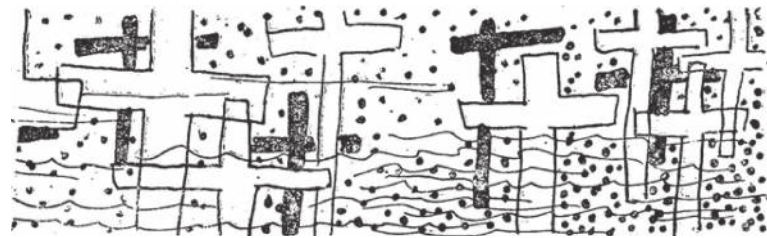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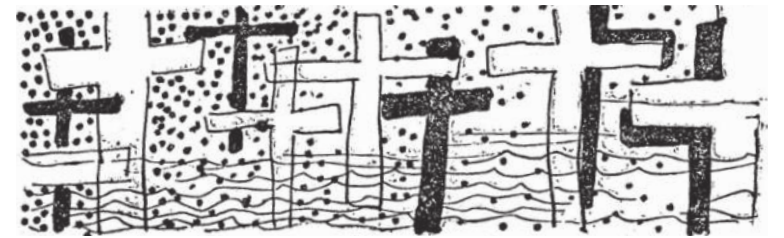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朴斗鎭)

무엇이 여기서는 일어나야 하는가. 오전 아홉 시의 갈보리는 여전 하고나. 하늘도 해도 있고 여전 하고나. 웅성은 사람 속, 지고 오른 나무 틀엔 피와 땀의 기름, 하늘아래 번들거려 고웁기도 하고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내가 쓰는 면류관은 가시로 짜 엮은 것, 무지개처럼 이제야 돌려 피는 원광(圓光)을 보라. 쩡……쩡……쩡, 내려치는 망치소리 못소리 망치소리, 하늘가로 번져가며 아름답고나. 진달래를 익이듯 네 군데의 못자국은 네 군데의 꽃 익임, 훔날리는 난만한



꽃 깃발을 보라. 솟쳐나는 고은 피는 영겁(永劫)의 장강(長江) 먼 하늘 은하(銀河)에도 피의 강(江)이 선다. 푹푹 방울마다 지축이 울고 푹 푹 푹 땅을 적셔 피가 흐르면 아으 나는 목 말러라. 목 말러라. 목 말러라. 목 말러라. 해용(海絨)에 적신 초는 너무 달고나. 하들이어. 아우성은 높아가고 여인들은 우는데, 하들이어. 무엇이 여기서는 일어나야 하는가. 갈보리의 한낮이 캄캄해진다. 캄캄한 어둠이 먹비로 돼 쏟아진다. 저 바람소리…… 해일소리…… 죽음소리……어둠소리……엘리…… 일리…… 엠리…… 엘리…… 저 또 땅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트는 소리…… 아으 나는 이제야 다시 한 번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게 하라. 진달래꽃 짓이기듯 이겨진 가슴 피와 살로 너희들을 싸안게 하라. 이제야 나는 이기게 하라. 죽음을 원수를 어둠을 밤을 하늘 마다 쏟아지는 죽지 않는 빛 가슴마다 솟아나는 죽지 않는 빛 평 평 평 꽃빛발이 쏟아지게 하라.



시(詩)

파이프 20

김종문(金宗文)

나는 성북동(城北洞) 골짜기와 삼각지(三角地) 사이를 일 년 열두 달을 하루같이 연기를 휘날리며 통근하고 있다.

별거숭이의 프라타나스의 가로(街路)를 타고
서커스의 줄타기처럼 수 없는 사람들 사이를

서울역전(驛前)을 스쳐가고 올 때마다
대합실과 광장엔 어디서 밀려들었나.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봄을 기다리는 가로수처럼

항시



나의 호흡이 연기를 한 꺼풀씩 내뿜는 생태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을
어딘가
나를 기다리게 하는 계절을
나의 마음 가까이 받아드리기 위해서
나의 보얀 사념(思念)의 베일을 한 꺼풀씩 벗겨버리는 것일 게다.

그러나

나의 연기는 영원과 같은 시공(時空)속으로 흩어지는 아뉴이와 니힐

언젠가 내게로 와야 할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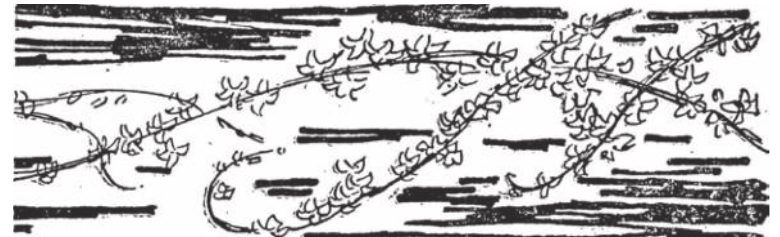
성장(盛裝)을 갖추고 다가오는 봄 저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게다

나 일찍이

장미의 뿌리로 태어나 파이프라고 명명되어

도시의 길을 거닌 것도





해변가와 산속을 해매인 것도
 뭔가 기다리며 살아야하는 여정이었을 게다.
 나 원래의 지열(地熱)을 풍기며

어떤 날엔
 구름을 노래해본 것도
 구름위로 솟은 마천루(摩天樓)위에서 하염없이 앉아있던 것도
 보다 높은 자리에서
 뭔가 맞이하려던 방식이었을 게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기다리던 것은
 나의 오각(五覺)을 노크하는 기관구(機關區)의 함머소리
 언제부턴가 나의 곁에 와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곁을 스쳐 오고가며
 나를 감싸고돌고 싶는지도 모른다.
 내 자신이 휘어잡을 수 없는 신비와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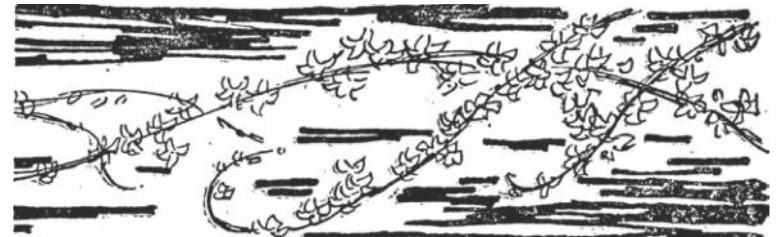


나의 호흡이 내뿜는 연기와도 같이

역사는
 뭔가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싣고 왔지만
 현대라는 이름의 '역(驛)'에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이미 왔어도 찾아낼 수 없는 사람 사이에
 깊은 연막이 가로 놓였고
 그 너머 들려오는 기적(汽笛)소리
 그것은 사람이 만든 기적소리였지만
 연기에 거슬린 비명(悲鳴)이었다.

나는 이와 같이
 서울역을 중심(重心)으로 한 성북동 골짜기와 삼각지 사이는 균형을 잃은 천평평
 (千平秤)

일 년 열두 달을 하루같이
 나의 연기를 휘날리며 통근하고 있다.





군인(軍人)과 사회(社會)

변시민(邊時敏)

전쟁 있는 곳에 반드시 군인이 있는 것은 체언(贅言)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사회학자는 역사시대에 일어난 전쟁의 빈도와 연수(年數)를 조사하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인류역사의 과반 이상이 전쟁이었다고 결론지은 일이 있다. 물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인류사회에는 전쟁이 많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사회가 원시 내지 미개의 단계에 소급(溯及)⁴⁾하면 소급할수록 전쟁 내지 투쟁이 경미 또한 소규모의 것이었으나 사회가 근대화할수록 전쟁은 더욱 가혹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다.

인류사회가 군족(群族), 씨족(氏族), 부족(部族)의 단계를 거쳐 민족사회에 이르며 따라 전쟁은 광범위해지고 가열해 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사회에 있어서의 군인의 필요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사회가 협소 미개의 단계에서 점차 광대한 민족, 국민사회로 확대함에 따라 자위공격(自衛攻擊), 용병(傭兵), 직업군인, 국민개병(國民皆兵)의 단계를 밟게 된 것이다. 물론 현대는 최후의 단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한편 전쟁 발생의 과정에서 본다면 약탈과 방어, 이민족에 대한 몰(沒)이해, 이해충돌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생각된다. 현대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상적 대립에 점차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에 있어서의 군인의 존재의의는 중차대(重且大)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현금(現今)과 같은 전시(戰時) 혹은 준전시(準戰時)에 있어서 군인이 사회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몇 가지 점에 언급하려 한다.

우선 군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존립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 혹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시 하에 있어서의 군인의 직무 혹은 기능은 사회의 존립발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사회의 성쇠(盛衰)를 결정하는 것이 즉 군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전쟁하는 사

4) 원문의 溯及은 溯及의 오기임.

회에 있어서는 군인은 사회의 존경을 받고 군인의 사회적 세력은 강해지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전쟁에 직접 관계없는 자의 사회적 지위는 저하되고 경시,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미개사회는 일반적으로 평화롭기 때문에 부녀, 어린이, 노인 등의 지위가 높는데 반하여 전쟁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부녀, 연소자, 노인의 존재가 무시되어 왔다. 또 평화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도 꺾어졌다. 이와 같이 전시 혹은 준전시 하에 있어서는 군인의 지위가 향상되므로 군인의 사회에 대한 발언권이 강해진다. 그리하여 군인은 세력 있는 자로써 행세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군인으로서 특히 주의할 것은 자기의 세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일반인을 무시하여 방약무인(傍若無人)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다. 과거의 전란 난세의 시대에는 인지(人智)가 미발달하여 군인의 본래의 사명을 일탈(逸脫)하여 전횡 혹은 우열한 행위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으나 그것이 통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쟁이 단지 군인 대(對) 군인의 싸움이 아니고 민족과 민족 혹은 국민과 국민과의 싸움으로 변천한 시기에 있어서는 군인은 국민 전체와의 통합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인이 자기의 세력이 강하다고 하여 일반사회인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네들의 의사를 저해 억압하는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회일반으로부터의 불평불만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불리해지고 승리는커녕 민족, 국가를 일대 위기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항상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군인과 국민 일반과의 차별(差別) 거리(距離) 의욕(意慾)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이 근대화하기 때문에 일선과 후방과의 차이가 없어졌고, 국민전체의 총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다. 군인과 국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전쟁으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군인은 자기의 입장 내지 지위에 대해서 자각하고 국민의 지표가 되어 존경애호의 대상이 되도록 항상 유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다음 유의할 것은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은 항상 전력을 양양할 처지에 있으므로 승리를 위한 힘의 양진(昂進)은 정신면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새로운 가치가 즉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극히 그를 전투력 고양(高揚)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그러한 인소(因素)로서 적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적개심 내지 적에 대한 증오심은 전투력을 양양시키는 인소가 된다. 그런데 증오심은 반가치적인 것, 즉 환연한다면 적에 있어서의 악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적에의 증오심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적보다 자기가 가치 높은 존재라고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자기를 위협하는 적의 증오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의 악을 발견하고 자기의 선을 자각하는 것은 중요성을 앙양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자기의 정상화(正常化)가 성립하여 악에 대한 선의 투쟁으로서 적에 대치하는 관계상, 전쟁이 장기화 하면 할수록 적에 대한 악과 자기에 있어서의 선을 발견하는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민족, 국가의 존립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당연한 처사라 하겠으나 그의 결과로서 적의 증오와 자기 찬미를 상승 강화하여 냉정한 객관적 태도를 상실하게 된다. 즉 환언한다면 적을 냉정히 또한 정당하게 관찰 혹은 평가하는 태도를 잃고,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힘조차 잃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의 일을 무조건 정당시하고 적을 무조건 앞잡게 된다. 그리하여 객관성을 잃은 무모한 언론과 행동이 사회내부에 성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전쟁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오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그러한 태도는 제3자의 반감을 사서 적의(敵意)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즉 흥분열광에 넘쳐 제3자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무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냉정한 태도를 잊지 말고 적을 알고 자기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자국민과 제3국인의 시인과 동정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전쟁은 민족 혹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전쟁이 목적적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되는 것이 즉 전쟁이므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과하는 비건설적인 희생과 전쟁의 의의를 항상 비교 검토하는 태도가 군인에 필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호전적인 민족이 언제나 멸망하고야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전쟁을 위한 전쟁, 정복을 위한 정복은 극히 무가치적인 것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쟁은 민족 혹은 국민이 다 같이 협력 결속하여 외적(外敵)으로부터 자기 민족 혹은 자기 국민을 방위하려는 공속(共屬)의식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내부의 분쟁상극이 격화하여 사회내부의 통일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사회내부의 대립투쟁으로 막대한 국민 세력이 소비되어 전쟁에 불리함은 당연한 일이다. 군대도 사회집단의 하나이기는 하나 전쟁에 있어서는 사회집단내부가 일치단결하여, 대립반목으로 소비되는 힘을 절약하여 그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전쟁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내부 일체의 힘을 외적과의 투쟁에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지 사회집단 내부를 명령계통—적으로 체통을 세우고 상부명령에 사회성원 전원이 일사불란(一絲不亂) 그 명령에 복종하여 내부의 힘이 임기응변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명

령계통적으로 체통을 세운다는 것은 명령자 상호간에 대립이 있어서 명령이 분열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내부질서는 문란해져서 전체의 단결력은 약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명령계통이 단일화 되어야 한다. 극단의 경우를 말한다면 모든 명령이 최고 유일자에 발원(發源)할 때 모든 명령 사이에 모순충돌이 생기지 않고 사회내부는 통일되어 전쟁에 유리해진다. 그러므로 군대의 군기는 엄정하여야 하며 군인은 상부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전시 하에 있어서는 '내부결속의 원리'가 사회내부에 지배하여 사회성원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복종하여 야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생활이 억압 내지 압박되는 일이 많아진다. 만약에 그를 거부하여 각 개인의 자유를 보지하려 하면 적어도 그 개인은 그 교회로부터 이탈하지 않고서는 그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에 걸쳐 지속하는 날에는 내부 결속의 원리는 점차 강화되어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간섭하게 된다. 예컨대 사적인 가정생활 혹은 개인의 생명재산에 이르기까지 간섭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는 극도로 침해된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세력은 강대해지고 그에 반하여 일반시민은 전투원을 원조 보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필요한 일체의 것이 동원되어 개인적 욕망은 일체 중지 내지 포기되고 만다. 그러므로 전시 하에 있어서는 국민은 모두 일치단결하여 군에 적극 협력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패배하는 날에는 자기가 존립하고 있는 기반인 국가, 민족을 적에게 양도하게 되어 자기 자신의 존립발전이 저해됨을 생각할 때 여하한 노력과 여하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전승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내부를 문란케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통제가 절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 통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지나친 통제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군인은 국민에 대해서 지나친 통제를 삼가야 하며 통제는 관용을 병용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환심을 얻도록 군인으로서 노력하여야만 국민일치 곤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사회 혹은 장기에 걸쳐 지속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전쟁에 적합한 국민행동의 가치척도가 자연히 성립하게 된다. 또한 그 가치척도에 의해서 국민전체가 규제되는 것이다. 환언한다면 전쟁이 지속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동, 행위가 국민에게 요구되는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회를 멸망으로부터 방위하고 한걸음 더 나가서 그 사회에 전승을 가져오는 행위를 그 사회에 변명을 가져오는 행위만이 사회의 칭찬, 존경,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이다.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함이 최고의 영광이며 군인으로서의 승리에는 요소를 구유(具有)하여야 하며 그를 결핍한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특히 군인은 평시, 전사를 막론하고 항상 승리에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를 평소로부터 함양하여 유사시에는 그를 최고도로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승리에 필요한 최고위의 정신적 덕(德)은 무엇인가?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용감, 침용(沈勇), 과감, 강의를 덕이다. 이러한 덕을 결핍한 군인은 여하(如何)히 지식이 있고 호인이라 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충분치 못한 것이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에서는 용맹이 국민 최고의 덕이었으며, 로마에 있어서는 용맹, 애국이 최고의 가치였다. 또한 거기에서는 전쟁에 용기 없는 자는 가치 없는 자로서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또 구주(歐洲) 중세의 전란(戰亂) 시(時)를 보아도 기사(騎士)들의 최고의 덕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분명한 바와 같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마당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용기 없는 자가 어찌 잘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인은 항상 용기 있는 자라야 하며 평소 그러한 요소를 함양하는데 전심하여야 함은 체언(贅言)을 요하지 않으나 용기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 자신, 소박, 검소한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 철저한 군인은 전투에 자신이 생기고, 용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군인은 그러한 정신적 요소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의 존경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전쟁은 집단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투쟁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의 구분 혹은 분석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경우 제(議)사회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명백한 공통 특질을 기준으로 삼아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피부의 색, 의복, 언어 기타 그러한 표준은 많으나 당면의 적과 같은 특질을 가진 자를 전부 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공통된 특질이 과연 적성을 띠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가 하면 38선을 앞두고 또 한 사상적 대립이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동족 간에 있어서의 적부 판단이 표면상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비합리적인 식별 판단은 일소되어야 하고 또 전투원과 비전투원과의 식별에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적을 놓치고 그와 반대로 양민을 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특히 일선에서 적과 교전하는 군인들은 그러한 식별 판단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전쟁 같은 집단적인 투쟁에 있어서는 반적으로 전투가 가열해지면 일체의 개인적인 것이 부정되어 단체에 귀일하기 쉽고, 따라서 생명 인격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쟁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순국순

사(殉國殉死)가 최고의 덕으로 간주되고, 또 그러한 덕을 양성하는 제2차인 덕으로서 혹은 개인적인 것을 경시하는 나머지 검소, 간소, 염결(廉潔) 등의 덕이 군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또 상관과 하위자사 서로 일심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히 군인에 있어서는 상관에 대한 하위자의 복종이 강조됨과 동시에 하위자에 대한 상관의 은혜가 강조된다. 그러한 관계상 군인에 있어서는 신의, 충절, 은혜의 덕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이미 말한바와 같이 군인이 자기의 사유물 혹은 자기의 생명을 경시하는 나머지 타인의 생명재산까지도 경시해버리는 경우가 과거 역사에는 많았다. 예컨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평연(平然)하게 가옥을 소각하고, 재산을 박탈하는 등 혹은 잔인, 무자비한 흉포(凶暴)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로마에 있어서는 포로 사형을 일반에 공개하여 일반시민들은 그를 즐겼다는 말이 있고, 또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피의 복수가 용인되었고 또한 일반민의 의무 가운데 큰 의무의 하나이었다. 물론 군인은 자기생명을 아껴서는 훌륭한 군인이 될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그것까지 경시한다는 것은 좋지 못함은 당연하다. 자기의 생명재산은 경시하나 남의 그것은 존중해줄 수 있는 아량이 군인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약간 언급하였으나 전투에 직접 관계없는 것은 경시되기 쉽다. 즉 로마에 성어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예가 천시되었고 스파르타에 있어서는 지식을 구하는 소위 철학자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학문, 예술에 탁월한 자가 스파르타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 구주 중세에 있어서도 역시 스파르타에 유사한 상태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일도 주의하여야 하겠다. 현대에 있어서는 일견(一見) 전쟁에 직접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는 중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그러한 사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총력전이라 하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국민전체의 생활영역 내지 활동영역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쟁에 관계없는 것이 없다 시피 되어 있으므로 군인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친 연관성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筆者) 문리대교수(文理大教授))

셰익스피어 진부론(眞否論)

버젠 에반스 작(作)

이윤희(李允熙) 역(譯)



셰익스피어는 과연 셰익스피어이었던가? 셰익스피어 - 베이컨 동인론(同人論)이 이 논설에 의하여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아마도, 여기에서 석연히 논파(論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을 문제일 것이다.

보통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⁵⁾ 태생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희곡을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설은 지금에 있어서 일생을 두고 읽어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달한다. 여섯 나라 말로서 4천권 이상의 단행본과 논설이 (고 조세프 에스 개란드 교수의 서지에 의함) 그 임직한 17명의 작가를 내걸고서 그 주장을 옹호 또는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썰티니 리뷰지」는 근래에 제의된 이 여러 작가에 대한 격렬한 찬부 양론의 많은 서한을 출판하였다. 그들 중에서, 만약 셰익스피어를 제외한다면, 베이컨과 일약 옥스퍼드에서 나타나 지보(地步)를 획득한 17세기의 에드워드 베일 백작이 으뜸자리에 서게 된다. 그 바로 뒤에는 러트랜드 백작과 터비 백작이 따라오고, 그 다음 에드워드 다이어 경, 로버트 버튼, 월터 로리 경, 크리스토퍼 마로우들에 와서 지지자가 흩어져 남녀동권주의자들의 찬동의 많은 앤스 하사웨이가 말서(末序)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 국가들은 서로 그 나라의 영웅을 다투어 과시하려는 것이 상정이라 독일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희곡의 작가는 실에 있어 독일 사람이라 주장해왔고, 또 소련 사람은 그가 틀림없이 슬라브 사람이라 지금도 단정하고 있는 터이다.

작가문제를 내걸고 여러 지지자들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이치에 맞도록 꾸며 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교육도 받지 않은 시골뜨기가 어떻게 그 희곡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광범한 지식을 그처럼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모두 어떤 무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의문은 희곡작가를 찬양하는 자들이 그들 우상을 전지전능하다고 생각 하는 신경질적인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셰익스피어는 '이 세상의 모든 것

5) Stratford-upon-Avon

모든 상관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슈레겔의 말과 같이) 이런 주장은 벤 존슨⁶⁾ (1572-1637 영국의 희곡작가 및 시인) 이래 즉 고명한 비평가들에 의하여 단연 거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치기 학자들에게는 무조건 마음에 드는 주장으로 여겨져 온 것 같다. 그리고 이 가정을 입증하려고 여러 논쟁가들이 스트랫퍼드 사람은 아주 일자무식꾼이고 그가 사는 도시는 도그팻치의 교외에서 저속한 천치의 한 구름이 언제나 영문 모를 소리를 씨부렁대며 흙진탕 뒷골목을 터덕터덕 왕래하는 것 같은 몽매한 곳으로 나타내려고 애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16세기의 스트랫퍼드는 아담하고 개화된 곳이었다. 아마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한 존 셰익스피어가 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쓰레기를 거리에 산란(散亂)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 쓰레기를 버리면 그 집안 가장이 벌금을 물었다는 그 사실인 것이다. - 이것은 시민의 한 프라이드로서 20세기 시카고 시민의 프라이드보다 저으기 앞서고 있는 한 증거라 보겠다. 이 도시는 공립중학교와 훌륭한 교회 및 기타 여러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현재 미국에 있어서 크기가 같은 거개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보다 건실한 것들이었고 아마도 문화면에 있어서는 더 자족적이었을지 모른다. 모든 지식활동은 아직 수도에 흡수되어 있지 않았고 문화는 불안정한 그림자나 한 몽치의 평범사(平凡事)처럼 한 장소에서 대량생산되어 시골로 전파해 나가지는 않았다.

작자자신에 대한 이력을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확실히 희곡을 썼다고 해서 그가 학식이 있었음을 증거대야 한다는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링컨은 실제로 있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지 마는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두 번째 대통령취임사는 도저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만약 셰익스피어가 조금이라도 무식한 시골뜨기였다면 그를 내려쬐는 사람들은 그가 무식쟁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며 그를 진정한 작가로서 조금이라도 전면에 내세울 리가 없다. 이러한 맹목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간 한 편목적인 태두(泰斗)인 제이 토마스 루니⁷⁾도 이 함정을 인정하고서 무작정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셰익스피어가 낮은 혈통과 천한 재간의 소지자며 격하된다 하더라도 - 루니 씨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6) Ben Jonson

7) J. Thomas Looney

정도 하천(下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옥스퍼드 향(鄕)의 보조관이며 적어도 존경할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명기(銘記)케하고 터무니 없는 모함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켰던 것이다.

이 커다란 셰익스피어 '신비'로 말하자면 요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베이컨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대치자보다도 셰익스피어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셰익스피어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시민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것이라고 하는 희곡은 그에 의해서 30년 동안에 걸쳐 발행되었고, 그들 저작권은 결코 침해된 일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의 20명이 넘는 문인들은 여러 경우에 그에 관해서 이야기 했고 칭찬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천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생애에서 우리가 모르는 기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와 대치하려는 거의 모든 사람 생애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간은 있는 것이며 셰익스피어의 사회적 지위와 대치하려는 다른 자와의 사회적 지위와 차이를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에 대하여 것처럼 많이 안다는 것을 우리는 요행(僥倖)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도전자 중 문학의 시간적 양적 견지에서, 그리고 지지자의 평판, 수효 및 질에서 볼 때 제1인자는 프랜시스 베이컨⁸⁾이다. 베이컨을 내세운 것은 1785년이며 그 근본 논점은 희곡작가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과 베이컨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정은 모두 진실성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틀린 곳이 많은 것이다. 보헤미아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베로나에서 배를 타고 밀라노로 가는 것이라든지 콜셋트를 입은 크레오파트라 여왕이 당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헤크터(호머의 시 일리아드 중의 용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햄릿을 인용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라든지, 고대 로마 시대에 시계가 있고, 또 존 왕(1167?-1212 영국의 왕) 시대에 대포가 있는 것이라든지 에드가(943?-975 영국의 왕)는 프리로만 리어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베드렘(런던에 있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 전에는 수도원이었으나 1400년경 병원으

8) Francis Bacon

로 사용)을 잘 알고 있었던 거라든지, 전 '골' 민족이 아직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불란서의 왕이 있었다 하는 따위의 오진(誤診)을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진을 열거한다면 그것은 여러 페이지를 차지할 것이다. 30년 전에 많은 권위자들이 '셰익스피어의 영국'이란 제목의 좌담회에서 그 작품들을 결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거기에서 셰익스피어의 여러 지식분야를 검토한 결과는 어떤 그의 경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대하고 특수한 지식을 셰익스피어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를테면 모든 베이컨 지지자가 기둥으로 삼는 그의 광범한 법률지 식도 엘리자베스 시대 법률권위자인 아서 안더힐의 조사에 의하면 '깊은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베이컨의 전 지성은 세밀히 검토하여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베이컨이 그의 영역 내에 모든 지식을 흡수해 들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세기동안의 연구자들의 의견은 그가 모든 영역을 점유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확실히 베이컨의 서적을 통한 연구는 희곡작가의 그것보다도 상당히 넓은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작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것을 베이컨이 저작해냈다고 해서 그를 욕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베이컨은 「선녀왕(영국의 시인 스펜서의 작) 및 「우림의 해부(신학자인 로버트 버튼 작으로 인생과 사고면을 광범하게 문학에서 많은 인용을 해가며 논한 것)마저 넣어 모든 엘리자베스 조(朝)의 희곡 저자라고 떠들어왔다. 좀 더 합리성을 잃은 주장자는 (왜냐하면 확실히 누구의 자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므로) 몽테뉴⁹⁾의 수필 「애로역정」을 비롯하여 「어리석은 이야기(조나산 스위프트¹⁰⁾ 작 1704년 출판) 및 로빈슨 크루소도 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 중의 첫 번째 것은 젊었을 때 불란서어로 써본 것이라 하니 그렇다 해두고라도, 나중 셋은 아마 베이컨이 세인트 알벤스에 매장된 후 52년부터 93년간에 걸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기(傳記)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한 해명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베이컨이 원고만을 남겨 두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는 다만 죽음을 가장함으로써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것처럼 다량

9) 원문의 온테뉴는 몽테뉴. Michel Eyquem de Montaigne

10) Jonathan Swift

의 저작을 내는데 필요한 편의성을 얻기 위하여 다른 자를 (아마도 석판에 넣기 위한 자를) 대신 발견하여 분묘 속에 넣었을 것이라는 것, 셋째로는 그가 산 프란시스코의 FGA 우인들 여사와의 통신에서 특별한 암호를 사용한 바와 같이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구수하여 저작시켰다는 것이다.

베이컨을 내세우는 자에게는 안 되었지만 그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진작가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다. 그에 대하여 알려져 있는 직책의 범위와 그의 인정된 저서의 양에 비추어 비밀로 더 36편의 희곡을 암호나 또는 평문으로 썼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아주 교육없는 자가 썼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문체가 관이하게 달라 같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베이컨의 문체는 위엄이 있고 침중하고 간결하다. 셰익스피어의 문체는 열도(熱度)와 광휘가 넘치고 풍요하여 간결하지 못하다. 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었던 존슨은 이야기하기를 베이컨의 연설은 아주 간결하여 만약 듣는 사람이 기침이라도 하고 옆이라도 돌아보면 그 뜻을 놓치지 마는데 셰익스피어의 다변은 정도를 넘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노상 억제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베이컨의 대연구자의 한 사람인 스페딩은 누구든 베이컨의 어느 저작에서든지 다섯 줄까지의 글이 셰익스피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할 바라고 말하였다. 옥스퍼드 백작은 그를 내세운 연수(年數)가 짧은 하지만 지금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누나보다도 그가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만약 희곡의 작가로서 백작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그렇다고 보듯이 미상 인물이라면 드 베엘¹¹⁾ 백작을 내세운 것도 또한 재미나는 가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옥스퍼드 백작을 지지하기 위하여 내 건 증거는 희곡에 관한 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비교할 때 매우 박약(薄弱)한 것이며 그는 그 시대의 한 주요 극작가로서 알려져 있을 뿐인 것이다.

때로 논쟁이 잠잠할 때에 아직도 핏대를 올려, 이 백작과 '스트래트포드의 백정 아들'과는 그들 이름의 사소한 유사점 이외에 결부시킬 아무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백작을 진짜 작가라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호이 크랜스톤 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1984년 11월 6일자 새터디 리뷰지) - 그 이전에도 수 백 사람이 언급했다. - 스트래트포드 사람 셰익스피어의 유언서에

11) Edward de Vere

의하면 그는 희곡 초연시의 배우며 초판 편집자인 버베이지와, 험잉 및 콘텔 들의 친구인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져 있고, 희곡의 많은 구절은 그가 극작법을 아마추어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음이 명료한 것이다. 확실히 희곡은 어느 것이나 자필로 된 것은 없고, 또 이리 이렇다고 그를 목격한 이도 없고, 어떠한 때에 이 장면 저 장면을 만들었다는 확증을 주는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추측에서 제기한 증거보다도 그 외에 남아 있는 것이 더 믿을 만한 힘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다. 참으로 만약에 2백년 또는 그 이전의 어떤 저작이 이것이 같은 이름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정말 쓰여졌다 하고, 모든 참고물이 일반적으로 저작자라고 생각할만한 것이라 하면 이는 한낱 모략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정통적인 위치를 증명하기는 거의 곤란할 것이다.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작가가 아니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번 씩름해 볼 힘든 대상을 원한다면 이제 한 '번 스위프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썼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아주 빈틈없는 위증과, 여태껏 알려진 증인들을 널리 매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스스로 감추고 비밀에 부친 것은 희곡을 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때 천한 직업으로 간고되므로 그랬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만일 일반에 알려진다면 저작가의 열망인 궁정인(宮廷人)이나 정치인이 될 가능성에 중지부를 찍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침소봉대 격으로 과장되어 있다. 이름 있는 무대를 위하여 작품을 쓴다는 것은 확실히 엘리자베스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가 정치가 밑에서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했다. 그러나 작가를 천하게 보고 도전하는 자들의 뒤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닌 사람들의 거개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들은 적어도 연극의 도락자(道樂者)였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터비 백작은 일반 배우들의 희곡작가로서 알려졌으며 배우들의 대후견인이었던 미리즈는 1598년 옥스퍼드의 연설에서 그를 '우리들 중에서 가장 희극을 잘 쓴 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버어리(1520-98, 영국의 정치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최고 고문)는 그러한 활동을 부인한 것 같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도 어느 정도로 희극 활동을 하게 했는지는 의문이나 제임스(1566-1625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의 영국의 왕) 왕은 이것을 승인한 것이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드 베일이 설혹 자기 죽은 뒤에라도 만약 희곡을 자기가 썼다는 것이 우연히 알려지게 될 가능성과 또 그와 대등해 나설 사람에 대하여 조치를 강구해 놓지 않았다면 그러한 불명예에서 그의 이름을 뚜렷이 제외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탄로가 어떤 문제꺼리가 되려면 그를 정당히 평가하지 않는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실이 들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얇은 희곡이 그가 죽은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그 희곡은 이미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것이 확정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 셰익스피어가 정말 희곡을 썼다면 그는 그 출판물 친구나 배우 동료들 손에만 맡기지 말고 - 그렇게 했다고 보고 좀 더 자기가 관계했을 것이 아닌가? 라고 문제를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다른 셰익스피어 대치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인 것이다. 글썽 진짜 작자가 것처럼 오랫동안 이름을 감춰두어야 했으면 왜 그는 그 출판물 좀 더 확실히 하지 않았을까? 어쩌서 그는 적어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바로잡아 두지 않았을까? 희곡의 전 초판은 어떤 작자의 펜네임일지언정 그것이라고 귀일시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마구 손을 들 면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작자가 누구일 것이다.’하는 증거는 거개가 그 내용에서 오는 내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희곡의 사건과 표현 간 및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생애의 어떤 사실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의 추리는, 수백 가지의 다른 의견과 상반되는 사상으로써 성공을 본 따위의 희곡작가를 다룰 때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방법인 것이다. 만약에 오셀로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가 옥스퍼드 백작에 적합하다고 해서 - 실제 그럴 듯이 - 백작이 그 희곡작가라고 주장된다면, 그럼 이 아고나 에드먼드(헨리 6세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리처드 3세는 어떻게 해서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인데도 것처럼 그럴싸하게 묘사된 것일까?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괴물과 같은 작가이었을까? 또 로운스(베나의 두 신사 속에 나오는 종의 이름)나 보롭(한 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직공)이나 고보(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인물)에 생각을 돌릴 때 - 그는 어떤 종류의 어릿광대 작가이었을까? 버어리는 보로니어스(헨릿에 나오는 인물)의 모델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옥스퍼드 백작만이 버어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버어리만이 그때 살고

있었던 격언에 능통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이러한 종류의 수렵이 시작되면 얻는 것은 어떤 야생의 거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루니 씨가 만일 엘리자베스의 고문 버어리와 크로디어스(헨릿에 나오는 인물)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할 때는 어떤 지식 있는 독자는 그럴 것이라고 묵인할 것이다 그러나 오웬리아가 안느 세실이고 옥스퍼드 백작이 헨릿을 모델 삼은 것이라고 하면 독자는 불안을 느낄 것이며 또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포틴부라스(헨릿에 나오는 인물)가 제임스 1세라는 그의 결론에 이르러서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훨씬 신빙성이 있는 내적증거의 한 형식이 있다.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종종 있는 바와 같이 메터포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물과 그 사용하는 곳에서 아무런 특별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인물과 같이 생각 할 수 없고, 그 작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그 예로서 - 오셀로가 ‘그것이 내가 싸워야 할 동기였었다면, 나는 프롬프터 없이 그것을 알았을 곁’(오셀로 1막 2장 3절)하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배우 휴게실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전쟁터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물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장의 장면은 베니스의 한 거리) 그래 이러한 부조리가 밑에 가로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누가 희곡을 쓴 사람은 극작에 능통하여 있었다고 하는 말을 정당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비유는 분명히 의식적인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마음을 자연히 토로하여 동기와 프롬프터 관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유는 희곡에 많으며 이것들은 작가를 형성한 그의 성품, 호불호 및 경험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런던대학교의 카로린 스피지온 박사가 모집하고 검토하였으며, 그의 ‘셰익스피어의 이미지’는 아마도 저작자 문제를 손댄 여러 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희곡 중에서 매사냥, 정구 및 기타 신사들이 하는 스포츠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많지만 (이러한 많은 인용은 다만 귀족만이 저자일 것이라는 증거로서 제출되었다.) 널리 행하여진 구희(球戲)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다른 게임에서 가져온 것보다도 약 3배가량 많음’을 스피지온 양은 지적하고 있다. 바다의 이미지는 육지에서 보는 그러한 것이다. 조원(造園)에서 인용한 이미지는 정원에서 일

하는 일군이 보는 것이며, 정원의 소유자가 보는 것이 아니다. (역시 많은 조원이 미지를 사용한 베이컨의 그것과는 거의 독자적이었다.) 희곡의 작가는 그 이야기 하는 때¹²⁾에서 촌 생활에 대한 친근한 지식과 가난한 사람과 천대받은 사람에 대한 유별난 동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쟁에 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가장 능한 재주는 대목(大木) 기술인 것 같이 보인다. 그는 놀랄만한 정도로 요리법을 잘 알고 있고, 일면 그의 가정 내의 이미지는 중류 농민의 주방, 그때 유복한 농민이나 또는 소시민이 요리하고, 식사하고 또 보통 휴게실로 쓰는 커다란 방에 집중되어 있다. 잘 환기가 되지 않는 방의 불, 녹아내리는 촛불, 기름이 마른 등 그리고 식사와 스토브 위에서 끓는 음식물의 냄새는 언제나 실패와 혐오의 비유로서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그의 시대에 공통적인 것이 아니며 아주 특이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귀족 시종자의 공손이나 또는 국가의 대신공작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와위크샤이어의 시골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 들이다.

일반적으로 용인된 저자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들이 그들의 논쟁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점을 집적(集積)한 결과만을 들고 (하레 씨가 말한 '사소한 사실의 방대한 집적')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논리는 그만치 그들에 반대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사실과 가능성 간의 차이는 불확성(不確性)의 차도(差度)이며 그들의 각 추측에서 일어나는 해명되지 않고 남은 의문은 또한 가증(加增)되기 때문이다. 그 처음의 자명한 가정을 용납 못 하는— '완미(禪迷)한 자'들은 그들이 공격하는 사실보다도 의심한 것을 더 의심하는 결론만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참으로 만약 실증과 짜증을 느끼면서도 모든 탐구를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는 비상한 인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고직한 열성에 대한 환상도 처음 몇 번은 변명이 서겠지만 그러나 이들 막연하기 짝이 없는 괴물이 남긴 많은 보이지 않는 족적을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것은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지루하고 아무 성과 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할 것 뿐인 것이다.

X광선과 적외선 사진이 아슈부르느, 웨이크스피어 초상화 밑에 옥스퍼드 백

12) 원문의 꺾는 때의 의미로 봄.

작¹³⁾의 초상화가 있음을 나타냈다는 널리 유포된 주장을 들추어 생각해보자. 만약에 아슈부르느의 그림이 셰익스피어 초상화와 동시대의 것임이 증명되고 만약 그 밑에 다른 초상화가 있음이 확증되고 그리고 또 만약 이 다른 초상이 옥스퍼드 백작의 초상임이 확증되었다고 하면 아무리 에누리를 해서 생각해도 그것은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가정은 하나도 사실로서 증명할 수가 없다. - 특히 가장 중요한 바로 세 번째 가정이 전적으로 의지 삼는 두 번째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모든 면을 집적거려본 후에 아슈부르느 그림 밑에 어떤 초상이 있음을 가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냉정한 탐구자가 사진의 이런 '발견사항'(1940년 1월의 싸이엔티픽 아메리카 4-8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의 진실이 밝혀진 후에 한 초상이 다른 초상(14세기 브리타니카 제17권 64하 뒷 페이지 1도(圖)의 소(小) 프랜즈 불보스가 아마도 그런 듯한 부인초상화를 여러 가지로 검출해서 원화를 복사한 것 같은) 밑에 그려져 있는 것이 X광선에 의하여 그대로 나타난 것을 비교해보고서 문제의 초상면에 있는 약간의 처음 운필(運筆) 자국이나 사소한 변형을 빼놓고 거기에 어떠한 흔적이라도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게 해보라. 초상화 제목에 찍힌 도장에 옥스퍼드 문장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증거로서 믿을만한 것도 못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눈만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열광적인 철면피한(鐵面皮漢)만이 아무렇게나 흰 화면을 엄숙한 기거(記據)로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셰익스피어 반대론자가 그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논박하는 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든지 '이론을 부르짖을 수 없다' 따위의 말이 아주 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품었던 어느 의문보다도 가장 끈적한 의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는 그저 한 말은 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 스트랫포드 태생인 그는 대극작가인 셰익스피어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 대치하기 위하여 제기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끝)

13) Earl of Oxford

현대시(現代詩)와 시조(時調)

김규동(金奎東)



시조(時調)는 우리 민족만이 가진 하나의 문학형식인 것이다. 이 형식 속에서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과 민족성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민족적인 정서와 그 풍속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인데 시조의 오래인 형식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의 입김을 풍겨주고 있음은 부인 못할 일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시조문학은 창조되면서 있고 시조의 현대 문학화(現代文學化)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제기되어도 좋은 문제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문학의 장르에서 시조를 어떻게 취급할까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에 걸친 우리들의 조출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 몇 편의 시조를 감상 음미하면서 시조의 참다운 맛과 그 정신을 살펴보기로 하고 나아가서 이것의 시대적 배경을 문학사적인 각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련다.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손이 눈물겨워 하노라.”

이것은 원천석(元天錫)의 노래인데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하니 성춘초목심(城春草木深)이라 한 글귀를 생각하게 하는 시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분수가 있는 법이니 고려의 왕궁터 만월대에도 가을 풀만 우거져 쓸쓸한 목동의 피리소리만 서글프구나!

이러한 때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홀로 길을 가는 나그네의 설움이야 오죽이나 클까보냐!”

이것이 이 시조의 대의인바 원천석은 인생의 무상을 평이(平易)한 언어를 통하여 잘 묘파(描破)하였다.

누군들 그 아니 쓸쓸하랴!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 만월대의 가을 풀은 너무나 쓰라린 정경이요, 게다가 가슴을 태우는 듯 쓸쓸히 울어대는 별레 울음소리는 더한층 처량한 것이니.....

이러한 애끓는 듯한 감회를 천석(天錫)은 오직 3행의 짧은 구절로서 표현해낸 것이다.

천석은 강원도 사람으로 고려 나라가 점점 간신들의 손에 넘어감을 보자 원주 치악산(雉岳山)에 숨어 스스로 발을 갈며 시필(詩筆)을 벗 삼은 자연의 아들 이었던 것이다.

천석의 이 노래를 읊고 생각나는 시조가 또 한 수 있으니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저 길재(吉再)의 「오백년도읍지(五百年都邑地)」인 것이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절은 간디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것과 앞의 것을 비교하여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똑같이 인생의 무상을 맞볼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허무감은 우리 시조를 일관해서 흐르는 하나의 사상형태인 것을 발견 할 수가 있

는 듯하다.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임의 정이라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 변할 손가 녹수도 청산 못 잊어 울고 흘러가는고”

이것은 황진이(黃眞伊)의 노래다. 이 얼마나 풍부한 정서의 표현이라. “푸른 산은 늘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속이요, 초록빛 강물은 떠나가는 임의 정이니, 초록빛 강물은 흘러서 떠나간들 푸른 산이야 바뀔 리가 있을소냐. 아 - 저 강물도 청신을 잊지 못하여 울면서 떠나가는 것인가!”

또 다음 하나 더 같은 작자의 것을 골라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인절도 물과 같아야 가고 아니 오노매라.”

이것 역시 특수한 황진이의 시정이요, 미덕인 마음의 선율인 것이다.

진이(眞伊)는 기생이었다. 기생이었으나 그의 천재적인 시재(詩才)는 그로 하여금 여류시인으로서의 자립을 꺾지는 않았다.

세상의 모든 구속과 박해를 견디어 가면서도 오히려 붓을 들어 아름다운 스스로의 마음의 노래를 점철하여간 그의 인생은 그러나 복잡하고 괴롭기 한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내 언제 신이 업서 님을 언제 소꿨관데 월침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업네 추풍에 디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 하리오”

라는 비통하면서도 안타까운 노래도 지어낸 것이 아나 있을까.

시조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심정의 독백에 이르면 그 내용도 단순치를 앓고 현대시의 그것에도 필적할 수 있는 복잡성을 가지는 것이다.

X X

다음은 박팽년(朴彭年)의 노래를 살펴보기로 하자.

팽년(彭年)은 충신으로서 오히려 그 절개의 깨끗함에 당대의 사표가 된 분이거니와 그의 작품은 역시 이러한 높은 절조를 읊은 것이 많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담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까마귀가 눈비를 맞으니 흰 듯이 거명구나! 밝은 달이야 밤중이라고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질 리 있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흐려져도 임을 향한 나의 맺힌 정신이야 바뀔 줄이 있을까 보냐!”

참으로 높은 지조의 예언이 아닐 수 없다.

또 다음 한편을 더 볼 것 같으면 “금생 여수라 한들 물마다 금이 나며 옥출 곤강이라 한들 퇴마다 금이 나며 아무리 여필종부라 한들 님마다 쫓을 소냐”

물에서 금이 난다한들 아무런 물에서나 금이 나며 산에서 구슬이 나온다 한들 산마다 구슬이 나며 아무리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된다 하지만 아무나 되는대로 순종할 수야 있을 것이냐!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엄연한 풍자이기도 한 것이요 또 하나의 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박팽년은 세종 임금 때에 등조하여 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집현전에서 학문을 닦고 훈민

정음(訓民正音)의 제정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다.

단종 선위사건 당시 경회루(慶會樓) 물에 빠져 죽으려하였던 것이나 성삼문이 이를 만류하였다.

충청도(忠淸道) 관찰사 한 해 동안에 올리는 글에 신(臣)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거(巨)라고 썼으나 조정에서는 몰랐었다.

다음해에 형조 참판이 되어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잡히니 세조는 재주를 아끼어 사람을 시켜 귀에다 대고 “마음을 바로하면 벼슬을 주겠다.”고 피였으나 웃고 대답하지를 앓았다고 한다. 세조를 향해 “나이리”라고 불렀다.

마침내 노량진(鷺梁津)에서 형(刑)을 받아 죽었던 것이다. 다음 이정보(李鼎輔)의 시조를 보기로 한다.

“못노라 부나비아 네 뜻을 내 몰래라 한 나비 죽은 후에 또 한 나비 따라오너 아무리 푸새엿 짐승인들 너 죽을 줄 모르는다”

불에 함부로 뛰어드는 나비를 보면서 지은 노래다.

마무리 초조한 풀 속에 사는 짐승인 나비지만 어찌하여 제 죽을 줄을 모르고 이렇게 불에 뛰어드는 것일까 - 하고 작자는 안타까워 못 견디어 한다.

작자의 이러한 안타까움이 몇 줄 안 되는 글줄에 묘하리만큼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이 이정보의 뛰어난 기술이기도 한 것이다.

“있노라 즐겨 말고 못 얻노라 슬퍼 마소. 얻은 이 우환인 줄 못 얻은 이 제 알쏭가. 세상에 얻을 이 분분하니 그를 우어 하노라.”

같은 작자 정보의 시조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경향이 다르다. 먼저 것이 정적(情的)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가진 것 많다고 즐거워 말고 얻지 못하였다고 슬퍼마시오 얻은 사람은 잃을까 늘 근심만 하는 줄 얻지 못 한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는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 그것을 우스워 하노라!”

라는 대의(大意)인데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체험을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 이 시조의 모미가 있다.

이러한 것을 쓰고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전원적인 낙관(樂觀)시도 그는 쓰고 있음을 본다.

“오려 눈물 실어 놓고 면화 밭 매오리라 울밑의 의를 따고 보리 능거 점심하소 뒷집에 술이 익거든 외자일 만정 내어라”

오벼려 심은 눈에 물을 대어 놓고 면화 심은 밭은 김 매오리다. 울타리 밑의 의를 따고 보리를 능거사 점심을 지으시오. 그리고 뒤 술집의 술이 익었거든 외상일망정 받아다 내시오—

이 얼마나 낙관적이며, 동시에 다정스러운 문인의 회화(회화)이랴! 이는 우리 민족의 목가적(牧歌的)인 민족의 일면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정보는 연안(延安)사람으로 경종 원년(1721년)에 진사가 되어 영조 8년 문과에 올라 예문관(藝文館) 교열을 지나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이에 앞서 영조께서 봉당(朋黨)의 싸움에 진저리가 나서 각 당을 아울러 쓰니, 정보가 느낀바 있어 시무(時務) 11사(事)를 올리어 극언(極言)하였으니 가로되 임사(任事)의 신하가 홍범당평(洪範蕩平)의 설을 빌려 써 그 사사로움을 이루고 충성과 사특함을 분간 아니 하고 순역(順逆)을 밝히지 못하여 옛날의 4당(黨)이던 것이 지금에 9당이 되어 조정이 봉당을 없이하고자 하되 도리어 그 당이 늘었으니 이리하여서야 어찌 홍범을 행하리오! 전하는 이제 오히려 어진 선비를 구하시면 서도 아래 사람에게 접하심이 그 길로써 아니하시어 오연(傲然)하게 스스로 성(聖)되다 생각하사 선비에게 겸양하시는 성의가 없으시어 학문하는 이를 산인(山人)이라고 물리치시니 유덕(有德)을 등진(登進)하여 유림(儒林)을 떨쳐 일으킴이 어디 있으리오……하매 절책을 입어 면직이 되었다 한다.

정보 나이 이른에 즐하니 시호는 문간(文簡)이었다. 정보는 천성이 굳세고 곧아서 걸치레를 일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침하지 않았다.

그의 글은 거둬 되풀이하여 만사람들의 사랑을 사는 바가 되었던 것이다.

조정에 선지 35년 풍채가 상싱하여 조정이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는 한 때 삼주노인(三洲老人)이라고 호(號)한 일이 있었던 것이라 전해지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아 온 제(謫)시조에서 각기 작자들은 고정된 형식에서 조금지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담는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동시에 시조의 소재 혹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화조풍월(花鳥風月)으로부터 인생의 무상, 혹은 역사의 변천이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시에 비한다면 훨씬 구속된 느낌을 가지고 있거니와 작자를 따라서는 이러한 느낌이 덜한 것도 더러 있다.

황진이(黃眞)의 노래가 그렇고 길재(吉再)의 시조가 그러하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신시(新詩)운동은 자유시라는 이름으로 제기되어서 종래의 445조의 노래 형식을 깨트리고 일상회화로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긴 하나 ‘하노라’, ‘하나라’, ‘하야라’, ‘하니’, ‘있어라’ 등의 결구는 역시 시조문학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조의 전통과 그것이 구사한 언어의 유습(遺習)은 뿌리깊은 짝을 심어 놓았던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시조도 현대문학의 영역에 들어와서 현대문학으로서의 한 분신(分身)되기를 바라고 있다.

시조의 형식이 현대의 시정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과연 족할 수 있는 기능— 즉 문학운동은 좋은 현상으로서 받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30년 동안 이 길에 종사하여온 노산(鷲山) 이은상(李殷相) 씨 같은 분들의 노력이 바로 이런 계열의 것인데 씨는 시조의 정형을 지키면서도 그 사고(思考)만은 현대 속에 가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X X

이 시론(時論) 에세 필자는 결코 시조의 부흥론(復興論)을 쓰려는 것은 아니나 현대시가 그 일면(一面)에서 너무 난해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시조(전통적 국민시의 한 형식)가 날로

쇠퇴하여 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의 유감스러움을 역설하고자 한다.

시조는 그 발상의 초기에 있어서는 흔히 양반과 귀족과 선비들의 것이었으나 시대의 오래인 변천을 겪는 동안에 그것은 어느새 백성들의

것이 된 느낌이 짙다.

현대 시인들 - 가령 예를 든다면 영국의 T S 엘리엇, W H 오든, C D 루이스, 스펜더 혹은 미국의 위대한 시인인 칼 샌드버그, 칼 사피로, 볼란서의 폴 바레리, 폴 에류알, 장콕도, 슈펠비엘 같은 시인의 세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시조문학은 다정스러운 친밀감을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정형에 대한 상식만 있으면 일상생활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소재를 모아 작시(作詩)할수도 있는 용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 중에 우리들 사이에선 전쟁시의 운동이 제창된 적이 있다. 필자도 전쟁을 주제로 했거나 전쟁이란 구체적인 현상에 소재를 구한 시를 많이 썼거니와 이와 같이 현대 시인들의 과제가 복잡다난(複雜多難)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보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얻어 부활할 수 있는 시조에 대하여 우리들의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은 문학의 사회참가라는 목적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한다.

물론 시사적(詩史的)으로 볼 때 시조 형식은 낡은 형식임에 틀림없다. 현대시의 세력 앞에 이것이 그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났는 지 오래인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조의 생명은 보다 넓은 시인들의 시작 형식으로 새로운 부활을 보아도 좋을 것이 아닌가 한다.

X X

인쇄술의 발명과 발달이 없었던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口傳)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것이 하나의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이 읊어진 시는 자연히 지어진 시 혹은 쓰여진 오늘의 시— 즉 현대시와는 그 성격이 다를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5백년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우리는 옛 영화(榮華)의 그리움으로 아로새겨진 길재(吉再)의 영탄(詠嘆)을 잠시 옆으로 밀어 놓고 다음의 현대시를 감상하여 볼 것이다.¹⁴⁾

14) 원문은 시는 다음과 같으나 번역 오류가 있다고 보아 완역을 첨부함.

“힘차고 뚜렷한 첫 선언

베스톤의 갑갑한 진술 뒤에

더 서두르지도 않고 여왕처럼 미끄러져 급행열차는 정거장을 떠난다.

머리도 수그리지 않고 모르는 척 늠름하게 그는 초라스레 밖에다가 붉은 집들과 가스공장과

드디어 묘지의 비석으로 인쇄된 음침한 죽음의 글장을 지나간다.

거리 저 편에 망망한 시골이 퍼져있다.

거기서 속력을 내려 그는 시비를 대해(大海)에 뜬 배들의 눈 부시는 무거울 갖춘다.

처음에는 강력하고 명백한 선언

피스톤의 검은 성명이 있고 나서, 조용하게

여왕처럼 미끄러져 그녀는 역을 떠난다.

인사도 없이 억제된 마음으로

교외에서 초라하게 밀집된 집들과 가스 공장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공동묘지 비석에 새겨진

죽음의 따분한 페이지를 지나간다.

도시를 넘으면 환히 트인 시골이 있고

거기에서 그녀는 속도를 더해 신비와

대양의 기선이 갖는 밝은 침착함을 갖는다.

그녀가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 - 처음에는 나직히

그리고 나서 더 높게 마침내는 재즈처럼 미쳐서 -

커브에서 소리치는 기적의 노래와

귀머거리 터널과 브레이크, 또 무수한 나사의 노래

그리고 언제나 경쾌하고 공기처럼 밀으로

차륜의 의기양양한 운율이 달린다.

선로의 금속성 풍경 속으로 달리며 그녀는

하얀 행복의 새로운 시대로 돌진한다.

이곳에선 속도가 기이한 형체를 낡은 커브를,

그리고 대포의 탄도처럼 깨끗한 평행선을 던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에든버러나 로마보다 더 멀리

세계의 정상을 넘어 그녀는

단지 낮게 파도치는 언덕 위에

한 가닥 밝은 인공이 흐르는 밤에 도착한다.

아, 불꽃 속의 혜성처럼

어느 참새의 노래도

꿀의 새 순이 터지는

어떤 나뭇가지와도 비길 수 없는

노래에 싸여 그녀는 황홀하게 움직인다.¹⁵⁾

15) 원문은 시는 다음과 같으나 번역 오류가 있다고 보아 완역을 첨부함(앞 주석의 연속).

그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때다. 처음에는 아주 낮게 다음에는 높게 드디어 재즈처럼 미쳐서 굽이마

다 소리치는 기적(汽笛)의 노래

귀 막히는 굴 ‘브레이크’

수없는 쇠진 못의 노래를—

그리고는 가볍게 바람처럼 쇠바퀴의 드높은 노래는 흘러간다.

이것은 스티븐 스펀더라는 현대 영국 시인의 작품 「급행열차」이다.

앞의 것은 소리를 내어 읊어서 재미있고 뒤의 것은 보다 생각하면서 읊어 내려가야 하는 어딘가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길재라는 사람의 노래는 한 번 읊어서 곧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몇 개의 한자(漢字)가 가지는 뜻만을 자전(字典) 속에 찾아본다면 곧 그 전체의 내용에 친해질 수 있는 감정적 요소로서 이루어졌으나 뒤의 것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 할 수 없는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앞의 것은 시조라는 일정한 형식을 빌고 있으며 외형상에 나타난 음악적 기분인 운율을 그 생명으로 삼고 있는 듯 한데 반하여 뒤의 것은 그런데 구애되는 기색이 없이 그야말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시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교양을 필요로 해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냐 예컨대 스티븐 스펀더의 내적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관과 심리적 관심 같은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대의 경제학이라든가 유물론 같은 학문분야를 비롯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혹은 D H 로렌스의 새로운 종교적 신념에 이르는 등등의 심리적 관심이야말로 현대시의 내면에 접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반면에 있어서 시조는 좀 더 단순한 사고 상태에서 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체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시조를 국민문학의 새로운 한 전형(典型)으로서 □려보자는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철길 금속의 풍경 속을 김소며 지나 그는 거친 행복의 새 세대에 뛰어든다. 거기선 속력은 이상한 모양과
흰한 굵이, 대포, 강철처럼 선명한 평행선을 튀겨 올린다.
드디어 에딘바라 또는 로마보다도 멀리 세계의 꼭대기를 지나 그는 넘노는 언덕 낮은 인(隣)빛 유선(流線)
의 빛만
이 흰
밤에 닿는다.
아아 불꽃을 뚫고 오는 별찌처럼
아무 새노래도
달디단 순이 트는 어느 사지도 비할 수 없는
그의 음악에 썩어 취한 듯
그는 달린다.

모차르트의 생애(生涯)

정세문(鄭世文)

볼수록 피 있게 보이는 세 살짜리의 남아가 자기보다도 다섯 살 위인 마리아네라고 하는 누나(姉)가 피아노 교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순시(瞬時)동안에 공부를 끝마친 누나의 뒤를 이어서 의자에 올라 앉아 장난감을 만지듯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악성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1757년 때)

이 어린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레오폴드 모차르트라 하는 훌륭한 음악가였으며 이 놀라운 천재어린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했으며 어려서부터 짧은 생애기는 하였지만 모차르트가 죽는 날까지 온갖 정 성으로 육성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아들 모차르트가 불세출의 천재작곡가로서의 천분을 타고 났음을 굳게 믿는 나머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차르트를 세 살 되는 해부터 피아노를 가르쳤고 또한 작곡 공부도 겸했으며 벌써 다섯살 때에는 작곡공부를 본격적으로 베풀게 쫓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차르트는 네 살 때에 누나의 오선장에 메뉴엘(악곡의 이름)을 작곡 기입했으며 여섯 살 나는 해에는 다른 사람은 칠 수도 없으리 만만 어려운 협주곡까지 작곡하게 되었지만 모차르트 자신은 그가 자기연령에 부합도 안 되는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조금도 인식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자애심이 강한 분이였으며 아울러 빈틈이 없는 사람이였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아들 모차르트가 뛰어난 모차르트의 기술로써 돈벌이를 한번 해보아도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그 지역사회에서 대 호평임을 기회로 이를 더욱 넓은 사회에 알리게 하는 동시에 돈벌이에도 마음이 앞서서 빈을 비롯해서 몇 지방에 연주여행을 계획 실천하였다.

특히 빈에 있어서는 열광적인 칭찬을 받았으며 여행 중의 어떤 날 모차르트가 황후의 무릎위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입을 맞춘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낡은 음악가의 삽화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후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보다도 더욱 큰 연주여행의 계획을 세워 파리를 향



하여 7세의 모차르트와 12세짜리의 그의 누나를 데리고 연주여행을 떠나 도중 여러 지방에 머물러 연주를 하여 거둬들여 절찬을 받았던 것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 5개월간에 걸쳐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그 후 이어서 런던으로 건너가 1개년 이상 체재하며 수많은 연주행을 통하여 칭찬을 받고 돌아오는 도중 또한 각 지방에 들러 연주회를 가지는 도중 3인 중에서 한사람씩 교대로 증병에 걸리게 되어 런던을 떠난 지 1년반 만에야 귀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벌써 모차르트는 11세며 귀국 후는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1770년과 1771년은 아버지와 이태리에 여행하여 동국(同國) 주요도시를 순회 연주하여 놀라운 그의 재능을 보여 주었고 그 후 두 번째의 짧은 이태리의 여행을 끝마친 것이 1773년 3월이었다.

그 후 4년간은 이렇다 할 만한 여행이 없어 주로 자택에서 작곡에 정통했으며 작곡기법의 발전이 눈부신 바 있어 18세 때에는 이때까지 작곡 출판된 곡반도 200곡이 넘는다고 한다.



모차르트도 어느덧 성년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모든 세상사에 대한 견해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도달했다. 21세의 모차르트는 14세 때부터 임명되어 있는 대회당의 지휘자로 있는 자기의 위치가 천하게 보이는데서 오는 분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고통스러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분명한 반대사도 표명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를 통하여 장기간의 연주여행을 신청하였으나 대회당 승정(僧正)은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여 마침내 모차르트는 지휘자로서의 위치를 부득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후 모차르트는 1781년까지 여행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 여행에서 그는 예술상으로 어떠한 소득이 있었는지는 모르되 극히 빈약했으며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이렇다할만한 것이 없었다.

1777년에 어머니와 바마리아에 여행을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아로이자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으며 아로이자는 모차르트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직접으로는 그 여성과는 첫 사랑의 고민을 가져왔으며 간접적으로는 아로이자를 알게 된 인연으로 해서 그의 동생 콘스탄체를 알게 되었으며 1782년에는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보다 먼저 모차르트가 아로이자를 정신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냉정한 태도로써 이를 반대하였으며 모차르트에게 파리에의 여행을 명령하여 그 연정을 잊어버리도록 계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약 1년간의 파리 여행을 거쳐 귀가하였을 때는 벌써 아로이자는 모차르트를 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연정을 콘스탄체에게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1779와 1780년에는 놀라운 만큼 작곡에 정성을 드렸으며 1781년에는 대승정이 모차르트에게 다시 자기 앞에서 일을 할 것을 명령하여 하는 수 없이 일단 봉사하게 되었으나 역시는 날이 갈수록 또 다시 굴욕적인 생활에 고통을 느끼게 되어 또 다시 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781년 이후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10년간은 빈에 자리 잡고 활약을 계속하였다.

이 10년간의 생활가운데는 무엇보다도 빈공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생활이 계속되었으며 빈공 속에서도 불후의 대작품을 다량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그가 28세 때에는 그의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아로이자의 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하게 되어(정신적으로는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 역시 경제적으로 곤란한데다 콘스탄체 또한 모차르트의 어머니와 같이 살림에는 수완이 없어서 그들의 생활은 곤궁일로를 걷게 되어 모차르트는 작품을 쓰는 외에 가장 싫어하는 음악개인과 수를 하여 얼마 안 되는 수입이나마 바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1779년에 작곡한 가극 '피가로의 결혼'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오늘의 유명한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명성은 이들의 악곡과 더불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즉 1777년에 가극 '돈 조반니'가 완성 연주되었으며 1788년에는 3개월간의 짧은 기간 내에 3개의 훌륭한 교향곡(Eb.g.)을 작곡했으며 1791년에는 가극 '마직(魔笛)'을 비롯해서 경이적인 '진혼곡' 등을 눈부시게 작곡하였던 것이 이렇게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빈궁(貧窮)의 중압은 자력으로서의 어쩔 도리가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차르트를 건져 주려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곤궁 속에서 생활하고 작곡해온 모차르트의 고생도 끝을 막을 날은 다가왔다.

즉 그가 35세(1791)에 가극 '마직'을 작곡하고 있었을 때의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으며 가극을 작곡완료와 더불어 '진혼곡'을 착수했던 것이다.

모차르트는 지나친 피로에서인지는 모르나 '진혼곡'을 완성도 하지 못한 채 악성지브스에 걸려 1791년 12월 25일에 짧은 생애로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이다. 악성(樂聖) 모차르트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 속에도 전 인류가 즐겨 감상할 수 있는 불후의 대작들을 수많은 남기고 돌아갔다.

물질문명이 최고도로 발전되고 있는 현대에서 호흠하고 있는 우리 지성인들은 이 모차르트의 위업에 다시 한 번 머리를 돌려봄이 어떠할까 생각된다.

(필자(筆者) 음대교수(音大教授))



인류(人類)의 미술(美術)과 현실(現實)의 소고(小考)

한순정(韓舜政)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어떻다고 하는 극히 평범한 느낌이라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생리를 타고 세상에 나오게 마련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표현하려고 생각한 것이 예술 발생의 근원이 되었고 고대 인류들은 의식적인 행동은 아니면서 하나의 예술품으로 손색없는 유물을 현세에까지 남겼으니 이것은 그들의 생활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솟아나온 예술의식 이전의 예술이었다.

기원 2만 년 전 Magdalenian 시대에 이룩했다는 Altamira의 벽화는 수세기 동안을 거쳐서 발달해온 현대회화에서도 종종 그 요소를 끌어오는 것을 본다면 생물학에서 계통(系統) 발생은 개체 발생을 되풀이 한다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도 개인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고 아동화(兒童畫)이 특징이 Altamira 적인 것임을 보아 더욱 확실하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와 전통은 장구(長久)한 세월을 요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문화가 완성을 보기까지에는 준비기간과 과도기가 있어 Renaissance를 맞이하기 위한 중세기가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예술로서의 미술이 고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예술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 어떤 현상일지라도 일단(一段) 인간의 눈에 비친 사실은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의식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런 과정으로서 미술활동은 시작되었다. 그러면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술이란 것은 인간의 감각과 체험을 재료로 해서 작가라는 기계의 성격을 포함하고 나타나는 창조물이라고.

그 기계란 시대적인 산물이며 사회적인 배경이 있음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Altamira의 야우(野牛) 벽화에 예를 들어본다면 그들도 벽면을 장식하기 위한 커다란 건물은 없었으나 그들 생활의 풍족을 바라는 일종의 종교적인 주술행동으로서 동굴에다 벽화를 그려 그것으로써 고대를 짐작할 수 있는 우수한 유물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이집트에 예를 들어본다면 장구한 세월을 두고 묵묵히 흐르는 Nile 강변에 한편으로 황막한 사막이 펼쳐있고 불타는 태양이 뜨고 지는 건조한 자연환경

에서 그들은 예술적인 아름다운 motif를 찾아 볼 수도 없는 고장에서 어떻게 위대한 예술을 건축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주위의 대자연에 비해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게 되었고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종교적인 신앙으로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대한 Pyramid와 그에 따르는 모든 예술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며 피라미드의 내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장식의식이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부조(浮彫)로부터 회화에 끝없는 발달을 보게 되었으며 피라미드는 자연을 배경으로 건축되었으니 비록 그들의 생각을 예술을 위해서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결과는 풍부한 예술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술은 대개서 종교적인 사상에서부터 파생되었다가 의식화한 이후의 예술은 종교와는 분리되고 따라서 독립된 정신을 갖게 되었다.

초기에 나타난 예술은 사실적(寫實的)으로 나가다가 차차로 추상적인 수법 내지 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을 이상화하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 그 특색은 달랐지만 시대적인 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같았다고 본다. 그리고 예술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듯이 현실이 있음으로서 인간은 이상을 꿈꾸고 예술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그 현실을 말하고 그림으로써 시대적인 혹은 지역적인 특색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인이 이상을 꿈꾼다고는 하나 인간은 자기 이상의 세계를 그리 수도 없다. 기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에서 예술인은 복잡해진 생활과 정신보다 더 커다란 일을 해보려고 추상을 향해서 열중하고 있으나 인간은 인간에서 그치고 생활은 또 그 한계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서구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사회는 그 요소가 우리의 전통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필연적인 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가와 대중은 일심(一心)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현대의 미술은 현재로서 고립할 수 없다. 그 이전의 사실주의나 자연주의, 낭만주의를 거쳐 인상파운동의 결산(決算)으로서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여 사실을 깨트리고 나선 인상주의면서 그것에 불만을 느낀 입체파(立體派), 야수파(野獸派)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섰고 이 모든 교차점에서 불균형을 느낀 것이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것에서 시대적인 특색은 찾지 못한 것에 비해서 전통은 영구적인 성격을 띠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인간은 더욱 새롭고 진보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미를 돋우는 시대사조와 역사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과정의 단계를 밟고 나아가간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 아래의 전통과 지나간 시대적인 풍조를 다 정합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사조를 이끌어 갈 것이며 현대에 성장한 모더니즘은 어떤 관점에서 방향을 돌려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서 다가올 순환기를 맞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 인류의 과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간단히 미술 발전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시대적인 사조보다도 더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회화가 일반과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일부 화가들이 자신도 알 수 없는 말하자면 자기감정에서 우러나온 정서가 아닌 무리로서 이루어진 것을 무책임하게 공개하고 이런 것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도 실은 모르면서 훌륭한 평을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예술인은 작품을 발표해야 할 경우에 한 번 깊이 생각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구태여 이유를 설명한다면 예술품이라고 이름 붙은 앞에서 그 예술의 의의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인 내용을 갖지 않은 되는대로 꾸며진 것을 예술품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은 작가에 의하여 제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욕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자신만이 즐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은 작가를 향해서 어떤 예술이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작품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좀 더 높이고 생활이나 사업에 시달린 두뇌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란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고립해 있는 우상의 존재로 생각할 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미(美)를 빼버린다면 얼마나 살풍경하게 될 것이며 흔히 생각하지 않을 문제지만 우리의 생활 주위의 모든 것이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의복을 착용하였으나 후에 그 복장이 아름답다고 느꼈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것은 본능이며 미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모두가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며 아름다우려고 애쓰고 또 누구나가 다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에서 예술은 불가분(不可分)의 것이며 또한 예술은 생활 없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는 예술에서 살며 예술은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비사실적인 회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을 떠난 현실이 있을 수 없고 예술도 현실 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임을 말해둔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용도의 생활품에서라도 감정을 느끼고 있어 예술이란 것은 그 감정을 온화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라는 명칭을 지닐 사람이 아니라도 각자의 생활감정을 부드럽게 하기에 노력해야겠고 적어도 지식층에서는 스스로가 현명한 예술적인 행동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다.

그리고 미술의 분야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고 여기 살면서 또 현대적인 사조를 두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이 무한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생활이 있고 예술이 있으면서 서로의 연락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며 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행할 수 없고 예술을 알면서 이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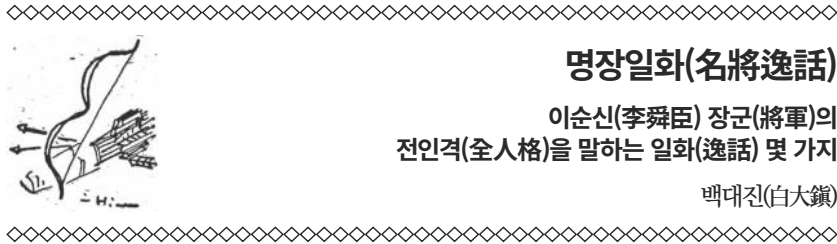
우리에게 주어진 복잡한 문제가 태산같이 밀려있더라고 때로는 작은 일을 위해서 큰일을 희생하고 튼튼한 기초위에 더욱 크고 목직한 건축을 해야겠다.

세기적인 시야를 사회로만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개인으로만 돌리라는 것도 할 수 없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자기와 직분을 정확히 처리한다면 다시 말해서 작가 개인은 한 점의 자기 작품에 성의를 다한다면 오히려 세기적인 무리나 수치는 가져오지 않게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야겠고 또한 우리의 문화는 질서 있게 자라야 할 것이다. 끝.

3거두(巨頭)의 명(名)을 달다 이집트의 3남아(男兒)

유고의 신문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더의 사이도 아멜 사이로 씨(氏)는 출생한 3남아에게 각각 유고 대통령, 인도 수상, 이집트 대통령의 명(名)을 따서 티토, 네루, 나세르라고 칭명(稱名)하였다. 이를 들은 티토 대통령은 대환영하고 조속히 이 티토 소아(小兒)에게 금시계를 보내 주었다 한다.



명장일화(名將逸話)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의 전인격(全人格)을 말하는 일화(逸話) 몇 가지

백대진(白大鎭)



1. 권문에 몸 의탁을 불원

충무공 이순신이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후 훈련원으로 들어가 말직(末職)을 차지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병조판서(병조판서 = 오늘의 국방부 장관)는 김귀영(金貴榮)이란 사람이었었다.

어느 날 김귀영의 집을 자기의 집처럼 알고 무상출입하는 김귀영의 집 문객 한 사람이 이순신을 찾아왔다. 그는 이순신과도 일면식(一面識) 짚은 있는 사람이었다.

“이공! 이공의 평판이 매우 좋군요!”

귀영의 집 문객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순신을 대하고 앉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요? 나를 찾아 주셨으니……”

문객은 이 말을 듣고 싱그레 웃으면서

“사실은 이공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 제백사하고 찾아 온 것이올시다.”

하고 쾌히 대답하였다.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제백사하고 오시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슨 기쁜 소식인지요?”

“이 소식은 이공께 대하여서는 평생 두고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현 병조판서 김귀영 대감 슬하에는 꽃 같은 따님 하나가 있는데 이 따님은 제2부인의 소생이올시다. 나이는 20(18세)쯤된 미모의 처자올시다. 대감께서 이공을 전도가 유망한 무인으로 보시고 그 따님을 이공의 제2부인을 만들 생각을 품으시고 나더러 중매 노릇을 하라 하심에 오늘 이공을 찾아온 것이올시다. 이공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형의 말을 농담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말은 그만두시고 딴 이야기나 하시죠.”

이순신은 이와 같이 대답하고 더 듣기를 싫어하였다.

“이공 내말 농담으로 취급하시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왜 익은 밥 먹고 선소리를 한단 말씀이요? 이공이 내말만 들으시면 귀한 집 똑단 처자를 작첩하시게 되겠고 따라서 현직 병조판서의 사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되신다면 이공은 옥일승천(旭日昇天)의 세(勢)로 출세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 말 마시고 내말만 들어 주세요.”

문객은 이와 같은 말로 이순신의 쾌답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말을 듣고 새삼스러이 정색을 하고

“형장! 형장의 호의에 대하여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무인으로 처음 나선 사람이올시다. 이런 사람이 권문세가의 따님을 작첩하고 그 덕에 출세를 하게 되면 무엇이 그리

기쁘겠습니까? 권문에 몸을 의탁하라는 말씀은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욕을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부(副)를 위하여 무인으로 나선 것이 아니고 귀(貴)를 위하여 무인으로 나선 것도 아니올시다. 이점을 살피시고 그런 말씀은 다시 두 번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은 이와 같이 준절히 말해 들린 후 문객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이순신이 권력에 아첨하던 무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광풍제월(光風霽月) 같은 심경을 갖고 소신에 살던 무인이었다.

2. 사생(死生)이 유명 무서울 것 없다

녹도(鹿島)의 난(亂)이 있는 후 이순신은 당시에 있어 상관이던 병사(兵史) 이일(李鎰)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구렁에 빠져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순신은 아무 죄도 없이 이일에게 참형을 받게 되었다. 이때 동료이던 선거이(宜居怡)는 이순신의 죽는 것이 애석해서 순신에게 대하여

“이공! 술이나 좀 자시우!”

하고 말을 걸었다.

순신은 이 말을 듣고 태연한 태도로

“술은 왜 먹으라오?”

하고 반문을 하였다.

“술이나 자시면 이공의 마음이 좀 진정될 것 같아서……”

순신은 이 말을 듣고 새삼스러이 정색하면서

“호의는 고맙소.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데 술은 먹어서 무엇을 하겠소? 나는 오직 천명만 기다리고 있겠소.”

하고 술 권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선거의는 이번엔 물을 가져오.

“그러면 물이라고. 한 모금……”

하고 또 권하였다

순신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물이란 목이 말라서 먹는 게 아뇨? 그렇다면 목이 안 마른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하고 물 권하는 것을 거절하고 말았다.

순신은 이와 같이 말한 후 병사 이일의 형문(刑問)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순한 성격의 소유자 이일도 순신의 기백에 놀려 그를 죽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또 선조(宣祖) 정유(丁酉)년간에 있어서는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순신이 서울로 끌려와 형문을 받게 되었었다. 순신이 서울에서 형문을 받으려 할 때에, 그의 지우(知友)의 한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이공! 큰일 났소. 왕노(王怒)가 지금 절정에 달해있고 또 조론(朝論)이 비등해 있음으로 여간해서는 해치지 않을 것 같소. 그런데 이공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러나 순신인 평시와 다름없이 태연한 태도로

“나의 목숨이 남의 손에 달렸는데 안 죽으려 한들 안 죽을 수가 있겠소? 죽이면 나는 꽤
히 죽고 말겠소.”

하고 선뜻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후 순신은 형문을 받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모함이 생기게 된 전말을 개진함에만
그치고 모함한 자를 끌어내 원망한 일이란 없었다. 그리하여 형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이
에 감동하여 그에게 형을 가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순신이 비겁한 무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죽는 것이 무서워
서 불의에 굴복하는 그런 종류의 무인이 아니었음을 말하여둔다

3. 오만한 진린(陳璘)도 결국 굴복

그리고 노량(鷲梁)의 대 결전이 있기 직전에 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던 진린이 왜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왜장 소서행장(小西行長)을 은근히 일본으로 돌려보
내려 하였다.

그리하여 진린은 행장과 대결할 생각을 버리고 행장과 관계없는 남해의 왜적을 치려하였
다. 저간의 소식을 알게 된 순신은 진린에게 대하여

“왜 행장을 내놓고 급하지 않은 남해의 왜적을 벌공(伐攻)하는가? 이래서는 행장이 틈을
타서 돌아가고 말 터이니깐 나는 그 전법에는 추종하지 못하겠다.”

하고 불평을 토하였다.

그러나 진린은 여전히 남해의 왜적만 치려하였다. 그러나 순신은 여전히 그 전법에 응하
지 않고 행장을 먼저 쳐부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오만한 진린은 얼굴을 붉히고 장검을 빼들면서

“이 장검이 안보이나? 이 장검은 황제폐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장검 맛을 보려는가?”

하고 위협을 하였다.

그러나 순신은 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태연자약한 태도로

“황제폐하께서 주신 칼이라면 그 칼로 불의를 응징하라고 주신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칼을 함부로 쓰려하는가? 나는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다. 죽이고 싶거든 죽여라. 그러
나 내가 대장으로 있으면서 행장을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못하겠다.”

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호(怒號)하였다.

그리하여 수월치 않은 진린도 그 이상 더 고집을 하지 못하였고 그 이상 더 위협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순신의 담력이 어떠한과 또는 순신의 의기(意氣)가 어떠한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토기(兎己) 정려(精勵) 인애(仁愛)의 무인

순신은 진중에 머물러 있었음이 육개성상(六個星霜)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긴 세월사이
에 한 번도 여자와 가까이 한 일도 없었고 또 밤이 되면 의대를 풀고 편안히 자곤 일도 없었
다. 그리고 어느 때나 수흡의 소식으로 그날그날의 양식을 삼고 탄 음식을 먹는 일이 없었

다. 그는 닭이 울기만 하면 불을 켜고 일어나 앉아 문서도 검열하고 또는 내일의 작전을 위
하여 마음을 썩히고 지냈다.

선조(宣祖) 갑오(甲午)에 이르러서는 순신이 염병이 걸려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러
나 그는 하루도 놓는 일이 없이 여전히 모든 일을 보살피고 있었다. 그리하여 부하는 그의
병세가 한층 더 위중해 질 것을 염려하고

“장군님! 그렇게 무리를 하시다가 병환이 더 위중해지면 어찌하십니까? 모든 것을 잊고
요양을 하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진언을 하였다.

순신은 이 말을 듣고

“근사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승패가 호흡 간에 있게
된다.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상 누워 있을 수는 없다.”

하며 여전히 진두에 나와 지휘하기를 말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전진(戰陣)에 있을 때에는

어느 때나 밤만 되면 군사를 조용히 자도록 해준 후 자기 자신은 전우(箭羽)를 정리하고
또 선두(船頭)에 서있게 되는 때에는 자기가 친히 궁시(弓矢)를 갖고서 북을 치고 대전하였다.

그리하여 부하들은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순신에게로 나아가

“장군님! 위태합니다. 자중하시옵소서”

하고 만류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순신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말은 다시 두번 하지 마라! 그대들이 시석(矢石)을 감수하고 있는데 내 어찌 홀로 편
안히 있던 말이나?”

하고 선두에서 물러나기를 싫어하였다 한다.

위에 말한 바에 의하여 우리는 이순신을 극기자숙(克己自肅)의 인(人) 또는 우국일념(憂國
一念)의 정려(精勵)의 인 또는 애인여기(愛人如己)하는 인애(仁愛)의 무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5. 이사해공(以私害公)할 수는 없다

선조(宣祖) 경진(庚辰)년간에 있어서는 이순신이 발포(오늘의 목포) 만호(萬戶)로 있게 되
었는데 당시의 좌수사는 성박이란 사람이 있었다.

성박은 이순신에 대하여서는 상관중의 상관이었는 데 그는 남달리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

103세(歲)의 노인(老人)이혼

103세 되는 로브 노인과 85세의 그의 노처는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혼하였다. “처는 수
군수군 잔말이 많다.”는 것이 로브 노인의 이혼이유. 변호사는 재산의 분할에
동의하고, 노처는 월 60달러의 부양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혼승인으로 재판소
가 건 조건은 ‘로브 씨는 이혼 후 6개월간은 재혼 양기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미(美) 남(南) 다고다 주 브레쇼에의 이야기. 로브 씨는 아메리카 인디언.



는 풍류랑수사였다. 그런데 거문고는 오동나무로 만드는 까닭에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각지로 보내 보았으나 모두다 빈손으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지우 한사람이 성박을 찾아와

“여보 대감! 요즘엔 오동나무를 구해보지 않았소?”

하고 말을 걸었다.

“요즘에도 구해보기는 구해 보았으나 역시 헛수고만 하고 말았소. 그런데 어디 있거든 좀 말해주소.”

성박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에게도 대들었다.

“그러면 있는 데를 하나 알려드리지! 여기는 사람이 가기만하면 당장에 얻게 되리다.”

“어딘데?”

“발포의 만호관사 정중(庭中)에 오동나무가 많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내 얻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성박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그 날로 사람을 발포로 보냈다.

성박의 사자는 발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이순신 관사를 찾았다.

“이공! 수사대감의 분부를 받고 급작이 찾아 왔소이다.”

성박의 사자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이순신 앞으로 자리 잡았다.

“무슨 분부인데요.”

“이공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 대감께서는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시는데 거문고를 만들 오동나무가 없어서 백방으로 이를 구하고 있는 차에 수사대감께서 이공 관중에 오동나무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를 여기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를 좀 얻어온 것입니다.

이순신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다 들은 후

“글쎄웁시다. 그러나 관사 내에 있는 물건은 어느 것이나 다 관가의 물건이올시다.

이 공물을 내가 어찌 마음대로 처분한단 말입니까?

하고 준절히 대답하였다.

성박의 사자는 이순신의 거절하는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면서

“말씀만은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이공이 못 베풀어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보다도 이공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고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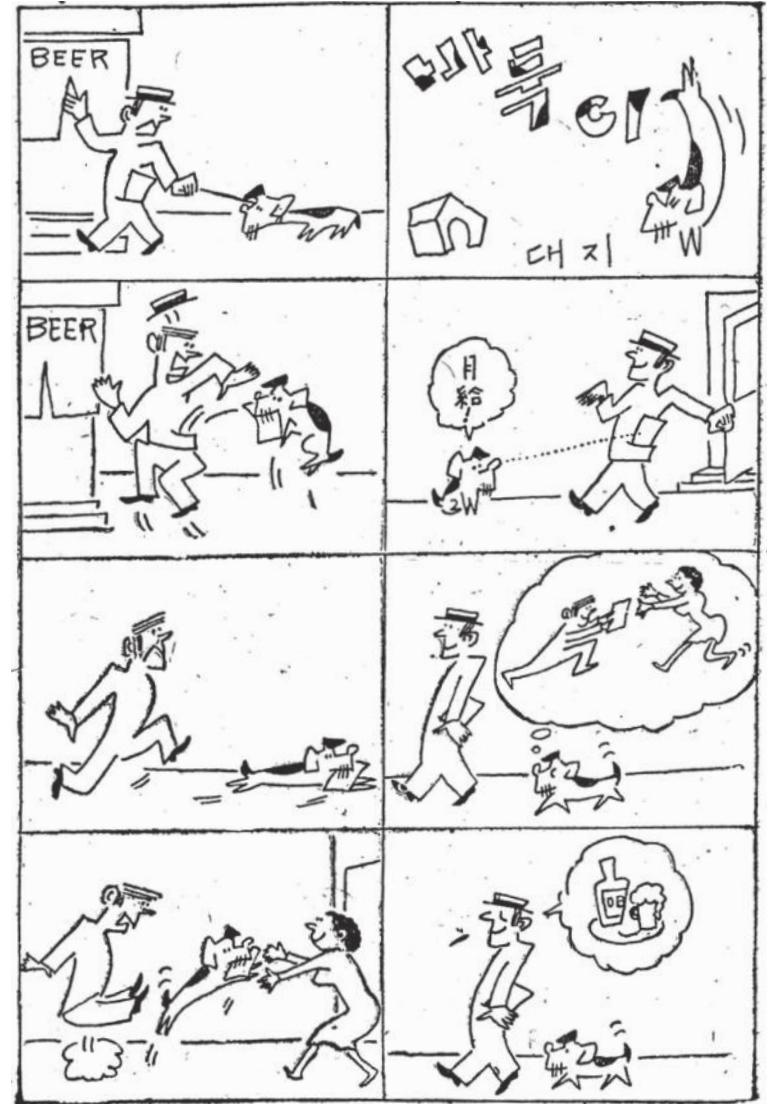
이순신은 이 말을 듣고 새삼스러이 정색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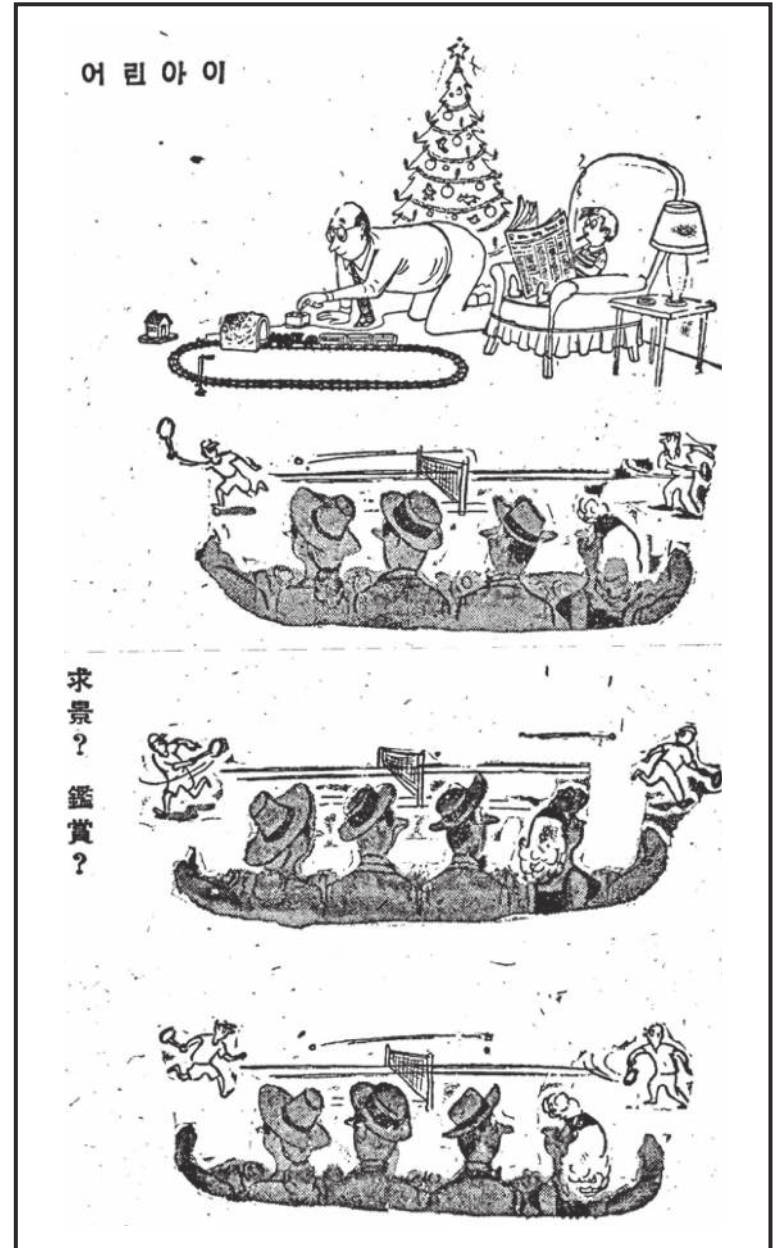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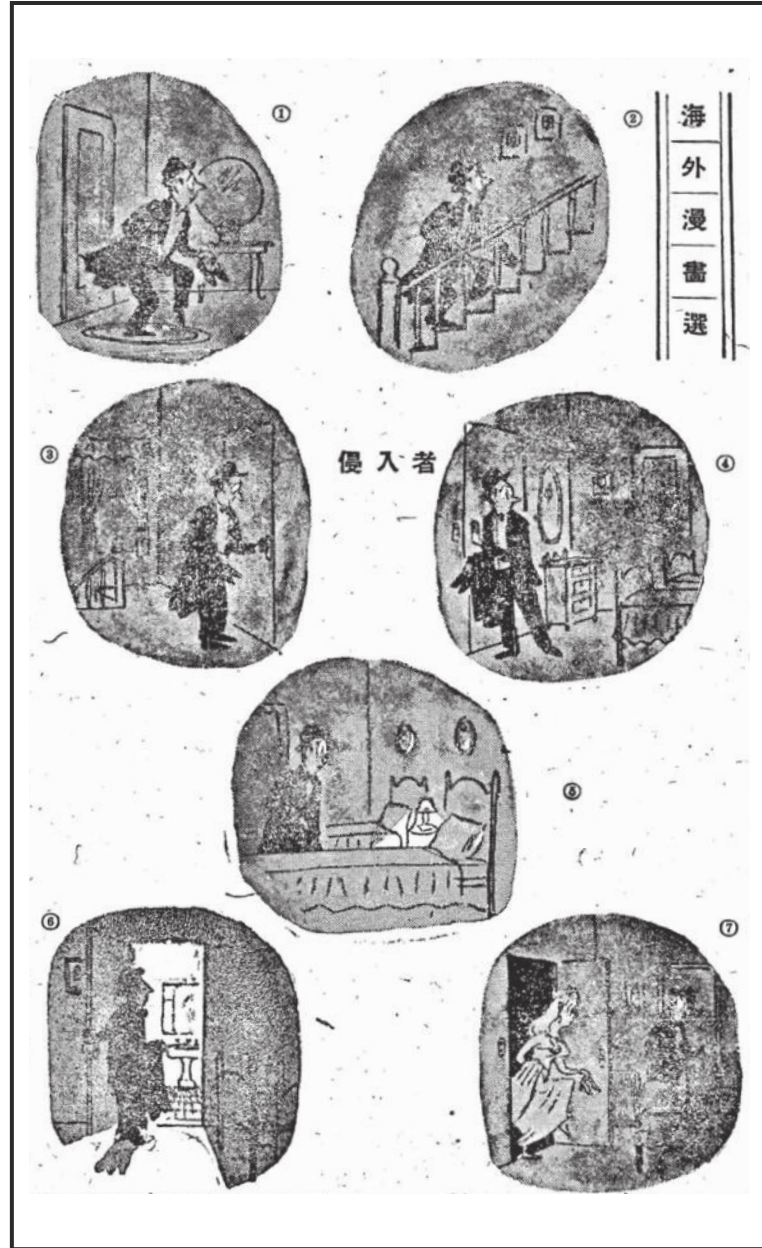
“하관으로서 상관의 요청을 불응하는 것 잘못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리를 위하여 공을 해하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벌을 받게 되면 깨끗이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여전히 사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사자도 더 요청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이순신이 이사해공(以私害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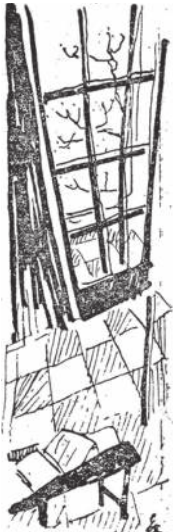
(끝)





바람에 부치는 글월

곽중원(郭鐘元)



식당에 들렀소. 내가 들어간 방에는 마침 선객(先客)이 있어서 한 쪽 식탁에 남자 두 사람과 여자 한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소.

그들의 주고받는 화제로 미루어 보아 공군 대위는 파일럿임이 틀림없고 그 옆자리에 앉은 미모의 여인은 그의 약혼녀에 해당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회사원풍(會社員風)의 청년이 오늘 그 자리를 베푼 주인 격 같소.

파일럿이 오키나와(沖繩)까지 비행을 하고 어제 돌아왔다는 것과 오늘 아침에 약혼녀와 수원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회사원풍의 그 친구를 찾았고 그리하여 그 친구가 원래(遠來)의 객을 위하여 대접하는 자리임을 미루어 알기에 어렵지 않소.

나는 여기에서 그네들의 관계를 따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구나 몰염치하게 옆자리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려는 것이 내 본의 아님은 물론이요 마침 오후 네 시가 지난 한적한 자리이므로 피차간의 이야기가 자연히 귀에 들려오기 마련이요.

두 청년은 끝없는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모르고 꼬리를 물고 잇닿았소.

파일럿은 오키나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회사원풍의 청년도 자기회사나 사회의 풍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어릴 때 같이 지내던 소꿉동무 시절의 얘기로 꽃이 피었소. 자네는 그때부터 말이 없고 무뚝뚝하였는지 자네는 공부를 하려면 십리나 도망을 가고 밤낮 놀기만 하지 않았나? 하하

얌전해 보이는 대위와 수다스러워 보이는 회사원풍의 청년은 그때부터 벌써 서로 대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모양이요.

그들은 또 자기네 동무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어느 관청에 있고 누구는 성공을 했고 누구는 행방불명이 됐고 누구는 신세가 말이 아니고 또 누구누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아는 대로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소.

나는 옆자리에서 그들의 흥겨워하는 얘기 속에 점점 침입되어가는 내 자신을 얼마 후에야 의식하였소.

인간이 지나온 과거의 추억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만족을 느끼는 것이 상정(常情)이라면 나르시스가 물속에 비친 자기미모에 혹하여 마침내 물에 빠져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그러나 누구누가 다 흘러간 세월 속에 자기애와

자기연정이 깃들어 있음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인가 보오.

그렇다면 더욱이 착잡한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 미모에 만족한 나르시스처럼 자기 과거에 만족을 느끼는 인간의 된들 무엇 그리 큰 잘못이 되겠소.

“내가 만나는 모든 얼굴에 아로 사겨진 특징

그것은 나약함과 슬픔을 고할 뿐이요.”

이렇게 브레이크는 말했다고 하오. 현실의 불행과 불합리와 갈등과 싸움만을 보는 눈에는 하필 브레이크의 이 말에만 그치겠소.

지난날의 아름다운 꿈을 어루만져 보는 이에게는 가끔 현실의 불행을 잊고 생각지 않던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깃드는가 보오.

두 청년의 가식 없는 허탈한 웃음 속에 문득 내 눈 앞에는 그 시절의 환상이 떠오르오.

K 형(兄)과 내 걸던 그 길!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이나 구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광막한 벌판! 보얀 사진(沙塵)이 이는 대륙에는 서녘 땅 끝에 붉은 노을이 기울고 순식간에 휩싸오는 대지의 어두움을 눈앞에 두고 돌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번쩍이는 두 가닥의 철길을 타박타박 걷고 있지 않았소.

침묵을 밟을 때마다 발은 휘청거리려도 누구 한 사람 입을 열려고 하지 않고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속에서 끝없이도 걷고만 싶던 시절.

마치 인생의 가는 길이 그 철길처럼 끝없이 뻗어있는 것 같아 묵묵히 자기대로의 사념에만 사로잡혀 상상의 날개를 뻗치고만 싶던 시절이 새삼 눈앞에 선하구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의 일을 잊지를 못하오.

더욱이 언젠가 나 홀로 시골 길을 걷던 광경을—

한 이랑이 십리나 넘는 밭이 양쪽에 쭉 잇닿아 있고 그 밭에는 두 길이 넘는 ‘꼬오랑’이 길길이 무성하여 지척을 가리기 어려운데 그 사이 좁다란 길로 걸어가 노라면 6척(尺) 미만의 자신이 왜 그리도 보잘 것 없고 초라하고 미미한지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안 것도 같았소. 전쟁을 좋아하고 착취를 좋아 하는 세상의 허다한 영웅들을 한 번만 인적이 끊인 이런 길에 홀로 걷게 해보고 싶은 충동이 문득 솟어나곤 하였소. 그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의 힘이 자연의 힘에 비하여 얼마나 보잘것없이 미소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약삭하고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아닌 가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그 뿐이 아니었소. 이런 무시무시한 홀로 가는 길이 나의 정신에 얼마만큼이나 살을 찌워주고 운택하게 하여 주었는가는 지금에서 비로소 깨달아 지는 것 같소.

오늘 나의 주위가 착잡해지고 번거로워 질수록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소. 인간이 고독에 못 이겨 허덕이면서도 그 고독을 못내 그리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소?

K 형, 벌써 우리가 그때 헤어진지도 20년이 넘었나 보오. 40고개를 넘어서 돌아다니니 까마아득 옛날 같은데 어찌도 나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오. 맥(獮)이라는 동물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마는 우리들이 과거의 아름다운 꿈을 반추(反芻)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앞에 다닥친 현실은 과거의 꿈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게 마련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오.

옆자리의 세 남녀가 일어서는가 보오. 그들의 주고받는 추억담에서 문득 형과 옛일을 연상하면서 바람에 부치는 글월을 몇 마디 적어보았소.

나도 이제는 환상의 날개를 멈추고 일어셔야지요.

(필자(筆者) 평론가(評論家))

명언(名言)-철언(哲言)

★ 사랑은 전광(電光)과 같이 침입해오고, 우정은 고요히 맑은 달빛같이 스며든다. 사랑은 획득(獲得)하고 소유하나마, 우정은 희생이 있을 뿐,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요구치 않는다.

(독일 시인 게이벨)

★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지식과 덕미(德美)로서 생기는 것이다.

(희(希) 대철인(大哲人) 소크라테스)

★ 건강한 육체는 영혼에 있어서는 객실이며 병든 육체는 감옥이다.

(영국 사상가 베이컨)

★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實) 그 반(半)은 거짓말이다.

(영국 소설가 후러)

★ 여하한 남자도 그 처(妻)에 있어서는 영웅이 아니며, 여하한 여자도 그 여자 자신의 영웅에 대해서는 처가 아니다.

(무명씨(無名氏))

봄 4월(四月)

김동사(金東史)

계절엔 어떠한 감정의식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감선(感線)이 예민한 인간이 짜증을 내듯 용하추동이란 계절에서 응석이 아닌 일종의 상태를 보아오는데 이것이 20세기 후반기라는 인류생활의 불안시대에서 특히 느껴진다는 것은 무슨 따로 뜻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면서도 4월이란, 계절이 봄에 속한다면 권태로운 마음의 공원이 있어 벤치에 기대어 사색의 실마리를 푼다고 하여도 우리가 도무지 과거 같은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영똥한 원자운 같은 불가능의 기층(氣層)에 떠돌 듯하는 위치를 느끼게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을 지우고 싶은 것이 자연의 회전에도 반영된 것일까.

겨우살이에 인지(人智)가 지치고 피로가 극하였다 하는 것이 다만 세속의 난무상(亂舞狀)이 각출(釀出)한건만도 아니고 지난겨울의 풍향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과도 꺾이나 깊은 관계가 개재(介在)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을 요즘의 유행어인 무슨 노이로제로서의 망녕을 겪은 뒷맛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심경 이것이 왜 이다지도 오랜 시간을 끌고 가는지 그것이 결과하는 종착지는 어느 정도쯤 되는 건지.

왜 계절의 이상(異狀)이 신경증을 일으키게까지 오늘의 관계가 이다지 거치장 하면서도 까다로운 상념을 뒤쫓지 않을 수 없는 습성에 포로 되고 마는가.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압력인가. 오늘은 공기가 무게를 가졌다는 인식에서 해탈하지 못하는가. 공기의 이동성에서 존재를 감지하여야 하는가. 비과학적인 사념을 이렇게 낚두리 하여야 하는가. 춤다는 것과 따스하다는 것의 분별을 게을리 하는 선(線)의 둔감증이 왜 없는가.

결국은 세속적인 인사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글을 만든다는 고역을 치루는 오늘의 현대인이란 층(層)의 아류변(亞流辯)을 든대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간비극 내지 모순이 그대로 시인되어야 하는 마당에서 반역도 못하는 무골행세를 하면서도 뿔뿔이 연애하고 깍다(喫茶)하고 유산(流產)마고 고상해야 실로 엄청난 위증생활의 화신들이 구성하는 사회를 우리는 유영(遊泳)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경솔한 몸짓을 하는가.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귀찮은 계절을 겪어야 하는 마당에서 난마(亂麻)속을 헤매면서 정상(正)의식을 회복하느라 고투하면서도 태연해야 하는 체면문제를 내적으로 미정리(未整理)이면서도 건축물 같이 규모가 갖추어진 것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생활의 표준이라고 해야 할 오늘의 불행은 잇따라 번식하여 종자는 종자를 낳아 내일은 가식(假飾)투성이로 된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런 것을 철학하는 꼼꼼한 부류에서 대를 이어가며 하나의 철리라고 내세우는데 이의 후진(後進)들은 이것을 안이(安易)하게 습득하려고 문자해독은 거의 하치만 선불리 삼키고는 설사하는 축들이 많이 생겨 딱한 풍경도(風景圖)가 남발되는 생태의 축도가 어떠한 층의 고위(高位)에 위치하여 책이나 겨드랑에 끼고 다니는 고등학생의 유치성의 모방거리가 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서재(書齋)보다도 거리가 필요한 유영(遊泳)부족이 들끓게 되는 인구과잉상이 만성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딱한 현실에서 도피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봄 4월, 정말 어감부터 좋다. 그러나 이것은 종이 위에 써진 문자로도 좋고 입속으로 외어보는 음률에도 좋다. 그러나 한 번 발을 떼어놓아 거리에 나선다면 거기 전개되는 것이 무엇일가 말이다.

실업자(失業者)란 특수하지 않은 층이 이젠 완전히 한 자리를 차지하여 권세가 아니라 똑똑하다는 층을 올려대는가 하면 달리는 자동차, 전차의 늘 생명의 소비를 최촉(催促)하는 경적에 흔들리는 심선(心線), 칩거생활이나 동면에서 맹아(萌芽)하여 나라를 떠는 생(生)이 가장 신선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체질에는 세포의 긴장을 가져오지 않고 이완성(弛緩性)을 살포하는지.

겨울, 해가 짧다고 황혼이 깃들면 악한(惡寒)에 오들오들 떨고 한때가 진저리 나더니 왜 이리 해가 긴고 탄식성을 듣지만 봄이란 늘 아쉬운 계절이 되는 것은 동산에 꽃이 피기 시작했음일까. 무거운 외투를 벗은 여인의 봄단장이 매혹적이어서 일까.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가 닥쳐올 것이 염려되어서 일까.

모두가 종잡을 수 없는 것뿐이다. 도무지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을 분석한다는 것은 헛된 노역이다. 오늘의 생활이, 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여도 막연한 것이 책임이 없다. 잊고 싶은 계절이면서 잊어지지 않는 계절을 곧잘 의식해야 한다는 의식의 출발점에서 스타트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미 스타트한 것을 누우칠 겨를도 없이 살짝 지나가버리는 어쩌면 여인의 스커트 자락이 남긴 바람의 촉감을 느끼어 뒤로 돌아다 본다 해도 어찌 아지랑이가 끼었는지 아물아물 보이지 않고 외로

운 자기에게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는 도표위의 점같이 오뚝한 자기, 이런 계절에 미아가 된다는 것을 구원 받을 수 없는 원죄같이 심각한 것이 못되면서도 혼자 붙어야 하는 피리소리같이 외로운 여음이 파문(波紋)하는 즐거이에서 서성대는 그림자가 또다시 자신인양 이런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무거운 숨을 토하고 쓰러질 계절 꽃 같은 목숨이라고 체념도 하지 못할 것.

혼자 있어서 외로운 심사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 층층 사람은 있고 해도 도무지 기맥이 통하지 않는 호흡 속에서 해매자니 절로 외로워져 변영한 도시의 거리에 나선다 해도 즐비한 건축물이 어지러울 뿐 마음의 정착지란 것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싱싱한 수목이 정다운 세파 속에서 무엇이든 애정이란 것의 지엽(枝葉)이라도 잡아보려면 잡히는 것이라곤 일종의 허무한 비애뿐, 이럴 때가 장사귀기 쉬운 것이 박카스란 마취의 신이니 여기 의지하고 산다는 족속이 부르는 노래랄 어찌 정률(定律)을 정하라.

변조(變調)의 리듬을 누가 이해할 것이라. 그러나 이해라든가 그렇지 않다는 가 하는 따위의 정리에서 출발하지 않은 도취경이고 보면 어떻게 풍선처럼 동동 떠가는 자신이 가장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고 좋아한다는 그런 아지랑이 사상 같은 음폐막(陰蔽幕)이 가려진 막 뒤에서 화장도 잊고 사는 것이라 할까. 이런 때를 가르쳐 병자 취급한다 해서 그다지 노여워 할 기력마저 잃었다고 해서 조금도 수치스럽다든가 겸연쩍어 할 아무런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자신만이 가장 올바른 선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애(可愛)롭다고 할까. 이젠 제한된 지면이 거의 매꾸어져 극히 산만하고 부조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죄스러워지는 것이나 제목을 봄 또는 4월이란 것을 내걸고 보니 이것이 어떠한 연륜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긴 하나 사물이 아주 어릴 때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오히려 비뚤어진 것으로 평(評)하고 싶은 일종의 아이러니한 심리에서 곧잘 자기와 그다지 밀접한 관계도 없는 일에도 빈정거리 보는 울지 못한 습성이 생활화되어 글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그것이 처음 편을 들 때보다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었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공중위기(空中危機)에의 저항(抵抗)

이광래(李光來)

현대의식은 위기의 의식이라고 한다. 불안사상, 협박의식, 공포의식, 절망의식 등등…….

일전 모지(某紙)에서 주취한 금년도 각 남녀 대학졸업생 좌담회 속기록을 읽어 보면 너도나도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불안한 것으로 전문(全文)을 채우고 있었다. 사회자는 자못 안타깝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 위기의식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또는 그것을 인식케 하려고 시사(示唆)와 암시로서 유도하였으나 그들의 논조(論調)는 종내 모호하고도 막연한 문답으로 시종하고야 말았다.

20세기의 본질은 곧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하였을 뿐이고 현대인이나 특히 지성인에게에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따위의 지극히 풍조적인 병적 의식임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한심스러운 풍조이기에—

왜냐하면 대학의 최고 두뇌들이 이미 절벽(絶壁)한 위치에 도달하였던 사르트르나 카뮈들도 '회귀(回歸)'에로의 적신회의 기를 휘두르고 있는 이때에 남들이 신고 가다가 버린 폐리(廢履)를 꿰어 신고 후진적인 풍조에 춤춘다는 것은 아무 대도 어릿광대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발음하고 표현하는 고독이니, 권태니, 무책임이니, 무의미니 하는 따위의 리코딩이야말로 무의미하고 무성실하기 짝이 없는 허영이요 허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무엇인가의 '원망과 욕구'가 있을 것이다. 이 무엇인가의 원망과 욕구야말로 그들 인생의 내용이며 현실이 아니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 원망과 욕구의 내용과 진실에 대하여 구체적 상황과 한계상황이 다른 내용으로 거리와 모순과 부조리와 타계(他界)로서 절망케 하고, 공포케 하고, 불안케 하고, 협박을 느끼게 하는 의식인 것이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이 의식에 대한 극복과 초월과 해방과 구원을 위한 '원망과 욕구'의 역사로서 혐오와 구토로서 시작하였던 것이다. 고대의 문화가 운명(運命)의 굴복과 항거로서 반복하였고, 로마네스크 문화가 하늘에 귀의함으로써 정착과 안정을 회구(希求)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출현한 칸트, 헤겔, 다윈 등의 괴물이 신비와 기적을 과학의 방법으로 해부하고 분석하고 실증함으로써 신의 실재를 부인하자 인간은 회의와 허망과 암담한 혼호(混濁)속에 빠진 채 절벽한 운명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과학은 스스로 파괴한 신의 영토위에 과거의 왕국을 건설해서 위하여 최

고 두뇌의 전(全) 지능을 동원하였다. 이 지능을 종교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원죄의 지능이라 경고하고 심판의 날을 예언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니체는 '철학의 의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초인간의 의지로서 극복한 것을 제기하였다. 이래 과학은 필사의 총역량을 경주하여 해부와 분석에 박두하면서 화학, 물리학, 생물학은 물론 심리학, 철학 등 모든 과학은 물체 및 정신, 생명의 실체를 탐구하려고 노력과 성실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과학은 신비와 기적을 정복하였고, 다만 생명과 기상(氣象)과 음향을 관제하지 못한다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마저 정복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의 뉴스로서는 기상을 지배한다고 하며 생명은 현실적으로 연장되고 있지 않는가? 음향관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홍길동전」에서 볼 수 있는 옥(玉)통수의 진술(眞術)(?)이 아니라 과학적인 가능성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요(要)는 과학이 아직 파괴과정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탄이니 수소탄이니 코바빠르트탄이 과연 전 인류 뿐 아니고 지구의 운명과 우주의 전 존재를 뒤집어 심판의 날에 임하고야 말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상과 동경이 지구상의 악의 질서를 타파하고 구원(久遠)한 원망과 욕구의 내용과 진실에서 행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철학의 의지라기보다 차라리 인간의 의지가 결정할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탄이 일제의 악을 심판하였을 때 기독교는 「묵시록」에서 예언한 일곱째 재앙인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였다. “공중에서 불이 날고……” 지구 최후의 날이 온다고 하는 이 일곱째 마지막 재앙이야말로 '천당'과 '암시'의 계시와 암호를 해석한 사람들은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지 모르지만, 인류 대다수의 생령(生靈)은 최후의 비극을 맞이하고야 말 것을 묵시한 공중위기가 아닐 수 없다.

옛날이야기 중에서는 선과 악의 싸움은 진술과 요술로서 대결하고 육지에서 비롯하여 강으로, 강에서 공중으로 가서야 결전을 하고, 다시 지상으로 회귀하여 선의 질서가 성취되는 것으로 엮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어 왔다. 중국소설에도 많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인 허균(許筠) 작 「홍길동전(洪吉童傳)」에서도 길동(吉童)과 길재(吉才)의 대결도 그렇다. 고대 그리스 비극 중 아이스큐로스¹⁶⁾ 작 「페르샤인」¹⁷⁾중에서도 그리스를 침략한 쿠세르쿠세스¹⁸⁾왕의 어머니 아투스¹⁹⁾ 황후의 꿈에도 이러한 불길한 예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장면이 있다.

16) Aeschylus
17) <The Persians>
18) Xerxes
19) Atossa

오늘의 공중위기는 도깨비 같은 이야기나 꿈이 아니고 과학적인 비행기의 공중실전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격하여 왔다. B-29도 이미 현재 고전(古典)이 오늘에 제트기보다 더 빠른 속도의 비행기가 바로 우리들의 두상(頭上)에서 위협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투하한 원자탄의 불꽃이 공중에서 반짝하는 순간 잿더미가 된 히로시마의 비극을 상기하여 보라.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이러한 공중위기에 대하여 현대인은 고독이니, 권태니, 구토니, 무의미니 따위의 언어유희로서만 회피하고 견딜 수 있는 노릇인가? 물론 현대 두뇌가 만들어 놓은 자업자득에 대한 불신이고, 이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고 초월하기 위하여 제기된 방법론이라는 것이 모두가 소리 나는 팽가리처럼 느껴지는 허망과 절망에서 오는 의식인 줄 안다. 일례로

구제품 타러 예배당에 오래 놓고 눈 감으라 하고서 신발 훑쳐가더라.

구제품 타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잠자리채 내 놓고 돈 달라고 하더라.

이것은 내가 사는 동리 뒷골목 대장들이 밤이면 떼무리와 패거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일종의 동요다.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냐? 이 기막힌 현실은 회피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면해 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사(文化史)를 엮은 이는 누구나 다 말하는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의 생활은 지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과 같은 생활 가운데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지 않았던가? 모름지기 지성인의 두뇌는 솔직 대담하게 현실을 접수하고 여기에 저항하고 창조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종횡으로 역사와 사회의 시간과 공간에서 호흡하는 산 인간의 의지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명백(明白)의 원망과 용구를 느끼는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현대과학이 조작하는 위기를 불신하기에 안정할 수 있는 과학의 완성을 지향하고 지성인의 두뇌는 총집결하여야 한다. 일제말기에 모 일본잡지에 발표된 비행기제작 책임자들이 모인 좌담회의 기록을 읽었는데, 일본 각지 공장에서 제조되는 비행기 부분품은 1일 수백 대나 되는데 그것을 맞추어보면 뜨지 않는 비행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기사다.

또 미국비행기가 파상공격(波狀攻擊)을 한창 할 무렵 일본비행기가 이것을 요격한다고 수백 대나 뺏다가 미국비행기가 가고 나면 다시 기지로 돌아오데 그때마다 군 보도부에서는 으레 엄청난 전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상인즉 요격한 것이 아니고 공중피난을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이 패전 후에 폭로된 사실이다. 이러한 불성실과 회피와 허위가 일본이 패망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여 보라.

절박한 공중위기에 대하여 더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경선 아닌 38선 상공에 미그기가 집결하고 있다는 최근의 정보에 접하였을 때 이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여야 할 것인가? 또 이 위기를 절감하는 우리의 의식은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욕구하는가? 인간의 준엄성은 고사하고 생명마저 위협하는 공포 아래 과연 고독이니 권태니 구토니 하는 따위의 언어의 유희로서 안한(安閑)한 수 있겠는가? 날지 못하는 비행기처럼 허위와 가장(假裝)의 한가운데서 탈출하여 인간에도 회귀하는 힘찬 저항으로서 공중위기의 결전장으로 비약하여야 할 때는 도래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공군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군이 아닌 전체 현대인의 두뇌가 느끼는 막연한 위기의식이 아니고 가능성을 참으로 느끼는 위기의식에서 생동하는 과학의 의지도 철학의 의지도 아닌 진실한 내용과 의미를 지닌 ‘인간의 의지’로서 구체적으로 저항하고 극복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끝)

(122면에서)

못하였다. 송별회에 나가 본 일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날 그 자리의 송별회만은 생애를 두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송별을 받을 아무런 건터기도 없지만 떠나는 날까지도 그렇게 나를 아껴주던 분들의 모습은 언제나 잊히지 않는다. 별로 내놓고 자랑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서 쓰자니 밀도 끝도 없는 부질없는 이야기를 하여 버리고 말았다.

단 한 가지 부연한다면 민족의 수난기에 나 같은 사람도 군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붓을 놓기로 한다.

(필자(筆者) 고대교수(高大教授))

일본방위청기술연구소(日本防衛廳技術研究所) 현황소개(現況紹介)

국방부과학연구소(國防部科學研究所) 제공(提供)



서언(序言)

제2차 대전 직후 일본은 “무력전쟁은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장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대’라는 명목 하에 그들은 다시 군대를 창설하였고, 지금은 육, 해, 공으로 면모를 갖춘 당당한 최신식 군대가 방위청 예하에 ‘자위대’란 이름으로 재출발하여 일의 확충 일로(一略)를 걷고 있다. 반세기동안 억압을 받아온 한민족으로서 이에 관심이 없을 수 없는바 이 소책자는 이 의문을 밝히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과학기술연구문제에 관하여 일본에서 발간한 잡지를 기준으로 본 방위청 산하 기술연구소의 현황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일본군은 즉 2차 대전 종전 전까지는 육군, 해군이 서로 대립되어 있었으므로 기술면에 있어서도 각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였으니, 러일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하여 싸우는 동일 국가의 군대이면서 육군에서는 무연화약(無煙火藥)(발사약(發射藥))을 자급자족하였으나, 해군에서는 영국에서 수입 사용하였고, 또한 해군에서는 강력 작약(炸藥)으로 시모세 화약(下瀨火藥(피크린산(酸)))을 사용하였으나 육군에서는 한 염두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마침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패망케 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 기술연구소는 이것을 완전히 혁신하여 방위청 직속으로 육, 해, 공을 단일화하고 3군을 모두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예산 면에 있어서 그들은 1956년도는 일화(日貨) 17억 9천 9백만 원(미화(美貨) 4,997,200불(360 대 1로 환산함))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고, 1957년도에는 일화 37억 7천 2백만 원(미화 10,478,000불)을 계획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한국에 비하여 현격(懸隔)히 우세한 공업적 입지에서 장족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백 만 대군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의 연구비란 이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책자를 널리 소개하면서, 사계(斯界) 유지(有志)의 ‘군 과학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동시에 실무담당자들의 가일층의 분발노력을 촉구하여 마지않는다.

본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쇼와(昭和) 연도는 서기로 정정하였고, 일본 ‘월’은 그대로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 ‘360 대 1’로서 미화로도 환산 표시하였다.

(국방부과학연구소(國防部科學研究所) 기획실(企劃室))

★ 확장(擴張)되는 일본방위청(日本防衛廳) 기술연구소(技術研究所)

기술연구소는 보안청 법(法)에 의하여 보안청의 부속기관으로서 1952년 8월 1일에 창설되었

고 보안대와 경비대의 장비품 등의 기술적 조사, 연구, 고찰, 설계와 시험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발족하였다. 창설 당시는 ‘월중도(月中島)의 보안청 내에 있었는데 1953년 6월 가와사키 시(川崎市)에 이전하여 연구소로서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화재를 내어 자료 등의 소실 사고를 내었다.

1954년 7월 보안청이 방위청으로 개편됨에 수반하여 방위청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새로이 항공자위대의 발족도 있었으므로 종래의 육, 해에 가하여 3자위대의 장비품에 대한 연구를 행하게 되었다.

‘방위청(防衛廳) 기연(技研)’으로서의 업무에 착수하게 된 동 연구소는 1954년 10월 하마마쓰(濱松)에 항공시험장을 개설하여 항공기와 동 기관의 성능시험 등의 사업에 착수하였다(좌기(左記)하기) 연도별 정원표 및 연도별 예산표 참조).

연도별 정원표

	1952	1953	1954	1955	1956
사무관등	65	140	227	376	447
자위관	35	46	49	90	112
합계	100	186	276	466	559

연도별 예산표(제1표) (단위 엔은 일본화)

	1953	1954	1955	1956
기술조사연구 위탁비	31,001	391,880	84,974	69,865
기술조사연구 시작비			710,002	1,043,294
연구용 기계기구비	84,000	168,243	352,817	208,541
기술연구비	26,000	53,082	59,663	59,663
시설비	183,072		49,795	278,313
기타 경비	1,360	86,373	105,845	139,357
총계	325,767 (904,908\$)	681,578 (1,893,272\$)	1,363,096 (3,786,128\$)	1,799,033 (4,997,314\$)
그 외에 국고			100,000 (277,778\$)	1,234,000 (927,778\$)

그리고 1955년 3월에는 수중무기(기뢰, 폭뢰, 어뢰) 수중기재(소나 청음기)와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요코스카(横須賀)시(市)(구리하마(久里濱)에 임해(臨海)시험장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장의 개설과 병행하여 계획하고 있던 기연(技研)의 본 청사 건설이 1954년 10월 도쿄도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區池田町)(구 고마자와 연병장 적(舊駒澤練兵揚跡))에 추진되어, 1955년 8월에는 부지 1만평 건평 2,990평의 4층 근대식 기연 건축물이 ‘3숙(宿)’의 원야에 완성되었다. 미사키(三崎)에서 ‘기연’이 이전한 것은 동년 9월이며 신청사에 이전과 동시에 연구용 각종 기재, 기구의 설치도 대개 완료된 기연은 이를 기회로 하여 본격적 연구업무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기연은 소장, 부소장, 1실 10부 3과, 2시험장의 조직을 가지고 이미 메구로(目黒)에 구

해군기술연구소의 일부를 이용한 수조(水槽)와 풍동(風洞)관계 시험을 하는 메구로 시험장도 근근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관계의 사가미하라(相模原) 시험장, 발동기의 운전 계기의 시험 등을 하는 다치카와(立川)시험장(도하 다치카와시(都下立川市)), 무기 시설 통신 로켓의 분진 시험을 하는 쓰치우라(土浦)시험장(이바라키(茨城)), 차량 항공기 무기 통신 등 제반 장비에 대한 내한(耐寒)시험을 하는 홋카이도(北海道)시험장도 본년도 말에는 완성하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1958년도에는 신규로 탄도 시험장도 개설하기로 되어 있다(본년도 계획으로 신설하는 다치카와, 사가미하라, 쓰치우라, 홋카이도의 시험장건설비는 일본화로 2억 7천 8백만 엔이다)

제2표 연구 각부 및 시험장의 주요내용

제1부 (이화관계(理化關係))

- A, 연료 및 윤활유
- B, 장비품 등의 원재료
- C, 원자력방호(원자력반(班)에서 진행)
- D, 광학기재.

제2부 (시설기재관계)

- A, 건설 및 토목
- B, 측량 및 조명기재,
- C, 급수기재,
- D, 대지뢰 및 폭발용 시설기재
- E, 축성 및 도로용 시설기재
- F, 항만 시설기재
- G, 비행장용 시설기재

제3부 (무기관계)

- A, 화기
- B, 사격지휘장치
- C, 전자 기타의 차량
- D, 반(半)공품 및 화학기재
- E, 화약, 폭약, 탄약
- F, 선박의 무장
- G, 계측 기재

제4부 (통신관계)

- A, 유선 및 무선통신 기재
- B, 레이더 및 전자계산기
- C, 무선항법기재
- D, 정보용기재
- E, 기상용기재
- F, 전시기재 및 암시기재
- G, 전기장치
- H, 선박의 전장

제5부— (함선관계)

- A, 선체

- B, 선박용기관
- C, 선박의 위장 위장품 항용품

제6부 (항공기관계)

- A, 항공기의 기체
- B, 항공기의 기관
- C, 항공기기
- D, 항공기의 위장 위장품
- E, 비행장용 기재

제7부 (수중무기관계)

- A, 수중무기 수축기재
- B, 선체소자.
- C, 선박에 대한 수중무기 수축기재 및 선체소자 장치의 위장

제8부 (GM관계)

- A, 유도비상체 및 그 관련기재(GM관계).

제9부 (위생수품관계)

- A, 식량 및 식료기재 .,
- B, 피복낙산산 기타 직유(纖維)및 피혁재료
- C, 위생자재
- D, 예비위생 환경위생 적성
- E, 수품

일본방위청의 기술연구현황

이 방위청 기술연구소에서는 자위대의 장비강화를 위한 군사과학의 연구를 하고 있다. 더구나 그 연구업무는 특히 강화하여 기술적으로도 세계수준에 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산면에 있어서는 1956년도 약 18억 엔(500만\$)에 대하여 1957년도에는 약 30억 엔(8,333.333\$)으로 증액하고 외부관계로 13억 엔(3,611,111\$), 시설비 6억 엔(1,666,666\$), 무기비 약 5억 엔(13,888,890\$)이라는 거액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연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왔는가 여기에 소개하여 보자.

99%까지 외부에 연구를 위탁

방위기술연구소의 1956년도 연구항목은 전부 301건의 다수에 공(亯)하여 310건 중 대학연구기관을 위시하여 민간연구기관에 위탁연구로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103건이나 되고 시작(試作)연구 항목 총건수는 194건으로 되어있다.

위탁과 함께 시작(試作)연구 자체도 대학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전 연구항목 301건 중 297건 즉 99%가 기연 이외에서 실시되고 있다. 1956년도의 예산으로 본다면 103건(육 20, 해50, 공 30, 공통20)의 예산은 6천 986만 5천 엔(194,069\$)이며 194건의 시작연구비는 10억 4천 329만 4천 엔(2,898,043\$)의 거액으로 되어있다. 이 1956년도의 기술총예산 17억 9천 903

만 300엔(4,997,314\$) 중 외부관계 예산이 약 11억(3,055,558\$)으로 된 점으로 기연이 얼마나 외부의존으로서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관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그러면 별지 제1표를 보면서 기연의 내용을 예산 면으로부터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보자. 이것으로서 현재의 기연의 전모를 명확히 알 줄 믿는다.

즉 17억 9천 900만 엔(4,997,221\$)의 총예산 중 약 11억 엔(21,055,558\$)은 외부 위탁 연구비로서 지출하고 2억 7천 800만 엔(772,222\$)을 신규시설로, 2억 850만 엔(386,111\$)을 연구용 기계비로서 지출, 인건비, 여비, 청비(廳費)로서 1억 3천 900만 엔(386,111\$)을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기연에서는 6,000만 엔(166,667\$)만이 (제1표 중의 기술연구소비) 연구소 내의 독자적인 연구비로서 사용될 뿐이므로 전반적으로는 과학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는 거개 연료비 등에 예산이 충당되어 연구비는 전연 없는 처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정경에서 볼 때에는 방위청 기술연구소는 건물 설비 예산 등으로 보아 결코 당국이 말하는 결핍예산은 아니며 외부에서는 풍성한 연구소라고 보고 있다

민간 7할 대학 3할

그런데 11억(3,055,558\$)이나 되는 시작과 연구비의 지출에 있어서 기연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민간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은 어떠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기연은 그 수와 명칭은 비밀로 하고, 다만 민간 7할 대학관계 3할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산업을 위한 과학연구를 간판으로 하고 있는 민간회사를 위시하여, 일본 학술회의의 결정이라 하여 군사적 연구는 학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언명한 학원기관이 현재 이 방위군사상의 연구를 더한층 힘쓰고 있는 사실은 이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중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연에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항목자체가 학문적으로 흥미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많으므로 매우 열심들이며 연구에는 적극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동경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요 공사립 관계의 학원에서는 이과계통은 거개가 기연의 연구에 협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기연의 설명은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일본 자본주의경제의 틀 안에서 점차 늘어가는 군사확장의 자태에 착안한 기업회사가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군사기술에 조력하고 있는 현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전후에 평화기술산업의 진전을 위해서만 연구하겠다고 언명한 학원연구기관이 이와 같이 적극적인 열의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과학연구가 부단히 탐 레벨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이유 외에 학원연구비의 궁핍으로 비용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으로서 담벼들게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점 기연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기연의 현재의 능력으로서는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과 장비품의 시작은 민간에 의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의 맹점을 찌른 충분히 일반 특히 계획적인 것으로서 농민들의 궁핍상에 편승하여 자위대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 정부 및 방위청의 수법과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에 일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즉 작년의 일로서 동대신문은 학원 내의 공학부 선조공학 연구실에서 선박에 관한 군사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학원내의 일대 문제로서 보도하였다. 일반 저널리즘에서도 대 신문

은 이것을 간과치 않았다. 그런데 문제로 된 것에 대하여는 학술회의의 기본방침도 있어 학원 당국은 예리한 공격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선박공학의 수조가 노후화된 데다가 보수 예산은 없고 곤경에 처하여 있는 때에 마침 선박의 수조실험연구를 기연에서 의뢰하여 왔기 때문에 보수비에 대한 욕심과 연구의 흥미에 이끌려서 기연의 일익을 담당케 된 것이 명백히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연구기관도 같은 케이스로서 특히 기연의 위탁연구에 축수를 뻗치고 있는 경향에 있다. 민간연구기관과 학원연구기관의 비가 7대 3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술한 바이나 민간의 연구기관 중에는 직접간접으로 학원연구기관의 멤버가 다수 들어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관여하는 학원연구기관의 이과계통 연구는 사실상 태반이 군사기술의 연구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보겠다.

또한 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기연은 민간과 학원의 연구기관연구원을 터전으로 하여 그 위에 군림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광범위한 연구항목

그런데 이와 같은 터전 위에 서서 점차로 조직과 예산 면에서 증대의 일로를 걷고 있는 기연은 어떠한 군사상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제2표에 표시한 9부에서 행하고 있는 연구가 이 물음에의 대답 내용인바 다시 연구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술 103건의 위탁연구 중 특히 중요연구라고 보고 있는 것과 시작연구항목 194건 중 특히 중요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기로 하자.

A. 위탁연구의 중요항목

1. 육군관계

- 가, 비금속 지뢰의 탐지에 관한 연구
- 나, 방사선용 자동경보장치.
- 다, 순간적 복사열선의 각종 물질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
- 라, 습지 측정법
- 마, 방탄강판
- 바, 무선통신 레이더의 방해 및 대방해 통신기기

2. 해군관계

- 가, C장치(잠물 잠수함을 전파에 의하여 탐지하는 장치)
- 나, 수측법의 연구
- 다, 헬리콥터용 계하(繫下)식 대잠함용 탐지기의 연구
- 라, 대잠공격법에 관한 오퍼레이션, 리서치의 연구
- 마, KRT (독일의 율타-타야빙과 같은 경량의 다이빙)
- 바, 잠수함용 전파기기
- 사, 잠수함구조의 연구

3. 공군관계

- 가, GCA(전파유도에 의한 착륙장치)
- 나, ILS (착륙계기장치)

다, 이착륙기구의 연구(협착한 장소에서의 이착륙에 대한 것)
라, 제트기 등 항공 적정에 관한 연구

4. 육해공 공통의 것

가, 전자기기의 부분품 규격통일에 관한 연구
나, GM의 조사연구(1954년도 이강 특별조사관실을 설치하고 노력 중)
다, GM의 오퍼레이션 리서치의 조사
라, 초음속 비상체의 기초연구

B. 시작연구의 중요항목

1. 육군관계

가, 중특차(4인승 35Ton 속력 40km/hr 90m/m 화포문과 기총 550HP의 디젤 엔진의 것으로 미스비
시(三菱)중공업과 동일본중공업에서 시작, 본년 내에 2대 완성예정)
나, 105m/m 자주포의 개량(小松제작소에서 하고 있는데 2차 시험도 종료)
다, 200m/m 장사정 로켓 1만 미터의 상공을 겨누는 대형 로켓의 기초연구.
라, 155m/m 박격포과 동 탄약
마, 비금속지뢰
바, 신형무선기
사, 항도굴착기재(원폭전에 대비용)
아, L형기(연락용기)의 내한성

2. 해군관계

가, 원거리보신기(대잠수함용)
나, 호밍고 어뢰(상대편의 소리를 쫓아서 상하로 노를 잡으며 나가는 구착어뢰)
다, 감응기뢰와 동용 소해기기
라, 잠수함용 주전지
마, C장치(잠수함의 해저소재 위치를 전파로 비행기에서 탐지하는 장치)
바, 잠수함용 전파 및 광학기기
사, 가스 터빈

3. 공군관계

가, 중간제트연습기
나, F86 T33(모다제트기)의 국산화
다, AAR(공대공 로켓탄)의 연구
라, 후라이트 쥬테에타(유격훈련장치)의 연구
마, 이착륙기구

4. 육해공공통관계

가, GM의 구입(스위스 에리콘 사에서 구입)
나, 전자기기의 부분품 시작
다. 낙하산(경량투하용)

기연 5개년 계획작성

이상, 기연이 중요시작과 연구사항으로서 들고 있는 것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항목 중
에서 특히 최종점 연구시작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12항목의 특별취급이 있다. 이 12항목 중

의 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소개하겠으나 소위 MWDP(Mutual Weapons Development
Program 상호무기개발원조계획)에 의하여 연구시작을 한다는 것이다.

방위청 기술연구소라는 존재조차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
개한바와 같이 여기서는 상대방의 힘을 보다 더 강력히 타도하는 전쟁을 위한 연구가 큰 예산
과 인원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발족 당초 미군 공여의 병기를 일본인의 체
격 국토의 조건들에 맞도록 보정한다는 단계에서 점차로 손을 뺐이어 금년도부터는 MWDP
에 의한 연구도 포함하여 방위 5개년계획에 평행한 장기간기술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고 있다. 기연 수뇌부의 설명에 의하면 근대식의 인기적의
GM(Guided missile)의 기초적 연구도 일단 충실하였고 선박의 설계 육상준비의 연구를 위시
하여 항공기에 관한 연구도 충실히 되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재기의 현 단계라 하여 대단
히 적극적인 것이다.

그런데 1950년 맥아더 장군에 의하여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실질상 군대로서 탄생된
당시의 소총전차의 중고품으로서 육상에서만 내년에 17만으로 확장되는 자위대에게는
이미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MWDP와 12항목의 신병기연구

방위청에서는 금년 6월 재일미고문단을 통하여 일본의 독창적 신병기 12항목의 연구계획을
미국방성에 제출하였다 그 항목 중 어느 것이 얼마큼이나 MWDP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여서는 목하 외무성을 통하여 절충 중에 있으나 가난뱅이로 자처하는 방위청으로서는 MWDP에
의존하는 바가 큰 모양이다. MWDP라고 하면 미국이 MSA 협정국에만 체결하는 것이지만, 요는
신병기에 대하여 우수한 구상이 있는 경우 그의 완성까지 자금 원조를 하고 완성 후는 미국도 그
것을 써주게 해달라는 것이다. 방위청기연이 작성한 MWDP의 1개 시안에 의하면 1960년까지 5
개년 간에 전차 제트 로켓 등 수십 점의 신병기를 완성하기로 되어있으나 이는 요컨대 비용은 일
본 측 50억 엔(13,888,900\$), 미국원조 176억 엔(48,888,888\$)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것은 일방적인 예정이며 미국이 그만큼 지출할지 여떨지는 전연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방위청이
미국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는 될 것이다. 그러면 신병기로서 상호병기개발원
조계획이 적용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그 내용을 밝혀 보자.

자주105m/m 무반동포차(미국에서도 기대하고 있음)

대전차전투의 주체는 전차라 함은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차는 집중사용을 하면
할 수록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주름살이 많은 특수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대량의 전차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득책(得策)이 아니라고 해서 자주
105m/m 무반동차를 설계한 것이다. 이것은 카타필라로 달리는 소형전차의 형(型)과 같은 것
으로 명칭의 표시와 같이 105m/m 대전차포 2문을 적재한다. 특징은 큰 포를 가지고 있는 것
과 경편한 기동성과 복잡한 지형에 대한 답파성(踏破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래 육상 자위

대의 대전차포의 주력으로 될 이 포차는 일본인 체격에 적합하게 키가 작은 것으로서 기습적병 기라고도 하고 있다.

이 포차에 대하여서는 작년 말 미스비시 중공업과 고마쓰(小松)제작소의 2사가 각기 시작품을 완성하여 그간 육상자위대 후지(富士)학교에서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현재 고마쓰(小松)의 것이 채용되어 동 사에 대하여 대량 발주할 가능성이 강하다 한다.

그 주요항목으로서는

1. 중량 약 6Tons 전장 42m, 전폭 2.2m, 전고 1.25m
2. 최고속도 1시간 50km 이상
3. 등판 능력 60% 기포(起爆)능력 1m까지
4. 행동거리 150km
5. 접지압 0.5kg/cm
6. 105m/m 무반동포 2문 연장(격발은 전자식) 포가(砲架)는 고저 양자세로 부앙(俯仰) 좌우의 각도변환도 자유 대공방어에 필요로 20m/m 대공포를 비치함
7. 공격후의 신속한 퇴피를 고려하여 후향조종도 가능케 함
8. 제작비는 같은 위력의 전차의 1/10을 목표로 함

예산계획

일본단독으로 하는 경우로서, 1960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총예산은 8억 615만 엔(2,239,306\$)인데 현재까지 사용한 비용은 3,431만 엔(95,306\$)이다. 미국의 원조가 있을 경우에는(1956년도 이후) 일본의 총예산은 2억 1,162만 엔(587,833\$)이 되며 미국 지출 기대액은 5억 8천 922만 엔(1,636,667\$)으로 될 것으로 이 경우에는 약 3년의 단축이 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에 대하여는 제일 미 군사고문단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며 이 포차는 일본국법에 합치될 뿐더러 각국과도 원수폭전에 대비하여 중량병기보다 이합집산이 용이하여 기동력이 풍부한 경병기이기 때문에 1발의 원폭에 대하여 손해를 최소화하여 하기 위하여 병기경량화에 의한 기동성 증시의 경향부터 주목되고 있는 바이다.

중특차 실용성에 의문

1. 고성능디젤기관을 연구 개발하여 일본의 연료자원에 적합한 중특차체형을 제조 연료 보급을 능률화한다.
2. 디젤 기관 특유의 정우력(定偶力) 특성에 의하여 부정지(不整地)에 대한 성능을 증대함과 동시에 일본의 지형, 교량, 철도에 적응한 경량의 것을 제조(35Tons이하로 억제)
3. 장갑의 부족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준과 강력한 화력으로 보충케 하고, 또한 공지(空地)에 대한 사각을 없이함과 동시에 직사 곡사대공화력을 가지게 함

이상 주요한 3점의 주장에서 중특차의 시작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결정되기까지

에는 근 1년간이나 갑론을박을 되풀이하였으니, 즉 일본의 지형 특히 교량 조건 등으로 방위청 최고간부는 국산전차는 25Tons 이하로 하기로 하였는데 대하여 구 육군군인을 중심으로 한 제복조가 25Tons 정도의 소전차로서는 소련의 T34 전차에는 대항할 수 없다. T34(35Tons 85m/m 1문 시속 48km)에 대하여 위하여서는 적어도 90m/m포를 장비치 않으면 안 된다. 실례로서 MSA 공여병기로 미국에서 받은 M24전차(18 Tons 75m/m포 1문)는 한국전선에서 소련제 전차 앞에 꼼작도 못하지 않았느냐고 강경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25Tons급 전차로서는 90m/m포를 장비할 수 없으므로 35Tons 전차로 낙착된 것이다.

일본의 교량과 철도는 극히 불충분하여 건설성의 통계에 의하면 철 콘크리트, 목재 등 전국 교량 수 125,321개 중 보통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것이 4,672개소 6Tons 이상의 전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것이 20,744개소로 되어 있다. 이 조사통계에 의하면 약 10만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조사는 20Tons이나 30Tons이나 되는 전차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 10만 교량 중 얼마정도나 걱정 없이 통과할 수 있겠느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듯하다. 특히 외국의 국토를 전차 전장으로 하지 않고 국토방위를 부르짓는 자위대이다. 아무리 강력한 전차를 가져보아도 10분 달릴 수 없게 된다면 그야말로 난센스다. 시작비로서 1950년까지 29억 4,000만 엔(8,166,667\$)을 예산한 이 계획이 돈에 게운 헛된 계획이 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대전차포의 주력으로서 먼저 소개한 무반동포차를 유리한 병기로서 들고 있는 당국의 태도로 볼 때 이중 특차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90m/m포 1문 40m/m 대공포연장 곡사화기로서 105m/m 155m/m의 포를 장치한 35Tons이라는 중특차의 주요목을 보기로 하자.

1. 저연료비 고효율 경량화를 위하여 600마력 디젤기관 연료방식을 취함
2. 일본의 재료자원서 맞는 방탄강재질의 연구
3. 90m/m포의 재질과 성능상에 관한 연구
4. 고능률의 반자동장탄기구의 연구
5. 경량, 소형, 고능률의 '웬스 화인더', '노크트비중'과 포와의 연동기관 연구
6. 노크트비중 투광기 리모트컨트롤 연구
7. 40m/m대공포용 간이 디렉크리(조준장치)의 연구
8. 동 레이더 리모트컨트롤의 연구
9. 방사능에 대한 연구

등으로서 만드다는 식인데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전차의 특징은 디젤을 채용하여 화력을 크게 한 것이다. MSA공여의 M24(22)FP도 어느 것이나 가솔린 엔진인데 가솔린은 인화하기 쉽고 위험하며, 고가이다. 이와 같은 결점을 가진 가솔린 엔진에 비하여 디젤을 채용하면 경유는 동량(同量)의 연료로서 가솔린의 2배는 달린다. 가격은 가솔린의 반가(半價)로서 된다. 그러므로 4분지 1의 연료비로서 된다고 하여, 600마력의 고성능디젤엔진을 장치키로 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미스비시 일본중공업 도쿄제작소에서 시작(試作) 중으로서 내년 중에는 시작 제1호가 완성할 예정이다.

예산계획 현재까지의 경비 2억 9천 145만 엔(809,583\$)으로 1960년까지의 총예산은 29억 4천 107만 엔(8,066,868\$)이며, 미국원조가 있을 경우에는 1956년 이후 일본 측 지출 16억 267만 엔(4,451,861\$), 미국측 지출 18억 7천 80만 엔(5,221,667\$)을 기대하고 1959년까지는 완성할 계획이다.

(C장치 - 일본에서 고안한 탐지기)

보통 수중에서 잠몰 중인 잠수반의 소재는 상공에 미약한 전파교란이 있을 때에 항공기에 장치한 특수탐지기로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전시 키쿠치 리데유끼(菊地秀之) 박사가 착상하여 구 제국해군에서 어느 정도 실용화하고 있었다. 현재 제 외국에서는 실용화되어 있지 않은 듯하고, 일본의 독특의 연구인 듯이 말하고 있다. 기연의 계획으로서는 특정의 파장의 전파가 수중에 투입하는 것과 또한 지중 수중 철괴(鐵塊)의 미치는 상공 전파교란 작용 현상에 관한 정확한 수치자료를 조직적 실험으로서 구하여 이것을 기초로 최적의 탐지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에 적재하는 각종 조건에 대한 성능한계를 확인한 후 제식(制式)기계화로 되는 예정이다(C'라고 하는 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예산계획 현재까지의 지출은 위탁조사비를 포함하여 23만 엔으로서, 완성의 1960년까지의 경비는 9,700만 엔(269,444\$)이다. 또한 이 예산계획은 1956년도 이후 미국의 원조가 있을 경우는 일본 측 6,865만 1,000엔(190,697\$), 미국 측 6억 2,445만 엔(1,734,583\$)이라는 견적이다

특수 경량 터빈 잠수함의 고속화

제2차 대전 말기부터 잠수함의 수중고속력의 요구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 요구에 응하고자 하는 것이 특수경량 터빈의 연구이다. 대전 중은 잠수함의 수중속력이 겨우10노트 정도이던 것을 2배의 20노트까지의 속도로 하기 위한 계획이 여기저기서 연구케 되어 독일에서는 월타 터빈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과산화수소가 고가일 뿐더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또한 최근 진보하고 있는 원자력엔진에 의한 것도 고가로서 일본에서는 생각할 형편이 못된다고 하여서, 이 두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고속력의 동력으로서 특수 경량 터빈에 착안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현재 미스비시 장기(長崎)조선소에서 시작연구중인데 액체산소를 연료로 한 3,500마력의 특수 터빈으로 할 예정으로서 이것이면 600톤급의 잠수함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이 연구는 5,100만 엔이 사용되었다. 1960년까지에는 5억 3천 600만 엔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를 받을 경우에는 일본 측 1억 7천만 엔, 미국 측 지출 3억 1천만 엔으로서 1년간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한다.

호오밍구 어뢰 100억 엔(27,777,778\$)의 연구계획

호오밍구 어뢰는 잠수함과 같이 수중으로 달리는 것과 수상함선에 대하여서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반드시 발사할 때에 정확한 조준이 필요치 않고 반동도 적으므로 소형의 함정에도 장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뢰자체에 내장된 장치로서 목표선을 자동적으로 추미(追尾)(호오밍구) 한다는 것이다. 다시 연구를 추진하여 4종류의 호오밍구 어뢰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 청음방식(G-1)

목표선이 내는 음향을 이용하여 그 목표를 자동적으로 쫓아가서 명중케 하는 패시브 형식의 것으로 이것에는 3차원 추미를 위한 자동조타를 건다.

b. 탐지방식(G-2).

어뢰에서 기름파를 내어 그 반사파를 감지하여 목표를 쫓아가는 액티브 형식을 채용을 채용 2와 같이 3차원 추미를 위한 자동조타를 붙인다.

c. 항적판별방식

목표함이 발생하는 항적 중에 어뢰가 들어왔을 때 항적의 음향적 특성 등을 이용 목표함에 명중시킨다. 물론 이 방식의 경우에도 3차원 조타를 자동적으로 한다.

d. 출함침로방식(G-4)

각종 자동추미 어뢰에 응용하여 명중 공산(公算)을 더할 수 있는 목표함의 미래위치에 향하여 조타할 수 있는 장치

이상 현재까지의 사용 경비는 1억 엔 이상(277,778\$)으로 이 중 G-1이 중점적으로 채택되어 목하미스비시 나가사키(長崎)조선소에서 연구시작 중에 있다. 대단히 어려운 연구로서 1960년까지 수 개의 시작이 될 정도이며 양산(量産)은 61년 이후라고 하고 있다. 총예산은 약 100억 엔이라는 방대(龐大)한 것이다.

예산계획 현재까지의 경비는 G-1(1억 500만 엔), G-2(6,70만 엔), G-3(45만 엔), G4(22만 800엔) 일본 독자의 힘으로 할 경우의 예산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G-1 1,990,500천 엔	1961년 이후 완성
G-2 1,615,700천 엔	1961년 이후 완성
G-3 817,580천 엔	1961년 이후 완성
G-4 587,138천 엔	1961년 이후 완성
공통 4,764,700엔	1961년 이후 완성
합계 9,766,818천 엔(271,295\$)	

미국의 원조가 있을 경우는 일본 측 7억 5천 233만 엔(2,089,800\$), 미국 측 89억 4,100만 엔(24,836,060\$)의 지출이라는 것이 예산계획이다.

소오나 잠음억제 방식 - 수중조신의 거리 증대

최근 잠수함의 수중속력의 증대에 의하여 소오나(探信) 기탐(可探)거리 연장의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탐거리의 해중의 음파가 전도될 때에 굴절 해중의 자연잡음 함정의 항주에 의한 잡음 때문 등으로 현재 각국에서는 수중음파탐기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 4,000미터 정도라는 형편으로서 그 거리의 증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기탐거리를 1만 미터까지 증대하자는 것이므로 여간 될 것 같지도 않다. 1954년부터 연구에 착수한 기연에

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는 64만 2,000엔(1,783\$)이며 1964년까지 7억 3천 325만 엔(2,036,805\$)으로서 완성할 예정이다. 미국 측 원조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측 5,069만 엔(140,773\$), 미국 측 7억 7천 90만 엔(214,138\$)을 각각 지출 1960년까지에 계획을 완성하기로 되어 있다.

제트 중간연습기-제1기는 엔진을 수입

현재 항공자위대의 훈련체형은 T34(프로펠러 일본산), T6(프로펠러 MSA 공여), T33(제트 연습기 MSA공여와 일본산 일부) F86F(제트 전투기 AMS공여와 일부 일본산)의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T34, T33, F86F는 이미 국산화 일본에 착수하였으나, T6의 국산화는 없고 MDAP 공여도 1958년에 중지 될 모양이므로 지급히 대체기를 제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며 제트 중간연습기가 계획된 것이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전투탑승원을 양성하는데 경제적이면서 성능이 우수하다는데 목표가 있다. 그런데 어느 회사가 일본 최초의 순국산 제트기를 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작년 말 신 미스비시중공업, 후지중공업(구 나카시마(中島)비행기), 가와사키(川崎)항공기, 신명흥업(新明興業)(구 가와니시(川西)항공기)에 대하여 방위청이 요구 성능을 제시하고 청사진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금년 7월 후지중공업의 것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는 이 제트기에 TTF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성능은 다음과 같다.

- 승원 2명
- 전폭 10.5m
- 전장 11.985m
- 진고 3.57m
- 전비중량 3,300kg.
- 최고속력 450리(고도 2만 척(呎))
- 실용상승한도 14,300m
- 상승시간 11.1(1만m까지)
- 항속시간 2시간
- 항속거리 614리
- 이륙거리 388m
- 착륙거리 450m

문제는 기체보다 엔진인데 후지중공업이 제작하는 것은 기체뿐이며 엔진은 일본제트엔진 주식회사가 담당하여 목하 시작 중의 J3(추력 1.2톤)을 장치하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J3이 예상대로 완성할지 어떨지 방위청 내에서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1953년 이래 이미 1억 엔이나 정부보조금을 내어서 일본 제트를 응원하고 있는 통산성은 자위대의 연습기에 국산 J3을 채용하도록 극력 주장하는 등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이 통산성의 추진에 별로 찬성치 않던 방위청도 결국은 추종한 셈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J3이 실용품으로서 완성할 때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하여 내년 10월에 먼저 제작될 후지중공업의 기체에는 우선 영

국 프리스돌 사제(製)의 제트 엔진 율휘이스(추력 1.2톤)을 장치하여 비행케 할 계획이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순조로이 가서 1959년(소화34년)경에는 기체와 엔진이같이 국산의 제트기로 서 나올 예정이다.

예산계획 경비면에서는 기체분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3억 엔(833,333\$)이 계산되어 이것으로서 부사중공에서는 2대를 제조할 계획이다. 내년은 4억 엔(1,111,111\$)(4기분)이 계산될 예정이며 엔진은 J3을 3기분 9천 500만 엔(263,889\$), 율휘이스 3기 구입분 1억 2천만 엔(333,333\$)이 할당되어 있다. 현재의 예정으로서는 엔진수입은 일단 중단되어 있으나, 국산일본 J3을 내년 다시 5기 가량 계약하게 되면 1억 5천만 엔(416,667\$)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하여 무용한 경비라는 비난이 있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하여간 시작완료까지에 13억 3천만 엔(3,705,555\$)은 걸릴 것이라고 하니 큰 일이다.

예산계획에 의하면 일본 단독으로 할 경우의 총예산은 13억 3,410만 엔(3,705,833\$)인데 미국의 원조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측 13억 3,410만 엔과 미국 측 10억 9천 750만 엔(3,048,611\$)으로 예정의 1957년 말을 반년 단축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다.

대항공 로켓탄과 그 발사조준장치

현재 항공자위대에서는 미군지도하에 F86전투기의 정비충족을 급히 하고 있는데, 동기의 장비 12.7m/m 기관총 6문으로서는 소련의 중형제트폭격기 IL28(극동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함)에 대하여는 소용 없다하므로 12.7m/m 기총의 대신 로켓을 장치하자고 결정이 된 것이다.

- 가. AAR(Air-to-Air Rocket)
- 형식 개체추진약 로켓탄
- 직경 70m/m 최대
- 전장 1,200m/m
- 작약 1kg
- 정도 사정 3,000미터까지, 50% 산포계의 직경 10미터(천분지 10) 이내
- 속도 1초간에 68미터(연소 종료시)
- 실용최대 비행거리 3,000미터
- 전중량 8.5kg
- 추진약 무연화약
- 신관 착발 근접 시간의 3기능 병유

- 나. 발사조준장치.
- 발사방식 정교착각 발사방식
- 레다 자동추미거리는 10~15km
- 계산장치 ee, δδ에 의한 견월각과 발사까지의 시간을 산정함
- 조준기 브라운관 지시식 Zero method GIC 지시기와 겸용함

또한 경비는 쌍방에게 현재까지 5천 58만 엔(155,055\$)을 사용, 총예산은 1억 8천 500만 엔(513,889\$)으로 1958년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1억 3천 582만 엔(377,278\$), 미국 1억 8천 900만 엔의 지출로 1957년까지는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도탄-위선(爲先) 간단한 공대공(空對空)으로부터

유도탄에는 보통 고사포와 같이 지상에서 비행기를 쏘는 것 지상에서 지상의 것, 비행기에서 지상의 것을 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연구 시작코자 하는 것은 공중에서 공중을 쏘는 공대공의 것이다. 그것도 비교적 간단한 시동형 공대공유도탄인 것이다. 이것은 완만한 시동을 줌으로서 탄도가 정하여지며 발사초기의 유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제작비도 염가이며 장치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경비는 40만 엔(1,111\$), 1961년까지는 3억 6천 130만 엔(1,003,611\$)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원조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측 1억 3천 90만 엔(363,611\$), 미국 측 4억 7천 400만 엔(1,316,666\$)의 지출계획으로 1959년 말까지에는 완성하고자 한다.

고 마력의 선용 가스터빈

방위청이 1954년(소화 29년)도 이래의 예산으로 건설 중인 잠수함에 탑재하는 5,000 마력의 부스터 가스터빈은 처음으로 일본서 제작하는 고마력의 선(船)용 가스 터빈이라고 하므로 안전제일을 위주로 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용량, 용적, 기타의 점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서는 성능의 향상을 목표로 한 고급의 가스 터빈을 시작해야 한다하여, 이 연구 시작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작기(試作機)는 주로 연료기와 공기압축기의 경량소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온도를 높이고 연료소비율을 좋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연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작기와 완성 1번 기의 주요한 성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출력	연료소비율	전량	전중량
시작기	5,000마력	360gr/SHP/hr	5.5M	7Tons
1번기	5,000마력	400	5.8M	10Tons

또한 이상의 요구 성능을 내기 위하여 좌기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1. 환상(環狀)연소기
2. 12단축류 공기압축기 압력비 5.5
3. 공기압축기에 경합금재료를 사용
4. 가동용 가스터빈의 사용
5. 가스 온도 800도(섭씨)

예산계획 현재까지 연구에 사용한 금액은 4,000만 엔(111,111\$)인데 1958년까지는 합계 1

억 8,000만 엔(500,000\$)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원조를 기대할 때의 계획으로서는 일본 측 1억 4,000만 엔(288,889\$), 미국 측 1억 5,000만 엔(416,667\$)으로 1957년까지는 완성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영격(迎擊) 시물레이터

GM(유도탄) 원수폭 제트기 등의 병기는 지금부터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아마 인기적인 병기로 될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기를 연습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전연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기로 한다면 이야말로 연습지의 선정과 비용이 큰 문제이다. 우선 일본에서는 무리이다. 그러나 근대전의 인기병기에 대한 연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 시물레이터인 것이다. 시물레이터는 제트기의 비래(飛來) 유도탄의 발사 등을 실전과 같이 지상의 기계장치로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인데 교육 연습용에는 불가결의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기연이 바라고 있는 시물레이터는

1. 아방기 조종장치 2. 기상 사격 조준장치
3. 적기 조종장치 4. 위치 계산장치
5. 레이더 시물레이터 6. 상대위치 계산장치
7. 지휘 계산장치 8. 사격판정장치
9. 각종 기록장치

의 9종류로 되어 있고, 이 기계를 움직이면서 어떤 일정 시에 있어서의 피아의 동태를 정확히 포착 공격방어의 연습을 행하는 것이다.

즉, 구군대의 도상작전의 근대적 오토메이션 장치인 것이다.

예산조치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이 연구 시작비는 3천 220만 엔(89,444\$)이며 이 기계 완성 예정의 1960년까지는 합계 3억 3천 926만 엔(1,053,500\$)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의 원조가 있을 경우의 당국의 복안은 일본 측 1억 3,606만 엔(377,944\$), 미국 측 2억 4천 300만 엔(591,667\$)이다. 이상 방위청이 MWDP의 원조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제부터 최종점 연구항목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였는데 이 외에 ZC 엔진이 있다. 이것은 이미 소개한 바도 있으므로 생략하였는데 방위청에서는 2,000마력의 것을 미스비시 일본중공에서 1대 1,300만 엔(36,111\$)으로 12기 계 5억 1천 600만 엔(1,433,333\$) 분을 구입하고 있고, 이제부터 앞으로의 분으로서 3,000마력 최고수준의 것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상의 신병기 연구계획과는 별도로 미군에 요청하는 공여병기의 리스트를 재일군사고문단에 제출하였다. 리스트 중에는 나이키, 데리아, 스파로 등 미군에서도 기밀로 하고 있는 유도탄 7~8종을 위시하여 후지산 등의 미군기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자로켓 '오네스트 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안 중이던 스위스 에리곤 사의 대공유도탄 다이프 56의 구입계획도 추진하여 1956년(소화 31년)도 1억 6천만 엔(444,444\$) 32년도 1억 9천만 엔(527,778\$)의 예산계획을 더욱 확충하여 GM 연구를 주요한 것의 하나로서 크게 해보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끝)



나의 공군시대(空軍時代)

현승중(玄勝鐘)

참으로 거창한 제목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된다. '나의 공군시대'라고 하면 그래도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렇다 할 별 공적도 없었고 그렇다 할 큰 공적도 없었으니 이런 글을 써야 할 나의 처지가 가련해진다. 그저 기억에 남는 것 이라고는 잔잔한 물결의 연속 밖에는 없었으니 그것이나마 그려내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는 있을 리가 없다. 이럴 때마다 나의 평범한 성격과 행동이 언제나 한 없이 한탄된다.

나의 공군시대는 공군의 염라대왕 직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속적으로는 남들이 '뾰다구왕'이라고 부르던 직업이다. 가장 엄숙하고 고귀한 임무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내 남편, 내 아들, 내 동생을 잃은 유가족들의 애끓는 슬픔에 접할 때마다, 나 자신 일종의 죄인이 되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위로의 말을 하느라고 애를 써야하는 것도 좋은 일은 못되지만 유골함을 만지고 때로는 유골 그 자체까지도 손에 대야하니 처음에는 아주 꺼림칙한 노릇이었다.

제2차 육해공군 합동추도식 때라고 기억된다. 식일이 가까워서 영현을 모시고 식장인 부산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급작스러히 유골함의 규격을 일정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 모든 유골을 그 규격에 맞는 새 함에 옮기게 되었는데 시간은 없고 사람의 손은 모자라고 하여 덤비는 판이라, 나도 한 몫 끼어 그 작업을 시작하였다. 유골이라고는 처음으로 손에 대어보는 셈인데 조심조심 새 함에다 유골을 옮겨 모실 때, 그 가루가 날아들어 그것을 여지없이 마셔버리고 말았다. 그 후 얼마동안은 목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만 같던 기억이 새삼스러이 난다. 이런 일이 몇 번 있는 다음부터는 유골함을 보아도 심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빈 함 같은 것은 사무실에 쌓아놓고도 무감각하게 지냈다. 일종의 서류함을 놓아두었음과 마찬가지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상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한 때는 나의 사무실에서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었다. 적어도 XX국 사병들은 밤에 혼자서 그 방에 드나드는 것을 아주 꺼려한다고 듣고 혼자서 고소를 금하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나의 공군시대의 물결의 한 토막이다. 그 방에도 이런 토막토막을 그리자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적을 생각은 없다. 다만 공군시대를 청산하여 볼 때 후회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공군에 복무한 3년 8개월을 통하여 적어도 직접 내 밑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에게 한 번도 큰소리를 치지 않고도 능히 임무를 수행하여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무슨 일을 하였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더듬어보는 한 큰 소리를 지르며 일을 시킨 일은 전연 없는 듯하다.

아마 처음에는 한꺼번에 대위의 계급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군대에 익숙하지 못한 탓으로 그랬는지도 모른다. 또 분에 넘치게 신입자가 대변에 과장 자리에 앉기는 하였으나 군의 행정업무에 낯선 탓으로 큰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하나, 이유는 어찌하였던 간에 밑에 있는 사람을 내려눌러서 밑의 사람으로 하여금 타율적으로 일을 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느라 시초에는 다소 고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밑의 사람이 하지 않으면, 또는 밑의 사람이 바빠서 미처 못하면 아무리 기계적인 일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내 자신이 하였다. 그것이 무슨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었고 또 불평을 품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고함이라도 지르면서 강압적으로라도 시키고 싶다는 기분을 가지면서도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내 자신이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일은 나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할 일이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지 하는 지극히 가벼운 생각에서 내 자신이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누가 무엇이라고 하지도 않았건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간단한 문구로 표현한다면 소위 솔선수범이라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솔선수범에는 몇 가지 요소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아무리 위에 있는 자가 자진하여 먼저 모범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아마 밑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따라서는 되지도 않을 일이다.

적어도 그것이 모범이 되려면, 그 모범은 옳아야 할 것이고 바러야 할 것이다. 옳고 바른 모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 귀감은 부러지어서 만든 귀감이 아니라, 자기의 본심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옳고 바로고 착한 모범이라야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군에 복무하던 시절의 나의 태도였다. 물론 내가 현실적으로 그 귀감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사실상 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내가 그리는 군에서의 하나의 이상으로서의 태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상이 어느 정도로 현실에 접근하고 있었든가는 큰 의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큰 허물없이 지낸 것을 보면,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자위를 하여볼 따름이다.

방향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자위할 정도나마 되었던 것은 결코 나의 탓은 아니었다. 나 같은 무위무능의 허수아비 밑에서도 조금도 싫은 얼굴을 짓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들여주던 분들의 바탕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참으로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의 모습은 내 기억에서 사라질 줄을 모른다.

임관 이래 오랫동안 근무하던 XX국을 떠나서 국방부로 자리를 옮기게 된 때의 일이다. 다년간 오부숙하니 조그만 가족을 이루었다고 자처하던 곳을 떠나려고 하니, 더욱이 그 동안 정들은 과원들과 막상 작별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몹시 서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과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낌이었던 모양이다. 밍턴 곱던 얼마동안 같이 일하던 과장이라고 하여 송별연을 베풀어 준다기에 서슴지 않고 참석하였다. 장소는 어떤 조그만 음식점의 2층 좁다란 방이었다.

나온 음식이라고는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모아서 사놓은 것이니 그리 좋을 것은 없었다. 그러나 정성어린 음식임에는 틀림없었다. 또 그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과분한 향연이었다.

보내는 인사, 가는 인사가 끝난 다음 한 두 잔의 술이 돌아가자 그만 좌석은 보내는 설움, 가는 설움으로 마치 초상집 같은 울음판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군인이 눈물을 흘려서 될 일은 아니지만 다감한 인정은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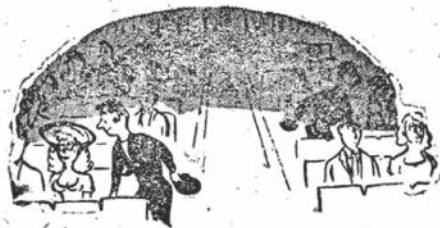
(103면으로)



海外漫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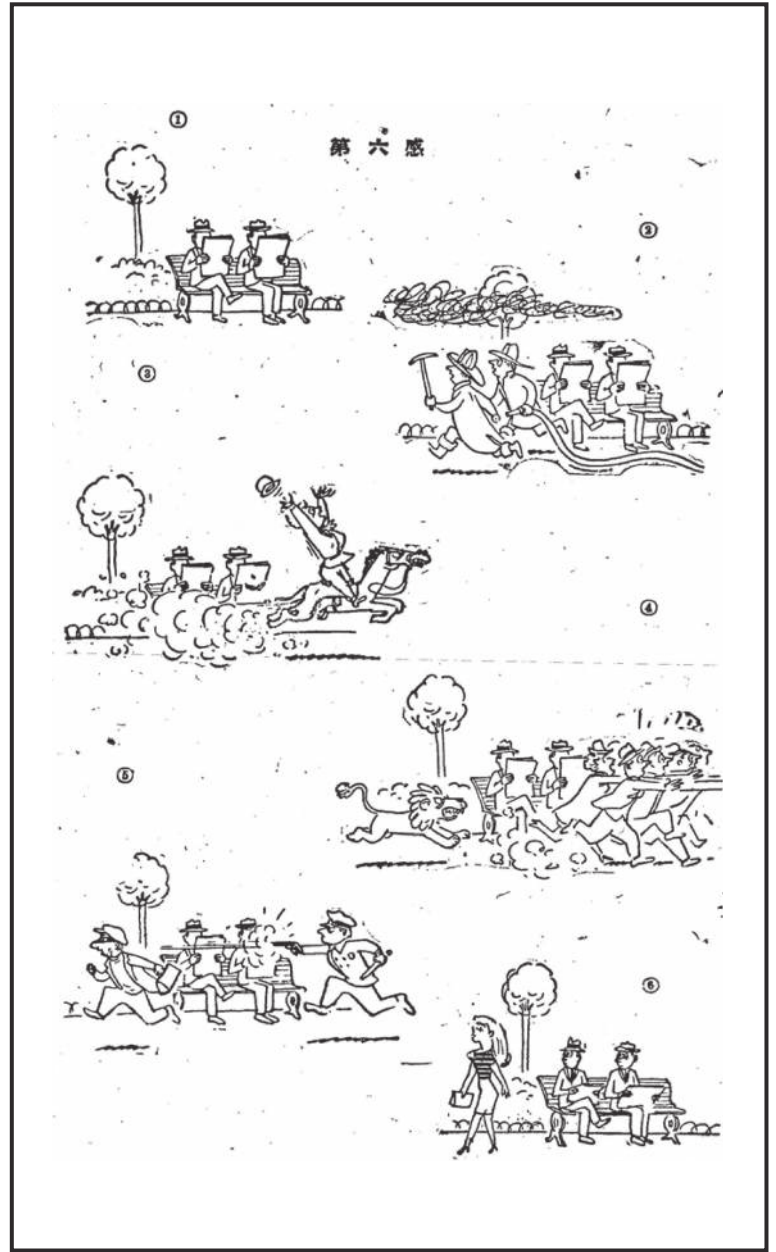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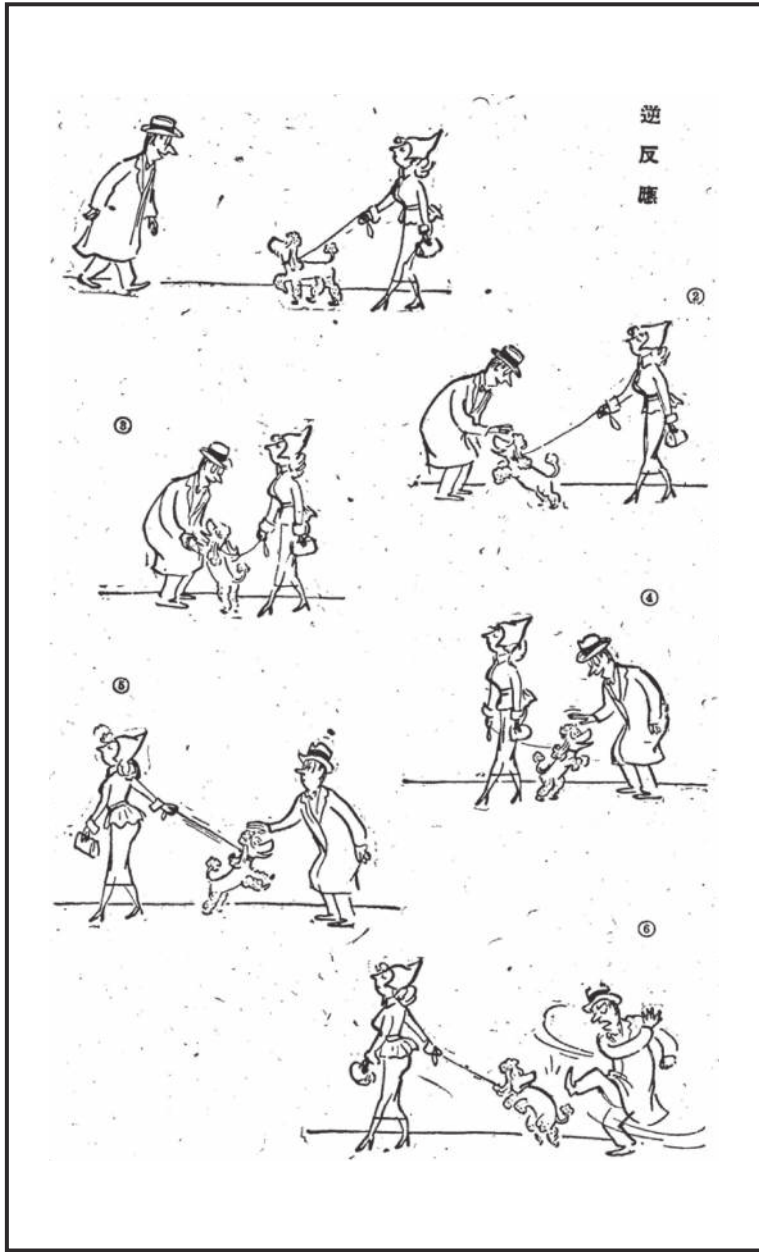


遊園(若)



遊園(若)







조종사(操縱士)의 아내

김태희(金泰熙)

펜을 들어본지가 너무나 오랜 옛날처럼만 느껴지는 평범한 저에게 ‘조종사의 아내’라는 원고를 쓰게 하는 무리함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공포마저 느낍니다. 글썩요.

보통사람보다 색다른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등 별다른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고 무심히 지나고 있는 지금이기에 새삼스럽게 내 생활을 파고들어 보면 역시 하나의 실없는 짜증으로만 그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사람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생활 속에서는 쉬이 권태를 느끼지만 몇 날이 지난 후 지난날의 그 권태로움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를 뼈아프게 느낄 수 있듯이 항상 내 몸 가까이 그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생활 속에서 고락을 함께 할 수 있기에 남들처럼 새삼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요. 예민한 신경과 민첩한 감성으로써 남편을 돕고 받들어 나가는 것은 비단 조종사의 아내만이 가지는 본분이 아니겠지만 보통 지상근무를 하는 일반인보다 오히려 공중근무에 시달리는 그와 함께 생활하기란 적지 않은 신경을 써야하는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나 살림살이에 자질구레한 불만을 마음 놓고 터놓지 못 함도 오로지 순종과 인내를 주축로 하루하루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야함은 남편의 정신적 노동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무한히 크고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그들에게는 가정이란 테두리가 좁고 답답하게만 여겨짐도 무리는 아닌 줄 짐작합니다. 일견 무질서한 듯한 그들의 생활도 너무나 굳게 이루어진 전통과 금지에서 오는 변형일 것이며 이것이 남들과 다른 성격을 형성해 내는 요소가 아닐는지요.

호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담백하고 쾌활하면서도 때로는 진실에 울 수 있으며 정의와 신의를 생명처럼 중히 여기며 남자이면과도 가냘픈 정에 이기지 못하는 열정적인 그들이기에 인간본성 그대로의 표현을 아낌없이 펴보는 듯 가슴 찡찡한 흥분을 느낍니다.

지난 날 그 어떤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 어쩐지 Pilot이란 어귀가 무척 맘에 들어요. 어떤 이는 막 면도하고 난 젊은 남자의 파란 뒷덜미에 매력을 느낀다지만 그러한 감정과 흡사한 매력을 조종사

에게서 느낄 수 있어요.”

그 후 이 아가씨는 그렇게도 매력을 느낀다면 Pilot으로부터 떠나고 말았습니까. 단순히 Pilot이란 어귀에게만 매력을 느꼈기에! 조종사의 깊은 참 마음과 인간성에 부딪쳐보지 못했기에!, 또한 그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짓씹어보지 못했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만치 빠른 속도로 권태를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그들의 진심에 부딪쳐보고 또 조종사의 생활이 그 얼마나 곡예적인 위태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감히 그들을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지만 조종사의 생활 속에서는 즐겁고 기쁜 일보다 불안한 예감에 온 종일을 초조하게 보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3년 전 남편과 다정히 지냈던 K 대위의 불행한 통고가 있었을 때에 그 원통함과 슬픔은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때의 이 슬픔과 흐느낌은 비단 K 대위 개인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조종사의 아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애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갈 때마다 신경이 무디어 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감은 어쩔 수가 없군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주부로써 불안과 초조한 생활보다 평온하면서도 변동은 없으나마 오붓한 살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종사의 아내 역시 다정다감한 여자가기에 그 어떤 자극적인 생활보다는 그저 담담하게 지날 수 있는 행복이 늘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종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생활이 남보다 월등하다는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는 모순 속에 태연히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낍니다만 이 모순된 감정이 바로 조종사의 아내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도 황혼이 깃들면 한껏 피로해진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남편을 오붓한 분위기와 따뜻한 마음씨 로 포근히 감싸듯 맞아드려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여주는 그때만이 가장 행복 된 시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살림살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불안과 불만이 있고 외로운 날이라 하더라도 이 환경에 뛰어난 것을 조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화 속에서 넘치는 젊음을 보고 느낄 때 그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현재를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생활 속에 권하여 맞아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하늘에서는 내일을 위해 자기를 수양하는 넓고 푸른 도장을 맘껏 달리는 젊음이 임을 봅니다. (끝)



<지성배우(知性俳優)>
잉그리드 버그만

빌 데이슨

뉴욕 영화평론가협회에서는 1956년도 최우수여우(最優秀女優)로서 잉그리드 버그만을 선정하였다. 그러면 할리우드를 떠나 8년 만에 미국영화 '아나스타시아'에 출연하는 그의 심경(心境)은?

그 누구 보담도 훌륭한 감수성과 총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 여성 그가 바로 잉그리드 버그만이다. 남편과 가정 그리고 할리우드에서의 명성,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탈리아의 명감독 로셀리니의 아내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화제가 된 것은 몇 해 전 1948년 여름의 일이었다.

“사랑은 폭탄보다도 무서운 흉기(凶器)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파괴해버린다”고 다닌씨오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시인의 말에도 예외는 있다. 잉그리드 버그만의 정신은 파괴되지 않았다. 아니 이 쓰라린 인생의 시련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역세게 만들었다. 얼마나 심한 양심의 가책에 고민하였던가, 그것은 오직 그 여자만이 알고 있다. 사랑의 열매는 시다고 한다. 쓰다고 말 할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 여자의 경우는 그 무엇에도 굽하지 않는 역센 의지와 단호한 행동으로 마침내 승리의 꽃이 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모두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의 버그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인 것이며 또한 미래인 것이다. 8년 동안 부군 로셀리니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일 해온 그는 지금 다시 오래간만에 미국영화에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폭스사가 40만 불의 영화화권(映畫化權)을 투입하였다는 브로드웨이 의 히트극 아나스타시아에 그는 살해된 러시아 황제의 딸이라고 자칭하는 아나스타시아의 역으로 나온다. '버그만, 미국영화로 다시 돌아오다'의 뉴스는 전 세계의 영화팬과 저널리즘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눈은 일제히 이 영화 촬영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아나스타시아는 대부분 런던에서 촬영되었다. 그리고 버그만이 런던에 있는 동안, 로셀리니는 그로서는 최초의 영국영화 「씨이와이프」(존 코린즈, 리차드 버어튼 주연)의 로케를 위해서 자메이카로 가 있었다. 그런데 그 촬영을



<어린 소녀 버그만 아버지와 함께>

영을 개시하기 직전에 각본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로셀리니는 감독을 사퇴하고 런던으로 돌아왔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나는 버그만을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인터뷰를 승낙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지난 8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 장소는 런던의 어느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 저쪽에 앉아있는 그는 8년 전과 조금도 다르없이 아름답고, 젊고 맑은 눈은 건강과 만족감에 빛나있었다. 그는 먼저 로셀리니의 돌연한 런던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끄냈다.

“남편은 완성된 각본 그대로를 따라서 일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는 그때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대사나 역할을 변합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몹시 싫어하지요. 나도 처음에는 그의 수법(手法)에 약간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한, 우수한 이탈리아 영화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연기를 하는 사람 즉 배우보담도 그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로셀리니의 일에 대한 그의 비평에는 세계적인 대감독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아내로서의 자랑과 존경의 념(念)이 숨어 있었다. 그가 이때까지 몇 해 동안이나 수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출연을 거절해 온 것도 그것이 로셀리니와 함께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급사가 가져온 빵은 거절하고 달걀을 조금 들었다.

“아니예요, 별로 감식(減食)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먹어요. 그렇지만 이탈리아 요리에겐 조금 질렸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탈리아 요리만 먹게 되니까요.”

“네, 어린애들 말씀이지요? 글썄요, 애들(여섯 살의 르벨티노, 네 살의 쌍둥이 이 사베라와 잉그리드)과 떨어져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들만 남겨둔다는 것은 가엾게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모처럼 좋은 계절을 런던의 호텔에서 가두어 둔다는 것은 더욱 가엾잖아요. 썬타 마리네라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후거든요. 남편과 나는 매일 밤 같이 어린애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애들에게 날마다 전보를 치도록 일러놓았지만 아직 어리니깐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전보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나 하고 무척 걱정합니다.”

입술연지 이외는 메이크업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버그만의 얼굴에 웃음이 떠

오르니 저녁노을이 다가온 레스토랑의 방안은 갑자기 환해진다. 생각하던 것보다 말랐지만 할리우드에 아직도 전설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의 아름다움은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 왼손의 약손가락에 낀 결혼반지가 번쩍거렸다.

할리우드를 떠나간 이후 버그만이 로셀리니 이외의 감독 밑에서 일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째는 장 루노와아르 감독의 프랑스 영화 「붉은 카네이션」인데 작년 봄의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로셀리니 자신의 열렬한 권고가 없었던들 그는 아마도 출연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다. 루노와아르는 로셀리니의 옛 친구이며 세계적인 명감독이고 이 영화의 스토리는 버그만과 로셀리니에게 다 같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이나 계속해서 그가 다른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게 되자 곧 이러한 소문이 떠돌았다.

버그만은 이제 다시는 로셀리니와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른 것이 아닐까? - 이에 대해서 버그만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마 내년에 로베르트와 함께 하나 촬영할 것입니다. 「붉은 카네이션」이 나의 마음에 든 것을 알고 그는 이번에는 코미디를 해 볼 생각입니다. 로베르트는 희극(喜劇)은 처음이지만 반드시 재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따로 따로 한다고 들으니 세상에서는 곧 두 사람의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다. 둘은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여야 하고, 터무니없는 억측이나 소문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제나 상냥한 로셀리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처와 나는 행복합니다. 일을 하는 데에도 모든 것이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따로 일을 한다는 것도 그건 긴 생활에서는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따로 따로 일을 한다 - 이것은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비길 데 없는 청량제이다. 때로는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 재평가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로셀리니 부처와 가까운 한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잉그리드와 로베르트는 서로 사랑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물론 성격의 차는 있다. 이를테면 여기에 벽돌담이 있다. 로셀리니는 그 벽을 돌아간다. 잉그리드는 그 벽을 뚫고 나간다. 둘 다 저 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언에도 불구하고 하치않은 것으로 곧 소문이 떠든다. 정말 세상이란 귀찮은 것이다. 작년 봄, 칸느 영화제의 카테일파티에 잉그리드는



남편 「롯데리니」와 함께

혼자 출석하였다. ‘버그만, 로셀리니와 이혼?’이라는 가십이 곧 퍼졌다. 잉그리드는 로마로부터 기차로 왔고 로셀리니는 그가 애용하는 스포츠카로 그 뒤를 따라왔던 것이다. 버그만은 애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없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문을 일소하는 좋은 실증을 또 하나 소개한다. ‘아나스타시아’의 의상주문 때문에 그가 로셀리니를 런던에 남겨두고 파리에 가게 되었을 때 일이다. 그는 또다시 터무니없는 소문이 날까봐 이 두 도시를 하루 걸러 왕복하였다. “나는 탈 것에는 익숙해요. 침대엿 보담도 잠이 잘 온답니다.”하고 그는 웃지만……그리고 로셀리니도 자기의 제작의 일을 연기해서까지 아나스타시아의 「파리」로케에 동행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나는 셋트로 아나스타시아 촬영 중의 버그만을 방문하였다. 마침 휴게시간이어서 그는 공연자인 울 브리너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메이크업을 한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평소의 아름다움과 젊음은 찾아보려야 찾아 볼 수 없고 움푹 파인 볼, 고달파 보이는 눈, 완전히 딴 사람이었다. 만약 언제나 변함없는 그 명량한 웃음이 없었던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곧 리트백 감독이 알려 와서 세트 앞에 선 그가 스타트의 신호와 함께 하는 일거일동과 포정은 이미 버그만이 아니었다. 니콜라스 황제의 딸 아나스타시아 공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세트안은 조용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바삭 하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마침내 “카트!” 주위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잉그리드는 천부(天賦)의 재능을 가진 여배우이다. 그와 같은 배우는 그리 흔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레타 가르보 이래의 명배우인 것이다. 어떠한 역할이라도 당당히 해낸다. 그것은 연기력이라는 것을 초월하고 있다. 하나의 대사, 하나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역할 속의 인물 그대로인 것이다. 완전히 그 역할의 인물이 될 수 있는 여배부 그것이 바로 버그만인 것이다. 이와 같이 루노와아르 감독도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그 역할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역할의 인물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버그만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아의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책을 한 번도 읽은 일이 없습니다.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짓을 하면 오히려 나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나스타시아니까요.

이 말에서 그가 뿔내고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버그만의 피(血)는 아나스타시아의 피인 것이다. 어떠한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을 때 배우에게는 오직 한가지의 할 일이 있을 뿐이다. 그 역할을 그 역할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잉그리드는 아나스타시아 그 사람인 것이다. 루노와 아르는 그를 천부의 재능을 가진 여배우라고 하였다. 그렇다. 잉그리드 버그만의 배우로서의 재능, 위대한 배우가 될 피는, 이미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체내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열두 살 때 이미 나는 여배우가 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한다.

고향인 스웨덴에서 보낸 소녀시절은 고독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가 아직 난아이였을 때 죽었으며 아버지는 그가 열두살 때 세상을 떠났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겁이 많고 자기의식이 과잉(過剩)한 소녀였다. 특히 키가 남달리 컸기 때문에 그것을 몹시 고민하고 있었다. 주로 시나 소설을 읽고는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자기라고 가장하고 자기만의 연극을 즐기곤 하였다. 열두 살 때 스톡홀름의 극장을 구경한 그는 자기의 장래를 뚜렷이 결정하였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배우를 그만두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아내로서의,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위대함,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일보(一步)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정직함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장 루노와아르는 말하고 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나의 「프렌치깡깡」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상세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솔직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비평이라 할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는 말하자면 똑바로 곧은 강철(鋼鐵)의 칼이다. 절대로 굽히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완고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의 정직함, 자기의 마음에 대한 정직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버그만이 거칠고 차디찬 여성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아나스타시아의 감독 아나톨리 리트백이 촬영 첫날 세트의 자기 의자에 앉으려고 하였다. 그때 버그만은 바로 그 옆에 조그마한 사다닥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농담을 하였다. “리트백 씨 이 위에 올라가서 저를 감독할 작정이세요?”

5피트 8인치라는 그의 키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보통 그는 러브신이나 그

밖에 신에서 상대역과 나란히 설 때에는 구두를 벗는다.

「붉은 카네이션」에서는 공연의 멜 퍼어러가 충분히 6피트는 되기 때문에 맨발이 되지 않아도 좋았지만 이러한 일은 드물 정도이다.

여기에서 그는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면

“나로서는 일을 할 때가 휴가와 같은 것이랍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친구들이 차(茶)나 물건사기나 혹은 파티에 초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거절할 구실(口實)도 서지 않구요……”

그러한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바쁜 것을 좋아 하는 것 같다.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다. 현재 아나스타시아의 촬영과 동시에 파리에서 상연될 「차(茶)와 동정(同情)」에 출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출연뿐만이 아니다. 영어의 각본을 프랑스말로 번역하는 것이나 무대장치 혹은 의상에 대해서도 의논을 받는다. 대체로 미국의 연극이 프랑스에서 성공한 예는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는 꼭 성공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프랑스 말이 좀 더 똑똑해야 될 텐데……”하고 말하자면, 천만에 그의 프랑스 말은 훌륭한 것이다. 영어나 이탈리아 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소 스웨덴 사투리가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일만 하고 있으면 배우에게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중과의 접촉이 무엇보다도 즐거우며 영화의 일을 위해서도 무대의 수련(修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무대라면 영화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과 마음 놓고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올 겨울에는 마음껏 애들과 함께 놀려고 합니다. 네, 애들은 파리의 학교에 넣고 싶어요. 적당한 아파트를 골라서, 아니요, 호텔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부엌이 없는 것이 불편하지요. 역시 애들에게는 가정적인 식사를 해주고 싶어요.

애들의 이야기를 할 때의 잉그리드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듯하다. 작년 겨울 파리의 호텔로 그를 찾아갔을 때 로셀리니의 전처(前妻)의 애를 합해서 어린애 넷이 부모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즐기고 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20세기 폭스에서는 아나스타시아의 공개를 맞이해서 그를 미국으로 초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올 겨울이면 「차(茶)와 동정(同情)」의



아들 「로베르티노」, 쌍둥이 「이사벨라」와 「잉그리드」와 함께

관객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하고 그는 웃었다.

폭스가 1957년도의 아카데미상을 노리고 「아나스타시아」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니 “그것은 훌륭한 일이군요!”하고 소리쳤다. 할리우드에 대한 악의 같은 것은 조금도 느낄 수 없다. 정말 명량한 웃음이다.

그가 로셀리니 이외의 감독의 작품에도 출연한다는 것이 뚜렷해진 오늘날 할리우드에서는 버그만 주연의 영화를 제작하려고 애쓰고 있다. 파라마운트에서는 브로드웨이와 런던에서 크게 히트한 초크가든에 그를 끌려고 하고 있으며 루노와아트도 될 수 있으면 할리우드에서 다시 한 번 그와 함께 일할 것을 원하고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여하론 차와 동정이 문제입니다. 한주일로 끝나게 될지 룡련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겨울은 경기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리의 극장의 출연료는 싸니깐요.”하고 그는 웃었다.

잉그라드 버그만의 길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숲속을 지나 이제 밝은 희망의 길에 나온 것이다. 그가 다시 제2의 고향 할리우드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앗참, 너무 시간이 소래 되었어요…… 지금 나는「차와 동정」의 번역자와 같은 아파트에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정한 악수,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가 나간 후의 방안은 마치 공기가 빠진 것 같은 쓸쓸한 것이었다. 그 따뜻한 손과 그 명량한 얼굴을 나는 다음에 할리우드에서 그를 만날 때까지 고이 간직 하리라.

(끝)

영국(英國) 로켓탄(彈)

롯데 출현(出現)

영국의 브리스톨 비행기제작회사와 브리스톨 항공엔진회사에서 제작한 신병기 탐 제트 로켓탄 ‘롯데’의 실험이 남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메라 실험장에서 해하여졌다. 롯데의 특징은 고공으로 향해 발사한 후 파라슈트의 자동장치에 의하여 느린 속력으로 하강하고 재차 사용할 수 있는 점에 있다고 한다.



→ 사진은 롯데가 파라슈트로 하강하고 스파크를 이용하여 안착한 장면

은막(銀幕)위의 시(詩)



이태리영화(伊太利映畵)의 신사실주의(新寫實主義)

이태리영화계의 신사실주의란 무엇이나? 영화평론가들은 이 새로운 경향에 찬사를 보내고 미국의 감독들은 이를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이 신사실주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신사실주의 감독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빗토리오 데 시카 씨가 인터뷰 석상에서 이에 관해 말해주고 있다. ‘슈사인 보이’, ‘자전차도적’, ‘밀라노의 기적’ 그리고 ‘움베르토 D’를 감독한 데 시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사실주의란 은막 위의 시(詩)다. 이는 인간상호관계를 서정시 같이 표현한다. 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

불란서 감독 르네 크레이 씨는 신사실주의를 뉴스 보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신사실주의는 참된 인생을 은막 위에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그 위에 달콤한 수식을 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작품은 아마추어 배우들을 상대로 제작되는 수가 많다. 흔히 생각하듯이 대본 없이 자유로이 제작되는 것이 신사실주의는 아니다. 도리어 나는 정성스럽게 쓰인 대본을 사용한다. 일부 인사들은 신사실주의 영화는 제작비가 덜 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으며 일반 영화와 같은 비용이 든다. 일부 배우가 아닌 신인배우를 등장시킴으로써 우리는 참된 진실과 성실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작품이지 제작비가 아니다. 우리들 신사실주의자들은 우리들의 독자적인 표현법에 관한 문제를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운이 좋았다.

그러나 이태리에서 제작되는 영화 중 신사실주의에 속하는 것은 백본 중 겨우 4, 5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아마도 이제 우리들은 할리우드를 모방하는 영화제작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할리우드의 부력(富力)과 배우들과 촬영소와 방대한 소비시장과 맞서서 경쟁할 수는 없다. 신사실주의는 우리들만의 분야다.

데 시카 씨는 신사실주의 영화 제작이 힘들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이태리 영화계는 10명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이끌어나가고 있다. 즉 레나토 카스테라니, 루치노 비스콘티, 로베르토 룻세리니, 루치아노 에메르, 페데리코 페리니 등등이라고 말하였다.

약바르게도 데 시카 씨는 10명을 다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남의 도전을 피하였다.



지붕(IL TETTO)

데 시카 감독(監督)의 신사실영화(新寫實映畵)

세자레 자밋티니 원작(原作)

박용화(朴龍華)

☆ 결혼식(結婚式)

교회의 앞뜰에 여러 사람들이 뛰어 나왔다. 방금 결혼식이 끝난 가족들이다.

“자, 사진사, 어서 찍어주구려. 나허구 루이자허구,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이렇게 말한 것은 신랑인 청년 나탈레다. 곁에서 신부인 루이자가 새 하얀 결혼의상을 입고 미소를 띠고 있다.

젊은 두 사람은 이 로마의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겨우 오늘에야 숙망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여기서 식이 끝나면 곧 지금부터 나폴리 근처와 해변촌 빠루라치아에 있는 루이자의 부모의 집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사실을 말하자면 루이자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결혼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젊은 것이다. 장래의 희망을 잘 말해서 세복하면 반드시 들어 줄 것이다. 여하튼 식은 올렸으니까 나탈레의 가슴은 희망에 가득차 터질 것만 같았다.

이어서 미리 말해놓은 택시가 왔다. 나탈레는 신부의 영태이를 밀듯이 차안으로 몰아넣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올라탄다. 어물거리다가는 바다로 가는 버스가 출발해 버린다. 그러나 택시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창문의 안밖에서 여자들이 아직 작별을 섭섭히 여기고 있다. 루이자가 지금까지 하녀로 일해오던 바이 소령 부부가 오늘은 축하를 하러 와주었다. 루이자는 자기가 떠난 후의 하녀로서 친구인 지이나를 추천하고 가야만 한다. “아주머니 지이나는 나보다 일을 잘 한다유.”

“알았어요. 루이자도 가끔 놀러 와줘요.”

“.....”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택시 안에서 루이자는 곧 새하얀 결혼의상을 벗어버리고 속옷 바람으로 되었다. 아니,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결혼의상은 세를 얻은 것이었다. 그는 좁은 좌석 안에서 겨우 양복을 갈아입었다.

“어머니, 이 옷을 잊지 마시고 일곱 시까지는 돌려보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루치를 더 내야만 하나까요.”

거기까지 세세히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제부터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두 사람의

생활.

- 겨우 두 사람은 버스의 발차시간 전에 닿았다. 좌석은 벌써 만원이어서 앉을 자리마저 없었다. 여하론 여기에서 나탈레의 부모와도 헤어져 겨우 단 둘이만이 되었다. 단 하룻밤의 신혼여행. 오늘 밤은 루이자의 부모의 집에서 자고 내일 밤은 또 이 로마로 돌아오지만 그래도 즐거운 신혼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허락받지 못하는 남편

해변의 마을에서는 루이자의 어머니가 말없이 두 사람을 맞이하였다. 무엇인지 귀찮은 듯한 표정이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하고 물으니 “바다에 갔단다. 아버지는 몹시 역정을 내고 계시단다.”하고 대답한다. 완고한 남편과 가련한 딸의 틈에 끼어 이 불상한 어머니는 힘없이 보였다.

아버지는 정말 노하고 있었다. 로마로 내보낸 딸이 아무런 장래성도 없을 것 같은 청년과 결혼하는 것이 몹시 마땅치 않은 것이다. 그는 바닷가에 나온 두 사람을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대로 그는 바다로 고기잡이하러 나가버렸다.

집에 돌아와 루이자는 열심히 어머니를 세복하였다.

“자, 나탈레는 지금은 벽돌을 쌓는 견습공이지만 하루에 천리라 받고 있는걸요. 곧 버젓한 직공이 되면 한 시간마다 40리라가 볼거든요. 집에도 돈을 보내 드리겠어요.”

“애, 그렇지만 직공이면 비가 오면 헛 탕 아니냐? 저기예다가 어린 것이나 생겨봐라. 그만이지.”

“어머니두 참. 우리는 애기는 좀 더 기다리기로 약속했어요.”

“.....여하튼 좋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쉬도록 해라. 내일에는 아버지가 고기잡이에서 돌아오실 테니. 그때까지는.”

☆ 이것이 신혼여행?

이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루이자의 어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다시버스를 타고 로마로 돌아왔다. 교외의 길가에는 새로운 고층 아파트가 자꾸만 서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탈레의 일터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그들의 힘으로는 그러한 곳에 살 수 없다. 그들이 살 곳은 나탈레의 부모의 집이다. 양친 이외에 누이내외의 식구도 함께 살고 있는 방 둘에 도합 아홉 식구의 복잡한 가정이다. 정말 루이자는 와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낡아빠진 돌집의 좁은 방 둘에다가 침대도 부엌도 변소도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나탈레의 집이다, 이것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집이다.

누이의 애들이 감기가 들어 누어있고 울면서 야단법석이다. 그러한 참태의 하나를 “이것이 우리의 잠자리야”하고 가르쳤을 때 루이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

하고 말했다.

“여보, 좀 떨어져 있게 무엇이라도 놓을 수 없을까요?”

그러나 칸막이조차 놓을 곳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밤에 하나의 침대 속으로 들어가니 누이의 애는 호기심에서 신혼부부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것. 나탈레는 화를 내는 것이었으나 화를 내어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참다못하여 나탈레는 아내의 어깨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뜰, 그곳에는 밤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로마는 잠들고 있다…… 나탈레는 가까이 오는 루이자를 잡아당겨, 두 사람은 힘껏 껴안았다.

☆ 젊은 아내의 고민(苦悶)

나탈레의 일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 장소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인데, 이것은 매부인 체잘레가 구해준 것이었다. 이 매부는 인색하고 잔소리가 심해서 공사장에서나 집에서나 나탈레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것이다. 나탈레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새로 이 집에 들어온 루이자는 이 사 나이 때문에 거의 신경쇠약이 될 것만 같았다.

루이자는 참다못해 마침내 그들의 침대를 낭하로 내놓기로 결정하였다. 낭하라고는 하지만 입구에서 방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를 말하는 것이다.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침대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체잘레는 이것을 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처남의 아내를 다시 마구 꾸짖었다.

그날 저녁 루이자는 혼자 버스정거장에 서 있었다. 무엇인지 다시는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버스에서는 일을 마친 나탈레가 내려온다. 루이자는 말없이 남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다.

“왜 그래, 루이자?”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원인도 대략은 알고 있다.

“여보, 루이자, 우리는 지붕 밑에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넓은 광장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해요.”

하기는 그렇다. 나탈레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소프트아이스 크림을 사주고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언덕의 비인 터로 올라갔다.

밑에는 넓은 로마의 거리가 끝없이 전개되어 있다. 그 수만이라는 지붕 밑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부부, 단 둘만의 청춘을 갖고 싶은 부부가 살 지붕은 이 넓은 하늘아래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며칠 후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 일러 준대로 셋방을 찾으러 나섰다. 물론 단 한



<데 시카 감독과 브리엘라 팔로티 여우>

간 방을 창밖에는 실 새 없이 고가선(高架線)의 전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있고 벽은 크게 금이 간 방이었다.

“집세 5천 리라라고 들었지만 3천 리라로 안되겠어요?” 루이자가 집주인에게 물었다. “그것은 거저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막무관이었다. 나탈레가 걱정이 되는 듯이 금이 간 벽을 어루만지니 “걱정 없어요. 넘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묻기도 전에 대답하였다.

전쟁동안의 폭격으로 이렇게 금이 간 것이다.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른다.

결국 나탈레는 좀 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말하고는 루이자를 데리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에게는 이런 방에 5천리라나 치러야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여하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좁으나마 자기 집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기분을 루이자는 알 수 없다. 루이자의 기분은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당신에게는 괜찮아요. 아침에 집을 나가서 밤에 돌아오니까요. 여자인 나는 하루 종일 저 집에 있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멧쩍은 침묵을 지키면서 거리를 걸었다. 거리의 라디오 상점에서는 텔레비전이 과학강연을 방송하고 있다.

“인류는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월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전에 지구에 일어나 먼저 해결하라!” 나탈레는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다.

☆ 독립

마침내 어느 날, 집에서는 체잘레와 나탈레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요새 전기세와 가스요금에 굉장히 늘었다고 체잘레가 잔소리를 한테서 일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꼬박 꼬박 내고 있어요!” 나탈레가 외쳤다.

“아무렴, 그 여자는 네가 하라는 대로니까.”

“내 처의 말은 말아요.”

“뭘라구? 네게 일자리를 구해준 것은 누군 줄 알아?”

가는 말에 오는 말. 여자들이 옆에서 별별 떨고 있는 동안, 처남 매부는 마치 먹살이라도 잡을 듯이 싸웠다.

이윽고 나탈레는 뜰에서 손구루마를 끌고 나와 탈없이 자기네 침대를 신기 시작하였다. 이제 5천 리라의 다 쓰러져가는 방이라도 이렇다 저렇다 트집을 할 수가 없다. 루이자도 겉으로는 떨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남편이 잘 싸워주었다고 좋아 하였다. 그는 함께 집을 신기 시작하였다 - 사람이 좋은 나탈레의 어머니만이, 이제 제발

싸움만은 그만두어 달라고 밖으로 뛰어 나온다. 그 모습을 뒤에 남기고 발걸음도 가볍게 손구루마를 끌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전날의 비인 방 앞에 당도해 보니 이진 또 웬 일인지 입구는 판자로 막혀 있고 감시하는 경관이 서 있지 않은가

“여기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모두 이사했소. 2, 3일 중에 이 집은 헐리게 되요. 폭탄으로 못쓰게 되었으니까.”

물론 손구루마도 맡길 수 없다. 두 사람은 오늘로 이 구루마를 끈 채로 완전히 집 없는 천사가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두 사람은 여하튼 저녁 때 상의하기로 하고 거리에서 헤어졌다.

나탈레는 손구루마를 일터로 끌고 갔다. 직공의 대기실에 우선 도구를 맡기기 위해서였다. 조수는 꽤히 승낙해 주었다.

“그리고 조수님, 또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나의 일자리를 매부 체질레와 따로 해 줄 수는 없겠어요.”

“싸움이라도 했나? 그렇지만 그 작자는 한 달 후에는 계장이 되어서 딴 곳으로 간다네.”

계장이라구. 그 다음에 조수, 기사…… 운이 좋은 자는 어디까지나 출세한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산다. 이 나는 어떠한가. 이 가난한 나는.

☆서민들

루이자는 이렇게 된 이상 혼자 힘으로 집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몇 사람을 찾아가 여자가운데 루치아라고 하는 친절할 아주머니가 함께 알아보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은 가난한 사람이 알아준다.

함께 걸어가는 도중, 두 사람은 교외의 빈 터에서 가엾은— 일을 만났다. 무단히 빈 터에 오두막집을 진 한 가정이 경관에게 들켜 헐어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붕도 없이 벽만 있는 집에 들어 있는 남녀가 경관한테서 “곧 철거하라”고 야단을 맞고 있다.

“가엾게두. 저래두 지붕이나 있었더라면 아무리 순경이지만 그다지 쉽게 들어설 수는 없지.” 루치아 아주머니는 루이자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동안에 지붕 없는 오두막집에서는 곧 남녀가 쫓겨나고 벽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때 일터로 남편을 맞이하려간 루이자는, 만나자 마자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나탈레 곧 와주어요. 만약 조금만 돈이 있으면 우리는 곧 집을 질 수가 있어요.

“뭘라구?”

“딴 사람은 10만 리라 줘 들지만 당신은 벽돌공이니까 훨씬 싸게 들어요.”

나탈레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루이자에게 끌려 루치아 아주머니의 남편 프란체스코의 집에 가보고 비로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즉 프란체

스코는 그의 오두막집 앞에 있는 시장의 비인 터에 경관이 안보는 틈을 타서 집을 지어버리라는 것이었다. 허가 같은 것은 얻지 않더라도 집만 지어서 들어버리면 아무리 경관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침입하거나 손을 댈 권리는 없다. 무허가 건축의 벌금만으로 끝난다. 지금은 그 정도로 역지를 쓰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은 집에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프란체스코와 루치아 부부, 그리고 루이자는 입이 닳도록 나탈레를 세복하였다.

“그렇지만”하고 나탈레는 말하였다.

“그렇다면 벽돌 1천장, 기와 3백장, 그리고 화산회토(火山灰土) 한 트럭은 필요하군.

“게다가” 하고 프란체스코가 말하였다. “밤중에 공사를 끝마치려면 일군을 아껴서는 안 되네.”

“네, 일꾼은 있어요, 필요한 것은 돈이지요.”

“그 보다는 용기예요!” 루이자가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나 나탈레가 겨우 결심을 하고 앞에 있는 비인 터로 나와 보니,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 하나가 다가왔다. “택에서 집을 진다면 싸게 해드리지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탈레가 거절하자, 갑자기 그 사나이는 태도가 변하였다.

“젊은 친구, 여기 서 있는 말뚝이 보이지 않나? 이진 내가 박아놓은 거야, 내가 여기는 내가 먼저 점령한 땅이란 말야.”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험차게 나탈레의 어깨를 탁 쳤다. “걱정할 것 없네. 여기는 시소유지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네. 저 기분 나쁜 놈 같으니라구.”

☆ 따로 자는 夫婦

프란체스코의 오두막집을 나와 나탈레와 루이자는 묵묵히 로마의 거리를 걸었다. 결국 오늘밤부터 두 사람은 따로 따로 자지 않으면 안 된다. 나탈레는 일터에서, 루이자는 먼저 있던 바이 소령의 하녀 방에서 두 사람은 약혼시대로 되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나탈레, 기억하세요? 당신은 처음 나를 불렀던 곳은 바로 여기예요.”

두 사람은 고요한 길가에서 손을 마주 잡았다 — 루이자는 다시 옛날의 바이 소령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이 소령의 하녀 방은 지금은 지아나의 방이었다. 물론 지아나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의 침대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튿날 아침 떠보니 루이자는 약간 속이 메스꺼웠다. 나탈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만나면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네? 지금은 안 되요, 나중에.”

☆ 두 사람만의 좋은 일

그날 낮에 나탈레의 일터에 루이자가 찾아 왔다. 나탈레는 기쁨을 감추고 약간 언짢은 표정을 해보였다.

“뭐야? 집의 사람이 일터로 찾아오면 싫어하는데.”

“집에서 다니는 일자리를 얻었기에 알려 드릴려구요.”

“아아, 좋은 일이란 그거야.”

“아니예요, 또 하나……”

나탈레는 그를 자기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기실로 데려갔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채웠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아내의 곁으로 가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나탈레, 나 임신했어요.” 루이자는 남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다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 공사감행

이튿날 밤, 여덟시쯤 되었을 무렵 프란체스코의 집 앞에 있는 비인 터에는 한대의 트럭과 손구루마가 소리도 없이 멈추었다. 열사람쯤 되는 사나이들이 후다닥 뛰어 내려 프란체스코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탈레의 일 친구들이다. 그들은 나탈레에게 애기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오늘 밤새로 이곳에 그의 오두막집을 지어주기로 되었던 것이다. 손구루마로부터 흙을 부리고 트럭으로부터는 벽돌이 릴레이식으로 운반되어 비인 터에 쌓였다.

— 그러나 일에 열중한 그들은 요전 날에 나탈레에게 땅 문제를 가지고 말쑥부리던 그 기분 나쁜 사나이가 몰래 그의 오두막집을 나와 어디로인지 달려간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어서 때 아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고 비인 터에는 두 명의 경관이 달려왔다. 보통 때 같으면 그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아닌 것이다. 모두들 머엉 하니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물론 일은 중지다. 나탈레는 무단건축으로 1,700리라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만일 일에 착수하였더라면 집은 즉시 무너져서 재료는— 하나도 못쓰게 될 번 하였다.

이 뜻밖의 일에 노한 것은 나탈레보다도 프란체스코였다. 누가 오늘밤에 공사를 밀고한 것이다.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 프란체스코는 노발대발하여 그 말쑥꾸러기의 사나이의 집으로 뛰어 갔다. 경관이 놀래서 그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스파이를 때려죽였을지도 모른다.

나탈레와 그의 친구들은 땅위에 흩어진 흙과 벽돌을 묵묵히 다시 차에 실었다. 그러나 여기가 안 된다면 대체 어디로 가면 좋은가. 이 벽돌과 흙도 두 사람의 저금과 친구들에게서 얻은 빚으로 겨우 손에 넣은 것이다. 친구들도 일부러 밤에 나와 준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밤 안으로 어디 땅을 찾아서 오두막집을 짓기

않으면 안 된다.

☆ 돌격작업

트럭과 손구루마의 열(列)은 라이트를 끄고 째타 아나예제의 낮은 땅을 돌아 왔다. 그 철로 옆의 습지에 시소유의 비인 터가 있는 것을 나탈레는 생각하였다. 감시하는 철도원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사람들은 재빠르게 벽돌과 기와를 좁은 비인 터에 내려놓았다. 때때로 옆을 초특급(超特急)의 호화로운 열차가 지나갔다. 벌써 새벽 두시다.

루이자는 속이 메스거리는 것을 참으면서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벽돌위에 놓인 램프의 불을 돌으면서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집을 지어가는 것을 응크리고 쳐다보고 있었다. 전부터 살고 있는 오두막집의 부부가 졸리운 눈을 부비면서 나와서 앞의 비인 터에서 시작된 이 돌연한 공사를 깜작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요구로 나탈레의 오두막집은 겨우 좁은 장소밖에 차지할 수 없다. 더블베드를 들여놓으면 그것만으로 절반은 차버릴 정도의 단칸방의 오두막집이다. 일은 벽돌을 쌓아 올려 그 하나하나를 흙으로 붙여서 집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아침에 순찰경관이 올 때까지는 지붕이 있는 버젓한 집으로 만들지 않으면 즉시 불법건축으로 허물어뜨리게 된다.

어두운 비인 터에서 하는 일이고 친구들도 모두가 견습공이다. 일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겨우 어깨높이로 쌓아 올린 벽도 한 청년이 비틀거리다가 조금 다음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일은 다시 세 시간이나 늦어졌다. 나탈레는 초조해서 말의 어조도 거칠어졌다.

루이자는 문득 생각이 났다. 그렇다. 체질레한테 부탁하자! 싫은 사람이지만 일은 잘 한다. 오늘밤 안으로 오두막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루이자는 그 곳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린 사내애를 호위 삼아 캄캄한 밤길을 나탈레의 부모가 있는 집을 향해서 달려갔다. 뜻밖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나탈레의 부모를 비롯한 온 식구가 잠을 깨었다. 루이자에게서 사정을 듣고 그 언제나 상을 찌푸린 체질레는 이렇게 한마디 하였다.

“좋아, 도구는 가지고 갈까?”

그리하여 체질레는 자전거를 꺼내어 루이자를 함께 태우고 전속력으로 밤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현장에 도착해서 루이자가 그에게 기운을 내라고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었을 때 그 무뚝뚝한 체질레는 처음으로 빙그레 웃으며 귀여운 루이자를 쳐다보았다.

일은 작업이 진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와 경쟁이나 하듯이 밤도 새기 시작하였다. 온 밤 추위와 심한 운동으로 임신부인 루이자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으며 날이 새일 무렵 깜박 졸았다. 그가 반짝 땅위에서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한 칸 사방정도의 새 오두막집이 서 있었다. 절반이 완성된 지붕위에서 여전히 콘소리로 지

시하고 있는 체잘레의 소리가 들린다.

☆ **최후의 난관**

드디어 여덟시 매일 아침처럼 순찰경관이 왔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 지붕이 남아 있다.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집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관이 들어와도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곧 친구 둘이 엉터리(싸움을 시작해서 경관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물론 시간의 여유가 없다. 지붕은 다음으로 밀려라도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나탈레는 급히 침대를 안으로 들여놓고 구경하는 여인에게서 어린애를 빌려 루이지에게 안겨주고 침대에 앉히기로 하였다. 이로써 제법 젊은 부부의 아침 풍경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관이 둘 다가왔다. 친구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다. 지붕은 아직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나탈레와 루이지와 탄 집 애기와 그리고 급히 달려 온 나탈레의 어머니만이 오두막집 안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있다.

“문을 여시오!” 마침내 경관이 오막집 앞에 서서 말하였다. 물론 어제저녁까지는 보지 못하던 불법건축의 오두막집이다. “열지 마오! 경관, 거주권침해(居住權侵害)가 아니요?” 밖에 있는 친구들이 응원을 하였다. “지붕이 달린 집에 침입할 수는 없지 않소.”

경관들은 물론 주위의 공기에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벽에 뚫렸을 뿐인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말하였다.

“여하튼 재판을 받게 되니까, 조서(調書)를 꾸미겠소. 이름은?”

“나탈레 피톤 안토니오”

“주소는?”

“바로 여깁니다.”

경관의 눈은 천정에서 멈추었다. 지붕이 덮이지 않은 부분이 큰 구멍을 이루고 그 곳에서 눈부신 아침햇살이 스며 들어오고 있다. 그 경관의 눈은 씻은 듯이 부드러워 졌다.

“좋아, 썬타 아니세에제 강변. 그러면 우선 벌금을 지불하시요.”

돈을 꺼내는 나탈레의 손은 기쁨에 떨렸다. 여하튼 경관은 인정한 것이다.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조서에 기록한 것이다! 친구들이 ‘야야’하고 환성을 올리며 다가왔다.

“잘 되었네, 나탈레.”하고 매부 체잘레가 말하였다. “자 지붕을 해치워 보세.”

“내가 하겠어요, 매부”

루이지가 남편에게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재판이라니 어떻게 되는거예요. 나탈레?”

“걱정할 것 없어 나중 일이니까, 지금은 우선 지붕을 완성하는 거야”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 어깨를 나란히 새집을 쳐다보는 젊은 부부의 등에는 오늘도 또한 눈부신 로마의 태양이 떠올라 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은 마침내 ‘자기 집’에서 고고지성(呱呱之聲)을 높이 울리게 될 것이다. (끝)

이태리영화(伊太利映畫) 「지붕」의 해설(解說)

「지붕」은 「자전차도적」과 「종착역」 등으로 유명한 빠티리오 데 시카 감독이 1955년 봄부터 1년 이상을 걸쳐 제작한 이탈리아 영화의 신작이다.

이탈리아 영화는 전후(戰後), 고생스러운 현실생활을 역력히 묘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화제에 오르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모양이 달라졌다. 다른 나라처럼 호화로운 멜로드라마가 그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데 시카 감독은 거의 완고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전의 사실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짓말이나 허식이 없는 서민(庶民)의 생활 그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다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데 시카는 근년의 「종착역과 나폴리의 황금」에서는 세계적인 대 스타를 썼으나 그 이전의 「구두땀이」와 「자전차도적」에서는 완전히 아마추어만을 출연시켜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작품도 그 전통을 따라서 직업배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영화에 닳고 닳은 사람이 아닌 이들의 신선한 맛이 얼마나 이 영화의 현실감을 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특히 팔롯티(루이지 역)의 서민적인 아름다움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데 시카는 자기의 작품을 ‘생활의 시(詩)’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이 영화는 특히 그 아름다움이 인정되어 1956년의 칸 영화제에서 OCIC 상을 획득 하였다.

이 영화에 대해서 데 시카와 원작자인 세자레 자밋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데 시카의 의견이 「지붕」이라는 영화를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이며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주제가 몹시 단순하니까요. 나의 생각으로서는 「지붕」은 「자전차도적」과 「움베르토 D」와 똑같은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다음에 만들려



<주연 조르지오 리수투씨와 브리엘라 팔롯티>

고 하는 영화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일종의 희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밀라노의 기적(奇蹟)」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감독의 일을 좋아합니다. 배우로 서는 꽤 무서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버젓이 자기의 감독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작자인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붕」과 같이 직업배우가 아닌 아마추어를 끌려고 하면 제작자는 반드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직업배우의 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억에 있는 주인공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고른다는 것뿐입니다. 가브리엘라 팔롯티(「지붕」의 루이자 역)는 수백 명의 지원자 가운데에서 선출했습니다. 조르지오 리스투씨(「지붕」의 나탈레 역)는 조그만 회사의 포터였는데 내가 그를 만났을 때에는 마침 실직(失職)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다 자연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아까 내가 자기가 제작자이면 자유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붕」이 완성된 후에 나는 자밋티나와 상의해서 이 작품의 처음의 부분을 4백 미터 정도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리하여 영화는 처음부터 명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기의 제작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파리에서 「자전차도적」이 공개되었을 때 나는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 할는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절관(封切館) 앞에서 「자전차도적」에 나오는 소년과 같은 귀여운 아들의 손을 잡은 한 사나이가 서있는 것을 보고 이견 안심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지요?

☆ 자밋티나의 의견

먼저 말해두겠지만 이 「지붕」은 정말 있는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내가 실지로 보고 아는 사실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동기가 된 것은 나의 집 바로 옆에 살고 있던 벽돌공 나탈레가 한 말입니다. 그는 루이자(그의 아내)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 한 채가 서있었으면, 지금 같아서는 부부로서 아무런 구실도 못 하나니까요, 하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영화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나탈레는 그리하여 명안(名案)을 생각했습니다. 그 명안이란 이 영화에서 나오는 하룻밤 새에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탈레와 루이자는 집을 질 장소를 찾아나갔습니다. 로마 근교의 오스티아에 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나리오의 결정판에서는 그 장소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나탈레가 좋아할만한 장소입니다. 나는 그 후 나탈레는 물론 여러 벽돌공과 이야기를 하고 시나리오를 써갔습니다.

이 시나리오 창작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탈레의 누이동생이 매일 벽돌공장 앞을 지나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데 벽돌을 얻어가지고 는 오빠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벽돌은 한 장에 적어도 20리라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에 넣어서 루이자로 하여금 벽돌공장 앞을 지나가도록 해서 벽

돌을 한 장 집어 들고 이견 얼마냐고 묻도록 할 작정이었으나 이것은 끝내 영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벽돌의 값을 어떻게든지 영화에 나타내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영화제작에는 흔히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고 보면 그 이미지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일이 우리들은 인스피레이션을 현실 속에서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익과 대중적 이익이 되는 것을 택해서 취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남의 불행을 보는데 완전히 만성이 되어서 그것을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받아 들인다는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택문제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붕」의 경우는 예외적인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진심을 존중하여 주택문제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주연배우 소개

가브리엘라 팔롯티

데 시카 감독이 수개월이나 이탈리아 전국을 여행해서 발견한 순전한 아마추어. 금발에 녹색의 눈을 가진 귀여운 17세의 이 처녀는 순수한 로마 태생이며 체조 교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아동용품점의 점원이었다. 처음 데 시카 감독으로부터 말이 있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주저했을 정도였다. 이 순진함과 훌륭한 지성이 이 영화에 나오는 선량한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조르지오 리스투씨

이 청년도 역시 앞에 소개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지붕」이 처음 출연한 영화이다. 촬영개시 전날까지도 하나의 후보자와 역할에 대해서 경쟁을 하였다. 데 시카는 두 사람을 써서 처음 장면을 두 번 촬영하려고 했을 만큼 망설였는데 마침내 그가 선택되었던 것이다. 태생은 트리에스트. 영화에 나오기 몇주일 전에는 축구선수 노릇을 하였다. 벽돌공으로 나오는 그는 아마추어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훌륭한 연기와 직업배우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신선한 맛을 보여주고 있다.

삼륙만환(卅六萬圓)의 팁

한 10센트(36원)의 커피를 마시러오는 손님으로부터 (36만원)의 팁을 받은 웨이트리스가 있다. 가리후오투니아 주(洲)에 있는 산테그의 화제(話題)인바 커피점의 점주(店主)였고 웨이트리스도 하고 있는 게루다 V. 오루손 부인이 바로 그 사람이다. 3월 중 언제나 나의 다방(茶房)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존슨이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손님과 똑같이 단지 커피만을 분주히 나르며 웃는 얼굴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5일의 날 존슨 이분이 “얼마 안 되지만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하고 말하였습니다. 20달러의 지폐가 1,000달러나 될 적에 나는 혼자 놀래며……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정유년(丁酉年) 사화(史話)

동방(東方)의 닭의 신앙(信仰)

이홍직(李弘植)

1

금년은 정유(丁酉)년이라 이미. 정초의 각 신문에도 정유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실리어서 여기서 또 그런 것을 쓴다는 것은 김이 빠진 감도 있는데 편집자의 요청으로 마지못하여 펜을 들어 본다. 10간(干) 20지(支)의 사상은 동양에서 고대부터 널리 유행된 5행, 음양설에서 빚어 낸 세계관이며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10간과 12지의 최소공배수 배합으로 60이라는 수가 나와서 60년에 한 번씩 같은 간지가 돌아오게 하였으며, 오늘의 과거적 입장에서는 하등의 근거도 없지마는 역사의 순환과 반복성을 여기서 은근히 생각하여 온 것이 과거 동양인의 사고방식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어왔다. 이 간지에 의하여 그 해의 운수와 기운이 정해지며 지금도 같은 띠에 출생한 사방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러한 선입감으로서 인지 동 년생에서 그러한 점을 느끼는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으로도 되어있다. 하여간에 지금도 우리가 대답하면 점을 치고 관상도 보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 음양설이니 오행설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10간 12지와도 관계되어있는 것이다. 근대 구라파인들의 사상은 역사가 직선으로 무한히 흘러가며 발전하여 가는 것인데 동양에서는 아직 것이 10간 12지의 사상에 얽혀서 순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다.

역사에는 반성하여 본다는 요소가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무한히 지나간 어느 때를 반성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런 중에 이와 같은 관념에서 60년을 1기로 같은 간지년(干支年)을 한 번씩 정초에 돌본다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생각된다. 인생은 고해라고도 한다. 즐겁고 행복한 생애보다도 고통과 불행한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는 해는 어떨까 해가 바뀔 때마다 그래도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정유사(丁酉史)를 생각하여 보자는 심리도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음양, 오행설에 의하면 정(丁)은 화(火)요 유(酉)는 양(陽)으로 일(日)해(日)로 보고 태양 속에는 준오(駿鳥)라는 3족(足)의 오(鳥)가 있다하여(회남자(淮南子)) 새로

통하며 이것이 보통 가축으로 친근한 닭으로 생각하여 오게 된 모양이다. 하여간에 정유년은 10간으로 보나 12지로 보나 광명에 가득 찬 해인 셈이니 우울한 요즈음의 세태로서는 우선 듣기만하여도 마음이 밝아질 것도 같다.

2

광명은 동방에서 오며 무엇보다 먼저 이 새벽을 알려주는 것은 닭이다. 그러므로 닭은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신성스러운 영조(靈鳥)로도 섬겨왔다.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가 탄생하는 전설에도 닭이 등장하고 있다. 석탈해(昔脫解)왕의 9년 3월 조(條)에 왕이 밤에 금성서편 시림(始林)의 나무 사이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당시의 재상인 호공(瓠公)을 보내 보았더니 금색의 조그만 꿩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며 그 밑에서 흰 닭이 울고 있었다. 호공은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니 왕이 사람을 시켜서 꿩짝을 받아서 열어 보니 조그만 사나이가 그 속에 있었는데 대단히 훌륭하여 왕은 기뻐하며 하늘이 보내 주어 자손으로 삼게 한 것이라 하고 수양하여 그 이름을 알지라고 하며 금궤(金櫃)에서 나왔으니 성을 김 씨라 하고 시림을 계림(鷄林)이라고 고치며 여기에 인하여 국호로도 삼았다 한다.

이것은 물론 전설이며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도 없겠지마는 전설은 전설대로 생각할 길이 있는 것이다. 신라의 김 씨 왕실은 신라초기에 3성(朴, 昔, 金) 교립(交立)에서 최후로 왕위를 차지하여 역사시대에 들어오는 만큼 그러한 씨족이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예부터 존속하여 왔을 것은 틀림없다. 이 씨족이 후에 중국식으로 성을 붙이게 될 때에 중국의 고대의 신화에 나타나는 현원(軒轅)의 자손인 소호(少昊) 김천(金天) 씨의 후예를 자칭하고 김 씨를 주장한 것은 그럴 법도 하다. 그러므로 알지가 금궤에서 나왔으니 김 씨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는 왕실이 소호(少昊) 김 씨의 후예를 표방한 후에 꾸민 이야기 일 것이며, 이 전설의 이 부분은 후대적인 분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보다 알지가 탄생할 때에 흰 닭이 있었다는 것은 귀중한 고전이 숨겨있지 않을까 한다. 소위 김 씨 왕실의 씨족사회 단계에 있어서 그 씨족이 신성시한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 민족학상 이와 같은 것을 고대사회 내지 미개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Totemism이라고 부른다.

신라인들이 닭을 신성시하였다는 기록은 또 우리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권4, 귀축(歸竺) 제사(諸師)라는 조하(條下)에는 신라승으로 천축(天竺)인도까지 구법하러 갔다는 여러 학승

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천축인이 해동(海東)을 말하되 구구타에설라(矩矩吒醫說羅)라고 하였다 한다. 그런데 구구타(矩矩吒)는 닭을 말하며 예설라(醫說羅)는 귀하다는 말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다. 또 인도에서 상전(相傳)하되 신라에서는 계신을 공경하고 귀존히 여기기 때문에 새의 날개를 머리에 꽂아서 표식으로 한다고 말하였다. 삼국유사의 귀축(歸竺) 제사(諸師)의 이야기는 대개, 당나라(唐)대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당대에는 물론 신라의 학승들이 당나라(唐土)에 갔다가 다시 인도까지 불경을 구하며 불적을 찾는 자도 차차 생기어 그들에 의하여 신라의 모습도 인도인에게 전하여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쓰여 있는 인도인의 이야기는 결국 신라인들의 이야기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나라 시대 즉 신라통일기에 그들은 고대부터 닭을 신성시하는 전설을 지녀온 것을 알 수가 있다.

신라의 국호의 별명이 계림(鷄林)이라는 것은 후대까지 유명하고 일반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원설도 앞서 본바와 같이 알지전설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처음에는 경주의 궁성(월성) 서편의 숲을 시림이라고 하였는데 알지가 나올 때 닭도 함께 있어서 그 후로 계림이라고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김알지조에는 시림을 '일작구림(一作鷓林)'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을 볼 때에 원래 신라 고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새(鳥)명이 분화되지 않았고 무엇이든 간에 '새'로 다 통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이 된다. 그러므로 시림에서 계림(鷄林)으로 고쳐졌다는 말은 후대인이 한자에 구니(拘泥)하여 부회(附會)한 것이며 벌써 시림 그 자체가 계림으로도 통하고 구림(鷓林)으로도 통한 말로 생각이 된다. '새'니 '스'니 하는 조류 일반에 대한 우리나라 고어는 일본에도 전하여 조류의 일반명의 기본어가 되어있는 것은 '가라스(鳥)', '스스메(雀), 우구이스(鶯) 등 속(屬)에 그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신라 초기에서는 닭도 '새'로 불렸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하여간에 새는 아침을 연상하며 아침은 일출과 관련하여 동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갯바람'이라 하면 동풍을 말하고 있으며 '새벽'이니 '새롭다'는 말도 생겼으며 피곤한 전일은 어둠으로 혼미에 빠졌다가 다시 새날의 일출의 광명과 더불어 천지는 신선한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또 1일의 생활의 싸움에 돌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림이니 계림이니 구림을 함께 우리 고어로 어떻게 불렀는지 림(林)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수풀'이라고 하는데 고어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하여간에 '갯수풀'에서 '갯불(벌)로 되어 서라(徐羅(耶)) 별이라는 경주 평야의 고대부락국명이 생겼을 것이고 거기서 사로(斯盧)니

신라(新羅)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고로 일출의 명승지는 모두 동해안에 있다. 관동8경 중에 양양 낙산사의 일출은 특히 유명하나,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영일 토함산 구룡등등 도처에서 우리는 동해에서 떠오르는 웅장한 일출을 경이의 눈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고대부터 살아온 동부 진한(辰韓)인들 사이에 특히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 속에 있다는 새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며 그것을 토템으로 삼고 또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된 것은 당연한 말이다.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태양 없이는 생기지 못하는 것이며 인류의 과학은 극도로 발달되어가는 오늘에도 역시 태양을 기억하고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태양에 대한 숭신(崇信)이 지극함을 볼 수 있다. 태양 없는 즉 광명 없는 암흑세계는 파멸이며 좌악이 도랑(跳梁)하는 세계이며 광명 있는 곳에는 좌악이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고 건강적인 생성과 건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인류가 생각했던 어느 종교 간에 그 요소가 된 것은 결국 광명과 암흑의 두 세계의 2원적인 구성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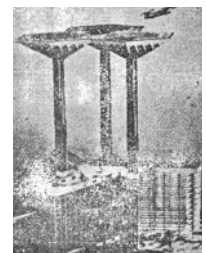
태양을 사랑하고 순수한 성질을 지향한 속에서 신라의 화랑도(花郎徒)의 정신도 나왔으며 국가는 융성하여간데 대하여 남의 힘에 의지하고 이용하여 살자는 얕은 지혜를 띤 백제는 드디어는 멸망의 길을 빨리 찾아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또한 역사에 거울삼을 것을 다시금 느끼는 것이다.

3

우리가 이제 연표를 내 놓고 과거의 모든 정유년을 살펴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역사의 유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가까이 60년 전 정유는 광무 원년으로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파견하였다가 다시 경운궁(덕수궁)으로 이어

공중(空中) 플랫폼

사진은 영국의 건축가 제임스 드휘트 씨가 2000년대의 런던에는 이러한 건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공중 플랫폼 건축물인바 그 위에 위치한 500피트의 공중공항도 그 대부분은 발달한 경질(硬質) 크라스로 만들어지고 승객은 3개의 축 내부를 통한 엘리베이터로 가로(街路)에서 직접 플랫폼에 갈 수 있고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탈 수 있다.



(移御)한 해며 8월에는 국호를 대한으로 하고 황제호를 칭한 해다. 이것은 오랫동안 청국황제의 배신(陪臣)으로 조선국의 왕으로 봉책되어 왔던 기반(羈絆)에서 용감히 벗어나고 갑오경장이후 근대적인 국가제도를 추진시키는 도상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용감한 실력으로 추진되었던가.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일러 양국이 정치세력을 서로 뺏히려고 광분(狂奔)한 시기며 그 경쟁은 일진일퇴로 양국에서 냉전해가는 단계이었다. 전년에 고종이 러시아(俄)관에 유폐당하다시피하고 친러파를 중심으로 모든 정령(政令)이 러시아의 신사(願使)를 받았을 때에는 러시아가 승세(勝勢)한 시기였으며 일본의 맹반격으로 다시 고종은 경운궁에 돌아와서 대한제국과 황제를 세계에 선포한 것은 배후에 일본의 공작 없이는 안 되었던 것이다. 역사를 피상적으로 보는 자는 우리나라의 국격의 향상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속 없는 국격과 황제는 역사상의 하나의 만화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음양, 오행설에 의하여 60년 전의 정유년 역시 광명과 희망에 가득 찬 해로서 우리 국토가 사상 처음 보는 황제국이 되었다고 낙관과 희망을 붙여서 말한다면 이 역시 역사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천견(淺見)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간매사는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달려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동양 고래의 오행사상을 잠시 허용하고 정유년이 좋은 해라고 친다면 그 좋은 해를 실제로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 자신의 진실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심할 것 밖에 없다. 바라건대 광명으로써 죄악의 어둠을 배제하고 타력의존의 정신을 기양(棄揚)하도록 새해에 결심할 것이다.

(필자(筆者) 연대학교수(延大教授))



<소설(小說)>

정복(征服)되지 않는 인민(人民)들 (2)

W 서머셋 몸

이기석(李基錫) 역(譯)

처녀는 의자에 덜컥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울기 시작했다.

“이 망신을, 이 망신……”

그자는 처녀에게로 달려가 두 팔로 껴안았다.

“여보요”하고 다정스러이 외쳤다.

그러나 처녀는 벌떡 일어서며 그자를 떠다밀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어. 저리가, 저리 가. 이만큼 남의 신세를 망쳐 냈으면 고만어나?”

처녀는 방밖으로 훌쩍 나가버렸다. 그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기가 막혔다. 머릿속에 가지각색의 생각이 선회하는 가운데 오토바이로 쏘와쑹을 향하여 서서히 돌아갔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으나 몇 시간씩 잠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아네트와 그 부풀어 오른 배 모양만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다. 테이블을 앞에 놓고 앉아서 두 눈을 통통, 붓게 하며 울고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으리만큼 비참하였었다. 그녀의 배속에 있는 것은 그자의 자식이다. 그자는 꾸

벽 꾸벽 끝기 시작하다가도 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잠이 깨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난데없는 총소리에 놀라 산산이 부서진 꿈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처녀에 대한 사랑을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쇼크요 놀라움이기도 하였다. 그자가 아네트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치극한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 처녀가 자기에게 반하도록 한다는 것은 큰 농담일 것이라고 그자는 생각해 왔었다. 강제로 빼앗아간 것을 처녀가 자진 청해 오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대성공일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처녀를 단 여자 이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단 일순도 없었다. 도대체 처녀는 그자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미인도 아니었다. 처녀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갑자기 처녀에게 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감정을 느껴야한단 말인가. 그것은 아무튼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두통끼리였다. 그러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그자는 똑 바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인 것이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인 것이다. 처녀를 두 팔 안에 껴안아주고 싶었다. 어루만져주고 눈물 어린 그 두 눈에 키스해고도 싶었다. 자기가 처녀를 욕구(慾求)하는 것은 숫놈이 암놈을 욕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자는 생각했다. 처녀를 위로해 주고 싶었다. 그리고 처녀가 자기에게 미소를 던져주기를 바랐다 - 이상한 노릇이다, 처녀의 미소를 본적이 없으니 - 그자는 처녀의 아름답고 고상하고 상냥스러운 눈동자가 보고 싶었다.

사흘간 그자는 쏘외송을 떠날 수 없었다. 사흘간 밤낮으로 아네트와 배속의 아이 생각만을 했다. 그 후 농가에 갈 기회를 얻었다. 브리에 마나님만을 조용히 만나고 싶던 차 마침 좋은 기회에 부딪쳤다. 농가에서 좀 떨어진 길가에서 마나님을 만난 것이다. 마나님은 산에서 땀나무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가지고 등에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자는 오토바이를 멈추었다. 마나님이 자기에게 정답게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갖다 주는 식료품 덕분이라는 것은 그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자는 그런 것은 문제로 삼지도 않았다. 무슨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마나님이 자기에게 예모 있게 대해줄 것이며 또한 그러하기를 애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다. 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하고 그자는 마나님에게 말하며 나무 짐을 내려놓기를 권했다. 마나님은 권하는 대로 짐을 내려놓았다. 흐리고 찌푸린 날씨였으나 춥지는 않았다.

“전 아네트 몸을 알고 있어요.”하고 그자는 말했다.

마나님은 기절경풍을 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애는 당신이 눈치 챌까바 성화를 했는데.”

“따님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날 밤 저지른 그 거룩한 것의 덕택이죠.”

“전 몰랐어요. 왜 제게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마나님은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다. 비통한 표정을 하는 것도 아니오 그자를 원망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모두가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죽는 경우나 때서운 봄 서리에 맞아 죽는 과실나무와 곡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념과 공손한 마음으로, 인간이 감수하여야 하는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몸서리치던 날 밤 이후 아네트는 며칠 동안이나 고열로 신음하면서 병석에 누웠었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아네트가 제 정신을 잃지나 앓을까 염려했었다. 몇 시간씩 계속적으로 고향을 지르곤 했던 것이다. 당시 의사란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동리 의사는 모두 소집되어 군대로 나가버렸으며 쏘외송 같은 도시에도 두 명밖에 남아 있지 않는 형편이었다. 그것도 모두 다 늙어빠진 분들뿐이었다. 그러니 환자 측에서 의사선생님을 모시러 갈 순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노인들이 왕진을 올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더군다나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판국이었다. 아네트는 열이 내린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으리만큼 몸이 편치 않았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때에도 무척 쇠약하고 안색이 나빴다. 가련할 지경이었다. 쇼크가 몸서리칠 정도로 컸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몸에는 별로 이상이 없었으므로 아네트는 그저 무관심하게 세월을 보냈었다. 본시부터 월경은 고루지 못한 편이었다. 좀 수상하다고 아네트의 몸을 맨 먼저 의심한 것은 브리에 마나님이었다. 마나님은 딸에게 물어 보았다. 모녀는 왈각 겁이 났으나 확실한 것은 몰랐다. 그래 브리에 영감에게는 아무 말도 안했었다. 석 달이 접어들자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아네트는 임신한 것이었다.

전쟁 전에 브리에 마나님이 한주에 두 번씩 농작물을 싣고 아침에 쏘외송 장터로 달리던 낡은 씨트로 앵차 한대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군 점령 후로는 차를 물고 쏘외송까지 가서 팔고 올 물건도 없었거니와 또 기술련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탄 도리가 없었으므로 그들 세 식구는 그 차를 끄집어내서 읍까지 달리었던 것이다. 독일군 군용차량만이 거리에 범람하고 있었다. 놈들은 공연히 쏘질르는 것이다. 거리거리에는 독일어로 쓴 표식이 붙어있고 공공건물에는 독일군사령관의 사인이 들은 포고문이 걸려 있었다. 많은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들 세 식구는 안면 있는 늙은 의사를 찾아가 그들의 의심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의사선생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므로 그들의 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울며 애원 해봤으나 의사는 어깨를 으쓱 추켜올리며,

“당신 혼자서만 당하는 일은 아니요. 일포 수프리르(사람은 경난을 하여야 하느니라)”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한분의 의사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로 가 보았다. 현관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동안 대꾸가 없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슬픈 얼굴의 여인이 나왔다. 선생님을 뵈러왔습니다, 하니 그 여인네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의사선생은 비밀결사원이라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인질로서 유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군 장교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두 명이 죽고 수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을 일정한 시일까지 넘겨주지 않으면 선생이 총살당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선생의 사모님은 상냥한 얼굴의 부인네였으므로 브리에 마나님은 자기네의 고민을 하소연했었다.

“저런 가없어라, 개돼지 같은 놈들.”하며 부인은 동정어린 눈초리로 아네트를 바라보았다.

부인은 그들에게 읍내 산과 주소까지 알려주며, 자기에게서 왔노라고 말하면 잘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 산파를 찾아 갔더니 무슨 약 한 봉을 주었는데 그것을 먹고 아네트는 죽을 번하게 앓았다. 그러나 그 후 아무런 신통한 효력도 없이 아네트의 배는 여전히 불러만 갔다.

브리에 마나님이 한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상과 같은 것이었다. 한스는 잠시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내일이 공일이죠. 할일도 없구 하니 내일 또 와서 의논드리겠습니다. 좋은 물건 가져다 드립니다.”하고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바늘이 없는데 좀 구해다 주시구려?”

“네. 구해봅죠.”

마나님은 나무짐을 걸머지고 터덕터덕 길을 걸어 내려갔다. 한스는 쏘와송으로 돌아가버렸다. 이튿날은 오토바이를 달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여 자전거를 타고 왔다. 뒤집 실은 곳에 식료품 한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 속에 삼페인 한 병이 들어있었으므로 탄 날보다 보따리가 더 커보였다. 그자가 농가에 도착한 것은 어둠이 짙어가고, 그들 세 식구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그자가 집안에 들어서자 부의 공기가 따뜻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브리에 마나님은 음식을 만드는 중이요 영감님은 파리 소와르(Paris Evening)라는 잡지를 읽고 있었다. 아네트는 양말을 꿰매는 중이었다.

“이보세요, 바늘 가져왔습니다. 그러구 여기 당신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 있소, 아네트”하고 그자는 보따리를 끌리며 말했다.

“그런 물건 싫어.”

“이것 봐요? 당신 갓난애 소용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하고 그자는 씩웃었다.

“그래 그렇잖으나 아네트야. 그러구 우린 아무 것도 없으니까.”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아네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느질만 하고 있다. 브리에 마나님의 시장한 눈이 보따리 속으로 달린다. “삼페인이 다 있네.”

한스는 낄낄 웃어댔다.

“지금 제가 왜 그것을 가져왔는지 말씀드리죠. 제간엔 그래두 생각이 있어서요.” 그자는 망설망설하더니 의사 하나를 꺼내 아네트와 마주앉으며 말했다.

“뭐라고 말문을 열어야할지……내가 그날 밤 저질른 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런지요. 아네트.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때 환경 때문이었어. 날 용서해 주구려?”

아네트는 증오에 찬 눈초리를 그자에게 던졌다.

“절대 안 돼. 왜 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이만큼 남의 신셀 망쳐났으면 고민이지 뭐야?”

“그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난 그렇겐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당신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말야. 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

“사랑하고 싶다구?”하며 처녀는 악의에 찬 눈으로 그 자를 훑어보았다.

“난, 당신이 아이를 갖기를 바랐던 거야 아네트. 당신이 아이를 떼버리지 않아서 난 기뻐.”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아가리로 지껄린담?”

“그러나 내말을 좀 들어봐. 난 그 일을 안 이후로는 그 일만을 생각해 왔어. 육개 월 후면 전쟁은 끝나. 봄에는 영국을 항복 시킬 거야. 놈들은 여태껏 호기를 다 놓쳐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난 제대해서 당신과 결혼 하겠어.”

“뭐…… 뭐라구?”

햇빛에 익은 그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참아 불어로는 말 못할 심정이므로 독일어로 말했다. 처녀가 독일어를 한다는 것을 그자는 알고 있었다.

“잇히 리이베 닷히. (난 당신을 사랑하오)”

“뭐라는 거냐?”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물었다.

“날 사랑한대요.”

아네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바탕 낄낄 웃음을 터뜨리더니 점점 목청을 높여 웃어댔다. 웃음은 그칠 줄 몰랐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브리에 마나님이 딸의 두 뺨을 모지게 후려 때렸다.

“내버려 뒤편. 그랜 히스테리니까요. 몸이 성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
수.”하고 마나님은 한스를 보고 말했다.

아네트는 숨이 막힐 듯이 흐느끼었다.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다.

“우리 약혼의 축배를 들러구 삼페인을 가져 왔는데.”하고 한스는 말했다.

“정말 세상에도 원통한 일이야. 저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다니.”하고 아네트
는 말했다.

한스는 여전히 독일어로 계속했다.

“난 당신이 어린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비로소 내가 당신을 사랑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청천의 벽력처럼 갑자기 사랑이 느껴졌어. 내가 늘 당
신을 사랑해 왔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뛰라는 소리냐?”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물었다.

“대단찮은 소리예요.

그자는 다시 불어로 말했다. 아네트의 양친에게 꼭 자기 심정을 들려주고 싶었
던 것이다.

“전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 하고 싶습니다만 어른들이 허락지 않을 겁니다. 절
아주 쌍놈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의 어르신네는 부유하시며 우리 고장에서는
그래도 대접을 받고 있는 집안입니다. 제가 장남이구요 부족한 건 무엇 하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시우?”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물었다.

“네, 가톨릭입니다.”

“거 댕구먼.”

“저희 시골은 아름답고 토질도 좋습니다. 뮌히 인스부르크 사이에서는 우리
고장보다 더 좋은 농터가 없어요. 이 농터가 우리 개인 소유지란 말씀입니다. 조
부께서 ‘칠십년 전쟁’ 후에 사신 것이랍니다. 이 외에 저의 집엔 차도 한 대 있고 라
디오도 가지고 있고 전화도 매 났지요.”

아네트는 고개를 아버지에게로 돌리었다.

“저자는 비상한 수단꾼이예요.”하고 비꼬는 어조로 외치면서 한스를 노려보았
다. “정복당한 나라로부터 서출(庶出)의 자식을 안고 온 계집, 참 저 같은 년에게
는 알맞은 꼴일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행운의 찬스가 왔단 말이지. 그렇죠. 그 거룩
한 찬스가 말예요.”

본시 말이 뜬 브리에 영감이었지만 이번만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금 아량을 보여주셨다는 건 나도 절대 부인치 않겠소. 나는 지난 전
쟁을 겪어왔고 또 그동안 평화시 같으면 못할 일도 많이 해왔었소. 그러나 인정

은 역시 인정입니다. 아들자식이 죽어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아네트는 우리 늙은
내외가 가자고 있는 모든 것이 되었으니 어찌 그 애를 내내 줄 수 있겠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 전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의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머물르겠습니다.”하고 한스는 말했다.

아네트가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귀국에는 사람이 모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날
쑤외쑤에서 강연한 자에 말을 들으면 농토의 삼분지 일이 노동력 부족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에 영감 내외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고 했다. 아네트는 부모의 마음이 혼
들리기 시작한 것을 알았다. 역세고 힘이 장사 같고, 그들 내외가 늙어 꼬부라져
서 일도 못하게 되면 그들의 뒤를 이어나갈 데릴사위, 이거야말로 아들이 없어진
후 그들 내외가 바라고 바라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시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요. 고려할 여지가 있어요”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입을 열었다.

“잠잠고 있어요.”하고 아네트가 거친 어조로 외쳤다. 고개를 앞으로 젖히며 노
기에 찬 두 눈으로 독일군을 쏘아보았다. “난 내가 다니던 읍내 소학교 선생과
약혼했어.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기로 되어있어. 그이는 당신처럼 키도 크지 않
고 힘도 없고 또 미남도 아냐. 키도 적고 약질이야. 그이의 단 한 가지 미점은 얼
굴의 빛나는 지성적 향기뿐이야. 그이의 단 한 가지 강한 점은 정신의 위대함이
야. 그이는 야만이 아니고 문화인이야. 그이의 혈통적 배경에는 수천 년의 문화
가 깃들어 있는 거야. 난 그이를 사랑하고 있어. 온갖 몸과 정성을 다하여 그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한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네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은 천만 뜻밖이었다.

“그래 그는 지금 어디 있소?”

“어디 있다고 생각해? 독일에 있는 거야. 포로병이야. 굶주리고 있어. 당신이
우리 기름진 나라 것을 배불리 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당신을 저주하고 있
단 이야길 도대체 몇 번해야 알아들겠느냐 말야? 날 보구 용서하라구? 안 될 말
씀. 절대 안 되지. 저질른 죄를 갚겠다고? 어리석은 소리.” 처녀는 다시 얼굴을 뒤
로 제껴 들었다 견딜 수 없는 고민의 기색이 얼굴에 감돌았다.

“폐가망신! 그이야말로 날 용서해 주겠지. 그이는 상냥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강제로 당한 게 아니고, 버티나 치즈나 비단 양말 따위에 내 몸을 팔았을 것
이라고, 그이가 의심 하지나 않을까 생각하면 괴로워 죽겠어. 물론 나 혼자서 만
이 당한 일은 아니지만 당신 자식, 독일군의 자식을 낳으면 그이와 나와 생활

이 뭐가 되겠어. 당신같이 키 크고 당신같이 금발 머리에 당신처럼 푸른 눈동자를 가진 자식. 오호, 하나님 난 무슨 죄로 이따위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처녀는 일어서서 냉큼 부엌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동안 방안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한스는 원통하다는 듯이 삼폐인 병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별쩍 일어섰다. 브리에 마나님이 그의 뒤를 쫓아 나갔다.

“당신이 그 애와 결혼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정말이었나요?”하고 마나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자에게 물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정에서 울어 나온 말이었어요. 전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애를 버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여기 머물러서 농사일을 하겠단 말이지요?”

“네 맹세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영감이 영생 일을 계속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당신 집에선 재산을 아우님과 분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선 논으매기 할 사람도 없는 처지가 아니겠수.”

“그도 그렇군요.”

“우리 그 선생과 결혼하겠다는 아네트의 의견에 찬성할 순 없다우. 그땐 아들놈이 살았었으니까, 네가 좋아 하는데 뉘 뭐라겠니, 하고 영감이 말했었지만. 아무튼 아네트는 그놈에게 미쳤어요. 그러나 자식이 죽은 지금에 와서는 이야기가 다르지요. 참 우리 자식 놈은 불쌍하지요. 딸년이 그 선생 녀석 허구 결혼하고 싶어 한다 해도 우리 영감이 혼자 손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말이에요?”

“팔아 버리신다면 창피하실 쥘니다. 전 농민이 자기 땅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한스와 마나님은 어느덧 큰 길까지 나왔다. 마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지긋이 힘을 주었다.

“곧 또 오시구려.”

한스는 마나님이 자기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쏘와쑹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아네트가 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그자가 포로라는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 훨씬 전에 어린애가 나올 것이다. 애를 낳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 여자의 마음이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참 한스의 고향 동리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동리의 웃음끼리가 될 만큼 지극히 남편을 사랑했다. 자연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남편이 보기도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

면 또한 그 정반대의 일이 안 일어난단 법도 없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자기가 처녀에게 청혼까지 했으니 처녀도 자기를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아 하느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던 그 처녀의 모습이 그 얼마나 가련했으며 그 처녀의 독백이 그 얼마나 멋들어진 것이었던 지요! 그리고 또 그 얼마나 근사한 말이었던 지요! 아마 무대 배우도 처녀의 표현 앞에선 무색해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한 구절 하나 부자연스러운 데도 없었고. 불란서 부인들의 말 솜씨를 인정치 않을 수 없지요. 오호, 그 처녀는 참으로 현명한 여자입니다. 처녀가 제게 독설을 퍼붓던 그 순간에도, 처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즐거웠으니깐요. 한스 자신도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였지만 처녀에 비하면 어렵도 없었습니다. 교양, 이것이야말로 처녀의 밑천인 것이다.

“참 내가 바보야.”하고 그는 길을 가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자기를 키 크고 힘세고 미남이라고 처녀가 말하지 않았던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처녀가 했을까? 그리고 아이는 자기를 닮아 금발에 푸른 눈일 게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자기 용모에 깊은 인상을 갖지 않았으면, 결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자는 혼자서 낄낄 웃어댔다. “시간만 있으면 된다. 참아라. 그리고 일되어가는 대로 말져라.”

몇 주일이 지나갔다. 쏘와쑹의 사령관은 증년이 좀 넘은, 성미 느긋한 작자였는데 청춘이란 아껴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부하를 혹사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지극히 만족을 느끼고 있는 자였다. ‘루후트뵈(空中誘導彈)’의 위력으로 영국은 파멸되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독일신문들은 떠들어댔다. 독일 잡수함이 대성공리에 영국선박을 격침시키고 있어 굵어 죽게 된 판이라는 것이었다. 혁명이 눈앞에 임박했으니 여름 전까지는 만사가 다 끝장이 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독일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스는 고향 집에. 편지를 보내, 불란서 처녀와 결혼하여 이곳 훌륭한 농촌에서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전하였다. 자기 뭍으로 되어 있는 가산(家産)에서 돈을 빌려주면 전쟁과 환률(換率) 관계로 헐값에 땅을 살 수 있으니 자기소유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고도 적어 보냈다. 또 그자는 브리에 영감과 같이 농터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영감은 한스가 자기 이상을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었다. 농장에 새로운 기계들을 사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일 사람처럼 제초기도 가져야 하며 트랙터도 낱았으므로 독일에서 허안한 새 놈을 사드릴 것이고 모터 가래도 사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농사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대적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브리에 마나님이 후에 그자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영감이, 그 사람 참 관찮은 젊으니 입디다,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마나님이 그자와 아주 친해졌다. 그래서 공일날이면, 우리 늙은이 내외와 같이 점심을 해야만 하겠다고 권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마나님은 그자의 이름을 불란서식으로 고쳐서 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자는 언제나 이 늙은 내외에게 기꺼이 손을 빌려 주었다. 점점 달이 차감에 따라 아네트가 일을 못하게 되자 주위에, 일 하는 것을 성가셔하지 않는 남자를 갖는다는 것은 해롭지 않은 일이었다.

아네트는 여전히 치열한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자가 직접 묻는 말에 대꾸하는 외에는 그자에게 말 한마디 거는 법 없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방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기 방에 있을 수 없는 때에는 부엌 난로 옆에 앉아서 뜨개질과 독서를 했는데 그자가 없는 거나 다름없이 본척만척했다. 처녀의 얼굴은 건강색이었다. 두 뺨에는 화색이 들었다. 그래서 한스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 머잖아서 어머니가 된다는 그것이 처녀에게 이상하게도 위엄을 갖추게 해 주었다. 그래서 처녀를 바라볼 때면 그자의 가슴은 환희에 뛰놀았다. 그 후 어느 날 그자가 농가로 오는 도중, 브리에 마나님이 길에서 손을 흔들며 발걸음을 멈추라고 하는 것을 만났다. 그자는 급(急) 브레이크를 밟았다.

“한 시간이나 기다렸다우. 난 안 오지나 않을까 했지.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비엘이 죽었어요.”

“비엘이 누굽니까?”

“비엘 가방말요. 아네트와 약혼한 그 선생말야.

한스의 가슴은 뛰었다.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이제야 그자는 찬스를 얻은 것이다.

“따님은 다 미칠 지경이겠죠?”

“그 애는 울지도 않고, 내가 무슨 얘길 할라고 하니깐 그냥 날 해치려 덤벼들겠지요. 오늘 당신 만나면 칼로 찢러 죽일려고, 할거예요.”

“그가 죽은 건 제 탓은 아닌데요.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나요?”

“그 친구인 같은 포로 한명이 스윔저어랜드로 해서 도망쳐 나와 아네트에게 편지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어요. 충분한 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용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 주모자들이 총살당했대요. 비엘도 그중 한 사람이었대요.”

한스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건 비엘에게 마당한 처벌이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놈들은 도대체 포로수용소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 반항이란 것을?

“그 애의 쇼크가 가실 때까지 시간의 여유를 주시구려. 그 애가 좀 진정해지면

내 타일르리다. 편지를 낼 터이니 그때 다시 오시라 말예요.”하고 브리에 마나님은 말했다.

“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젠 자신을 가져도 좋아요. 우리 영감과 나는 찬성하고 있어요. 의논한 결과 우리가 취할 길은 단지 하나 현실을 받아드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 영감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지금 불란서를 위한 최상의 찬스는 협조하는 것이라고 영감은 말했어요. 난 영감의 의견이라면 소중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선생보다 아네트의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아이도 생길 것이구 그만하면 됐지요.

“전 아들을 낳으면 해요.”하고 한스는 말했다.

“아들일 거예요. 확실해요. 커피 - 찌기로 점도 쳐보고 또 화톳점도 쳐봤는데 언제나 아들이 나왔어요.”

“아 참, 잊을뻔 했네 여기 잡지를 가져왔어요.”하고 한스는 오토바이를 돌려, 탈 준비를 하며 말했다.

그자는 파리 스와르(Paris—Evening)라는 잡지 세권을 마나님에게 내밀었다. 브리에 영감은 이 잡지를 저녁마다 읽었다.

그 잡지에는, 불란서 인민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히틀러가 창설하는 구라파신 질서(歐羅巴新秩序)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독일 잠수함이 바다를 휩쓸고 있으며 독일참모부(參謀部)에서는 전쟁을 영국의 패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최말단 부대까지 조직적인 단결을 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은 너무나도 전쟁준비가 안되어 있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여론이 분열되어 영국을 도울 수 없으니 불란서는 신이 보내주신 이 호기(好機)를 잃지 말고 통치자에 대한 충성된 협조로써 친구라파에 있어서의 영예로운 자리를 다시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 등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사는 독일인 아닌 불란서인들이 쓴 것이었다. 재벌들과 유대인들은 멸망될 것이며 불란서의 빈민들은 결국 자기네 몫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사에 이르러서는 영감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불란서는 본질적으로는 농업국이며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근면한 농부들이라고 논파한 현명한 인사의 말은 과연 지당한 말씀이며 참 훌륭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비엘 가방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온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린 브리에 마나님은 영감과 짜고 아네트에게 말을 건넸다.

“장에게 내일 오라는 편지를 며칠 전에 보냈단다.”

“미리 알려주셔서 고맙군요. 난 방속에 꼭 박혀 있겠어요.”

“오오, 이것 봐라 얘야, 어리석은 짓을 앉겠니. 피엘은 죽었고 장이 너를 사랑하며 너와 결혼하자는 게 아니냐. 더구나 그는 미남이 아니냐. 그를 남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 못 처녀가 다 사랑으로 여길 것이다. 그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농장을 새로 정비할 수 있겠니? 그는 자기 돈으로 트랙터와 가래도 사 드리겠다고 하지 않니. 과거는 과거가 아니냐.”

“어머니, 어머니 허튼소릴 하고 있어요. 전 전에도 제 생활벌 벌었으니까 또 다시 벌 수 있어요. 난 그자가 미워요. 그자의 허식과 거만이 싫어요. 그걸 죽여 버리고 싶어요. 그자가 죽으면 내 속이 다 후련하겠어요. 그자가 날 괴롭힌 것처럼 나도 그자를 괴롭혀 주고 싶어요. 그자가 제 몸을 망쳐준 것처럼 나도 그자를 망쳐줄 방법이 발견된다면 난 죽도록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얘야, 온 년 너무 미련하구나. 딱한 애 같으니.”

“얘야, 너의 어머니 말이 맞다. 우린 전쟁에서 패한 것이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복자들과 가능한 가장 좋은 타협을 해야 하느니라. 우린 그자들보다 심산이 빠르니 노름을 잘만 한다면 한 밀천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불란서는 썩어 빠졌느니라. 우리나라를 망쳐놓은 것은 유태인이고, 재벌들이다. 잡지를 좀 읽어 보라. 너도 절로 알게 될 터이니.”

하고 뿌리에 영감이 말했다.

“그따위 잡지에 실린 것을 내가 한마디라도 믿을 줄 아세요? 그자가 왜 독일군에게 파는 잡지를 아버지에 가져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사를 쓴 자들은 반역자, 매국노들이예요. 오 하느님, 이 목숨이 살아남아서 그자들이 우리 애국자들의 쫓기에 만나, 갈가리 찢겨 죽는 꼴을 보게 해주소서. 그자들은 매수된 거예요, 모두 매수된 거예요 - 독일 마르크에 매수된 개들이예요.”

(차호(次號) 완결(完結))



<소설(小說)>

상흔(傷痕)

박영준(朴榮濬)

문호(文虎)가 달수(達洙)의 재혼을 권한 것은 석 달 전부터의 일이었다. 얌전한 처녀가 있다고 하면서 일부러 찾아와서는 병이 나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강권하다시피 말했으나 달수는 문호의 말을 들은 척도 안했다.

사실 문호의 말처럼 달수는 자기가 병이나 언지 않나 걱정 되었다. 무슨 병이 생기고야 말 것 같은 생각이 들만큼 몸과 마음이 수척해 갔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오고 몸이 저린 것 같이 재혼을 권하는 문호가 무슨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나간 지 며칠도 안 되는 날부터 재혼을 권할 까닭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문호가 올 적마다 쓴 오이를 보듯 말대꾸도 잘 해주지 않았건만 그는 오늘도 또 찾아왔다.

“일찍 들어 왔구만……”

문호는 달수가 집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처럼 첫 말을 꺼내었다.

“일찍 들어오지, 뭐 할일이 있어……”

달수는 조금도 반가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군……”

아내가 이혼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는 일찌감치 들어오는 일이 없던 달수를 비꼬는 말이었다. 그래서 달수의 분통을 다시 건드리는 것이었다. 달수는 정임이가 어떤 남자와 배가 맞아 나간 뒤 하루도 마음편한 날이 없었다. 자기 모르게 어떤 남자와 치정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분한 생각이 골수에 박혀 밥도 제재로 못 먹고 있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 나가면 보이는 여자마다 정임이처럼 남자를 속이는 여자로 보였다. 그런데 문호가 들어와서 또 울화를 치밀어 놓고 말았으니 참을 수가 있을 것인가?

“뛰하러 온거야 빨리 가 -”

달수는 문호를 향해 주먹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도망간 부인을 못 잊는가보군.”

문호는 달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싱글 싱글 웃기만 했다.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으니깐 빨리 가”

그러나 문호는 달수에게 약을 올리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왜 잊어버리질 못하는 거야? 죽은 사람도 잊어 버리는데 싫다고 나간 사람을 무엇 때문에 생각하나 말이야?”하고, 달수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좀 보게, 그러다가 병이 나면 누가 손해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구 있도록 하란 말이야. 이번 색시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테니까 안심하구……”

“한 번도 지긋 지긋해 정말 그런 소릴 말어.”

“못이 빠진 자리에는 새 못을 박어야 구멍이 메워지는 거야 좌우간 내가 색시를 데리구 올 테니까 한번 보아 두기나 하세.”

“정 그러면 자네하고 싸울 테니까 그런 줄 알어.”

달수는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고집도 이젠 그만 부리게 여자는 새것이 좋다고 장가를 한 번 더 들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남 없는 팔자를 타고 났다고 생각을 해봐.”

문호는 달수의 고집을 무너트리고야 말 모양이었다.

문호가 그렇게까지 극성스러운 것은 오직 달수를 생각하는 우정에서였다. 소개하겠다는 색시가 먼 친척집 딸로 삼십이 거의 되는 노처녀라 치위 달라는 색시 부모의 청도 없지는 않았지만 문호는 색시편 보다도 달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두터웠다. 달수는 남달리 가정에 충실했다. 따라서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다. 그런 만큼 아내가 치정사건을 일으키고 집을 나갈 때 달수는 죽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문호다, 달수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달수의 상처를 고쳐주는데 재혼이 무엇보다도 약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문호는 그것을 우정의 의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달수는 문호의 우정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가 싫어졌어, 싫은 것하고 어떻게 같이 살란 말이야?”

“개도 정을 붙이면 귀여운 거야. 여자란 의복과 같아서 더워도 입어야 하는 것 이거든 입기 시작하면 점점 호화로운 것이 입고 싶어지고……”

문호는 이날도 달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완전히 실패 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 문호는 다시 달수를 찾아 왔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깐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 이번에는 달수를 끌고 밖으로 나갈 모양이었다.

“술을 사다가 집에서 먹세.”

달수는 나간다는 것이 싫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일 없는 일요일에야 나갈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따 바람도 좀 쐬야지 않나! 젊은 사람이 꿈작 거리를 싫어하면 금시 죽어.”

“술이야 집에서 먹으나 나가서 먹으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술을 한잔하고 거리를 확보하는 맛이 어떤지를 모르는가 보군……좌우간 나가……”

문호는 남의 집에서야 자기가 어떻게 술을 살 수 있느냐고 달수를 끌어내고야 말았다.

달수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옷을 내려다 입혀 주며 잡아 끄는 데는 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달수도 정임을 잊으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경도 다니고 술을 미시려고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그것이 되지가 않을 뿐이었다. 모두가 귀찮고 모두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런 만큼 문호가 끄는 것을 기회로 한번쯤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 그러나 문호는 가까운 술집을 두고서도 종로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달수는 아무데서나 한잔하고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했지만 문호는 자기가 아는 집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걸었다. 그리고는 화신 근처 어떤 다방 앞에서 우선 한잔 마시고 가자고 했다.

달수는 싫었다. 다방이란 남녀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곳이다. 그런 데를 간다면 또 정임이가 생각날 것이 분명했다. 자기 모르게 남자를 끼고 드나들던 다방.

“술이나 먹으러가 차는 무슨 차”

그러나 문호는 달수의 마음을 알은 척도 않고 그의 손목을 끌고

“오 분만……”

하고 다방으로 들어갔다.

다방으로 들어가자 문호는 달수의 손목을 놓지도 않고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갔다. 무슨 약속들이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문호는

“내가 여길 어떻게 왔니?”

하고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좌우간 앞세. 내 일가족한테……”

문호는 달수에게 앉기를 권했다. 그리고는 그 여자더러 달수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다.

달수는 그 여자가 전부터 결혼하러던 바로 그 여자임을 알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스물 일여덟 살은 됴직해 보였다. 껌직한 데가 없는 것이 순박한 여자 같았다. 아무지게 표독스러운 데도 없는 것 같아서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할 성격이 아니라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름은 명희야 나이는 들었어도 아는 것은 없어. 그저 마음이 고울 뿐이지.”

문호가 명희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달수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 아무리 인상이 좋은 여자라고 해도 그가 여자인 이상 남자를 속이고 남자의 속을 싸우고야 말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임에게는 아무지고 어딘가 표독스러운 데가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했었다.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여자란 다 마찬가지로 것이라니만 알았다. 그리고 결혼생활 사, 오년동안 정임은 과연 다른 여자들과 다름없이 아내로서 자기 할 일을 다했다. 집을 떠나는 날까지도 정임은 자기를 사랑하는 척 했다. 다른 사내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었던 것이다.

- 여자란 두개의 마음을 가진 생물(生物)이야 -

달수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 만큼 명희가 얌전하게 보이고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에게는 역시 두개의 마음이 곁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차를 마시는 동안 문호가 날도 좋고 하니 시외로 산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달수는 문호의 속이 드러다 보여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술이나 먹으러 가”

달수는 명희의 존재 같은 것은 안두에도 두지 않고 일어섰다.

“시외에 나가서 술을 먹으면 운치가 더 있지 않아……”

문호는 명희와 같이 시외로 같이 갈 모양이었다. 달수는 정말 싫었다.

“술이야 아무데서 먹으나 맛이 다들라고……”

문호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말로 달수를 꼬이려 했지만 달수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명희가 먼구스러웠던지

“그럼 명희 너는 집으로 가라.”

하고 명희를 돌려보내고 근처 술집으로 갔다.

“명희가 그렇게 나쁜 여자 같지는 않지? 내가 보증하지만 정임이 같은 일은 없을 걸세……”

하고 명희 이야기를 꺼냈다.

그 말을 듣자 달수는 먹은 술이 갑자기 깨는 것 같았다

“여자는 다 싫다니까”

“여자가 다 싫을 게 어디 있어? 정임이 한테 손을 빼었다고 세상 여자가 다 정임이 같은 줄 아냐? 그래도 이 세상엔 정숙한 여자가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해 -”

“어쨌던 여자는 싫어”

술집을 나오자 달수는 곧장 집으로 왔다. 돌아 와서는 이불을 쓰고 누워 버렸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자기 몰래 돈을 내다 쓰면서도 면전에서 남인인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아양을 떨던 정임이가 생각났다. 밤늦게 돌아와서는 자기가 입을 열기 전에 무어라 떠들어대며 이불속으로 끌고 들어가던 정임이 생각이 났다.

사랑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속이던 정임이!

생각할수록 기막힐 뿐이었다.

달수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슴이 아픈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생각했다. 될 수 있으면 정임이 따위를 생각도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음이 더욱 가슴 아프기만 했다.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그의 머리에는 정임이 생각뿐이었다. 어떤 때는 정임이를 생각하면 즐겁게 퇴근하던 지난날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분하고 기막힌 생각뿐이었다.

밤일이 많은 생산공장(生産工場)이라 야근이 유달리 많다. 전에는 야근수당이 라는 것만 생각하고 늦게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 생활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야근 통에 정임이가 밤에도 외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야근도 싫어졌다 자기는 야근을 하는 동안 정임이는 딴 녀석과 사랑을 속삭였을 것이 아닌가?

지금은 자기의 야근을 틈타 자기를 속이고 돌아다닐 정임이가 없어졌다. 그래

도 핑계를 만들어서 까지 야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술을 만드는 양조장 총무로 있는 만큼 언제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직책이지 만 달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야근을 안 하고 있다.

어떤 날 달수는 역시 야근이 싫어서 일찌감치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 양조장 주인이

“요새 좋은 일이 생겼나? 좋은 일이거나 일찍 성사를 시켜야지 밤낮 그렇게 마음이 들떠서야 쓰겠나?”

하고 핀잔 같은 것을 주었다.

“좋은 일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달수는 기막힌 말이라는 듯이 대답을 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좌우간 자리를 너무 비면 회사일은 누가 보지?”

하고 회사가 곤란하다는 말을 했다.

그 말에 달수는

“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직무에 태만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했다. 직무에 태만해서야 주인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이가 삼십을 이제 겨우 넘었지만 그래도 달수가 주인에게 신용을 얻은 것은 남보다 충직하게 일을 한 때문이었다. 태만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면 주인이 나가라고 할지도 모른다.

달수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억지로 마음을 붙이려고 하던 어떤 날이었다. 밤일을 하고 있을 때 정임이와 어떤 놈팡이가 소근 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발가벗은 채 부끄럼도 없이 히히닥거리는 것이었다. 달수는 눈을 감아 버렸다. 바늘로 찌르듯 가슴이 아팠다. 앉아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다. 종로를 걸어 보고 있을 때 앞으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다. 틀림없는 정임이었다. 어떤 남자와 같이 팔목을 끼고 오는 것이었다. 달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몸이 쓰러질 것 같았다.

겨우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때 정임이가 달수에게 시선을 던지었다. 그러나 그 눈초리란 본 일도 없는 사람을 보는 그런 눈초리였다. 차라리 경멸에 찬 눈초리라고 하는 것이 좋았다. 정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수는 그대로 서 있었다.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몇 달 뒤 달수는 명희와 결혼을 했다. 그것은 종로에서 정임을 본 뒤에 생긴 달수의 마음의 변화에서 온 것이었다.

자기를 경멸하는 듯한 그 정임의 눈초리가 미웠다. 다른 남자와 재미있게 지나가는 모양을 보란 듯이 걸어가던 정임이가 미웠다. 여자에게 버림을 받고서 초라하게 사는 못난 사내를 보라는 듯이 같이 가던 남자에게 소근 거리던 정임이가 미웠다.

정임이가 미워서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 달수는 첫날로 명희에게 과거를 물었다. 연애를 몇 번이나 했느냐는 것이었다.

명희는 연애를 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말일 것 같지가 않았다.

“스물일곱이나 되도록 연애 안 해본 여자가 어디 있어?”

사실 요즘 여자치고 연애를 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못해 봤어요.”

했다고 해도 무관한 일을 가지고 안했다고만 우기는 것은 확실히 거짓을 꾸미는 것이었다.

“했다면 어때! 앞으로 만 나를 사랑하면 되지!”

“안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달수는 명희가 두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단정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자기 모르게 외출을 못하도록 했다. 명희는 시장 이외에는 갈 곳도 없다고 했다.

달수는 시장에 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고 밥하는 처녀를 하나 구해다 놓았다. 시장가서 물건을 사고하는 중에 장사군하고 마음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시장에도 밥하는 애만을 보내도록 했다

어떤 날 명희는 전기 값 받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썼기에 전기 값이 배나 늘었냐 하더라 말을 했다. 그리고는 신혼을 하시더니 밤 가는 줄도 모르는 모양이라고 농담까지 하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달수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보였으면 처음 보는 남자가 남의 부인에게 그런 농담까지 한담!”

달수는 명희가 그렇게 보였기에 그따위 농담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싱겁게 그런 소릴 하지 않아요.”

명희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을 달수가 이상하게 잡아 꼬집는데 도리어 놀라는 표정이었다.

“남자들에게 만만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다른 뜻으로 한 말은 아니예요.”

“그래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어떻긴 무엇이 어때요?”

“이게 큰일 날 계집애네…….”

남자를 경계할 생각은 안하고 도리어 심상케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를 원동력이 된다.

달수는 명희의 뺨을 한대 후려 갈겼다.

“왜 때리는지 알았어?”

명희는 눈물을 주룩 흘렸다.

그리고는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설 잘못했어요?”

“남자를 대할 때 조심하란 말이야.”

명희는 아무 대답도 안하고 울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던 뒤 달수는 사표를 제출했다. 골목길이 나마 집이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집을 고쳐 가게라도 낼 생각이었다.

가게를 열고 앉아 있으면 집을 빌 필요가 없다. 집에 만 붙어 있다면 아내를 혼자 있게 하지 않을 수 있다. 혼자 있게 하지만 않는다면 남의 꼬임을 받을 기회가 없다.

아무래도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일 것 같았다. 더구나 그 직장에 그대로 있으면 야근이 번질나게 있다. 또 정임이 같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명희도 거짓말을 하는 여자다. 반드시 연애를 했을 터인데도 안했다고 딱 잘라낸다. 그뿐 아니라 조금만 꼬이면 넘어갈 소질이 다분히 있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달수는 집을 고쳐 구멍가게를 냈던 것이다.

가게를 낸지 며칠 동안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무리 속이기를 잘하는 여자라 해도 스물네 시간동안 내내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며칠이 안 되어 달수는 명희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회만 있으면 가게로 나가 물건을 팔기 때문이었다. 명희가 나갈 때마다 손님은 남자였다. 남자손님에게 얼굴을 보이고 한마디라도 말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속이었던 것이다.

방안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명희는 손님만 오면 달수보다도 먼저 손님에게로 뛰어갔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하루아침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손님이 왔다. 달수가 일어서려는데 어느새 명희가 뛰어 나가는 것이었다. 남자손님이었다. 달수는 꼴사납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랬더니 명희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구 그러세요?”

“에누리는 안하는 데요.”

“그럼 다음에나 또 와주세요.”

하고 지나칠 정도로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달수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다. 더구나 다음에나 또 와 주세요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 견딜 수 없었다.

정말 바람이 날 소질이 다분히 있는 여자였다. 정임이도 못 남자들에게 그런 고태를 떨었을 것이 아닌가? 달수는 명희가 물건을 팔고 들어오는 것을 붙잡고 “이년 다시 오면 어떻게 작정이냐 응 -”

하고 다자고자 따귀를 갈겼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보고 다시와 달라고 한 것이 아무런 잘못도 아니려면 달수에게는 다시 와 달라는 말이 장사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날은 도매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려니까 어떤 남자가 가게 안에서 사과를 꺾어 먹고 있었다. 사과를 먹으면서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며 먹고 있었다.

“장사가 잘 됩니까?”

“다음부터는 맥하고 거래를 해야겠군요?”

“외상을 줄 수 있겠지요? 나는 xx에 다니는 사람인데……”

달수는 싱거운 친구라 생각하면서도 빨리 돌아가 주었으면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명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았다. 조금도 귀찮다는 얼굴을 짓지 않고

“늘 오시는 손님이면 외상을 안 드릴까요?”

하며 언제까지라도 응수해줄 태도였다.

달수는 내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들어가 봐.”

하고 손님이 민망할 정도로 신경질을 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뒤에는 안방으로 달려가서

“물건 파는 가게지 사과 먹으며 노닥거리는 텐 줄 알어? 남자면 그제 오금을 못 써……”

하며 또 명희를 갈겼다.

그 뒤부터 명희는 가게로 나가지를 않았다. 그 대신 하루는, 집엘 다녀오겠다고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가지 못하게 했으나 명희는 오랫동안 가보지를 않아 어머니가 앓지나 앓나 걱정된다고 하며 꼭 갔다 와야 한다고 고집을 세웠다.

생똥한 핑계를 꾸며가지고 외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거짓말을 잘하는

여자 - 달수는 그런 거짓말에는 속지를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달수는 명희를 보내되 밥하는 애를 따라 보냈다. 혹시 가서 안돌아 올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간다는 친정에는 안가고 옛날 좋아하던 사람을 만나러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밥하는 애를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명희는 몇 시간 안 되어 곧 돌아왔다. 도리어 이상스러울 정도로 빨리 왔다. 그래서 밥하는 애를 가게로 불러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물었다. 틀림없이 친정에 갔다 왔다고 했다.

달수는 계집애까지 아내의 편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른대로 말해 친정엘 갔다가 그렇게 빨리 와!” 하고 밥하는 애에게까지 딱딱 거렸다.

그럴 때 손님이 와서 더 물어보지를 못했지만 명희도 안심할 수 있는 여자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문호가 찾아왔다. 한참동안 잡담만 하다가 돌아갈 무렵쯤

“자네 손질을 잘한다지?”

하고 정색한 얼굴로 물었다.

“왜 그래?”

“죄 없는 사람을 때려서야 쓰나……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말로 타이를 것이지 -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을 테니까 눈에 차지 않을지는 모르겠네만……”

“여자는 때려서 질을 드러야해”

달수는 문호가 명희의 인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꺼림 없이 했다.

“글쎄 때릴 땐 때려도 좋지만 자네 명희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 같아……”

“의심 안할 수 있어?”

문호를 명희가 의심받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말로 설명했다. 그러나 달수는 잠시라도 감시를 게을리 하면 헛길로 나가는 것이 여자라고 하며 자기의 소신이 옳다는 것을 고집했다.

문호는 정임에게서 받는 타격 때문에 좋은 말로 타이러 뿐 그냥 돌아갔다.

그러나 문호가 돌아간 뒤부터 달수는 또 다른 말로 명희를 못 살게 굴었다.

“내가 싫어 졌지? 나와 이혼하려고 문호에게 가서 의논을 한 게 아니구 뭐야? 돈이 없다고 나를 깔보는 거지?”

명희에게 있어서는 생벼락이었다. 그러나 달수는 틈만 있는 대로

“결혼한 지 몇 달도 안돼서 이혼을 해?”

하고는 명희를 괴롭혔다. 그런 생각은 가져본 일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화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 놈한테 곱게 빌려구 화장을 하는 거야?”하고 생트집을 잡았다.

어쨌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명희는 정말 달수와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하루같이 불안해서는 살아갈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불안은 고사하고 매일처럼 들볶는 데는 잠시도 참을 도리가 없었다. 명희는 다시 문호를 찾아가 그야말로 이혼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문호는 명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한편.

“이왕 결혼을 했으니 그 사람의 의처증을 고쳐주도록 하자. 전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지 본시 나쁜 사람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야. 연극이라도 한번 꾸며 보자.”

하고 정말 그럴 듯한 연극을 고안해 냈다.

명희는 자기를 의심하는 마음만 안 가진다면 달수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결혼한 남편이니 문호가 시키는 대로 연극을 꾸며서라도 그의 의처증을 고쳐 놓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다면 거기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명희는 문호가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을 약속하고 집으로 갔다.

이삼일이 지난 뒤 남편이 물건을 사려고 밤에 나간 새 시골 사는 인천 오빠가 찾아왔다. 그리고 달수가 지계꾼에게 짐을 메우고 돌아왔을 때부터 연극은 시작되었다.

“이 놈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덤비는 거야? 남편이 있는 여자야. 남편밖에 모르는 여자야. 남편이오기 전에 썩 썩 나가지 못해? 안 나가면 찌른다. 찢러”

명희는 가게를 향해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남편이 뛰어 들어 올 때에는 식도를 쥐고 일가 오빠에게 달려들기까지 했다. 달수가 명희의 일가 오빠를 붙잡고 때려 줄려고 할 때는 명희 오빠가 어느새 도망을 쳐버렸다.

달수는 밖으로까지 뛰어나갔지만 그때는 밖에 지켜 섰던 문호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사정 이야기를 묻는 척하며 달수를 꼭 붙잡았다. 달수는 말도 않고 몸부림을 쳤으나 문호는 말을 해야 알지 않느냐고 달수를 꼼작도 못하게 붙잡았다.

따라가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달수는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서자 명희가.

“이젠 물건 사려도 가지마세요. 무서워요”

하며 달수에게 매 달렸다.

달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동안이나 멍멍히 서 있다가

“알았어. 잘 알았어.”

하고는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거짓 연극 꾸민 것이 미안하고도 우스운 생각이 들어 명희는 벽을 향하고 돌아앉았다.

그러나 달수는 명희가 울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지 명희와 어깨를 쓸어 주면서

“그년이 나뻐서, 정임이란 년이 나뻐서. 그년 때문에 당신까지 의심했던거야. 그년을 어떻게 해야 시원하지.”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그때 문호가 나오는 웃음을 의지로 참으며

“이사람 울기는? 여자 때문에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사내답게 살아 믿을 건 믿구 잊을 건 잊구 알았나.”

하며 달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끝)

편집후기(編輯後記)

작년에 매월 한 권씩 내놓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나 군 예산관계로 늦게 나와서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게 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나마 대단(大端) 후안(厚顔)함을 금(禁)키 어렵다. 허나 오늘날 우리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일인(一因)을 예(豫)히 양찰(諒察)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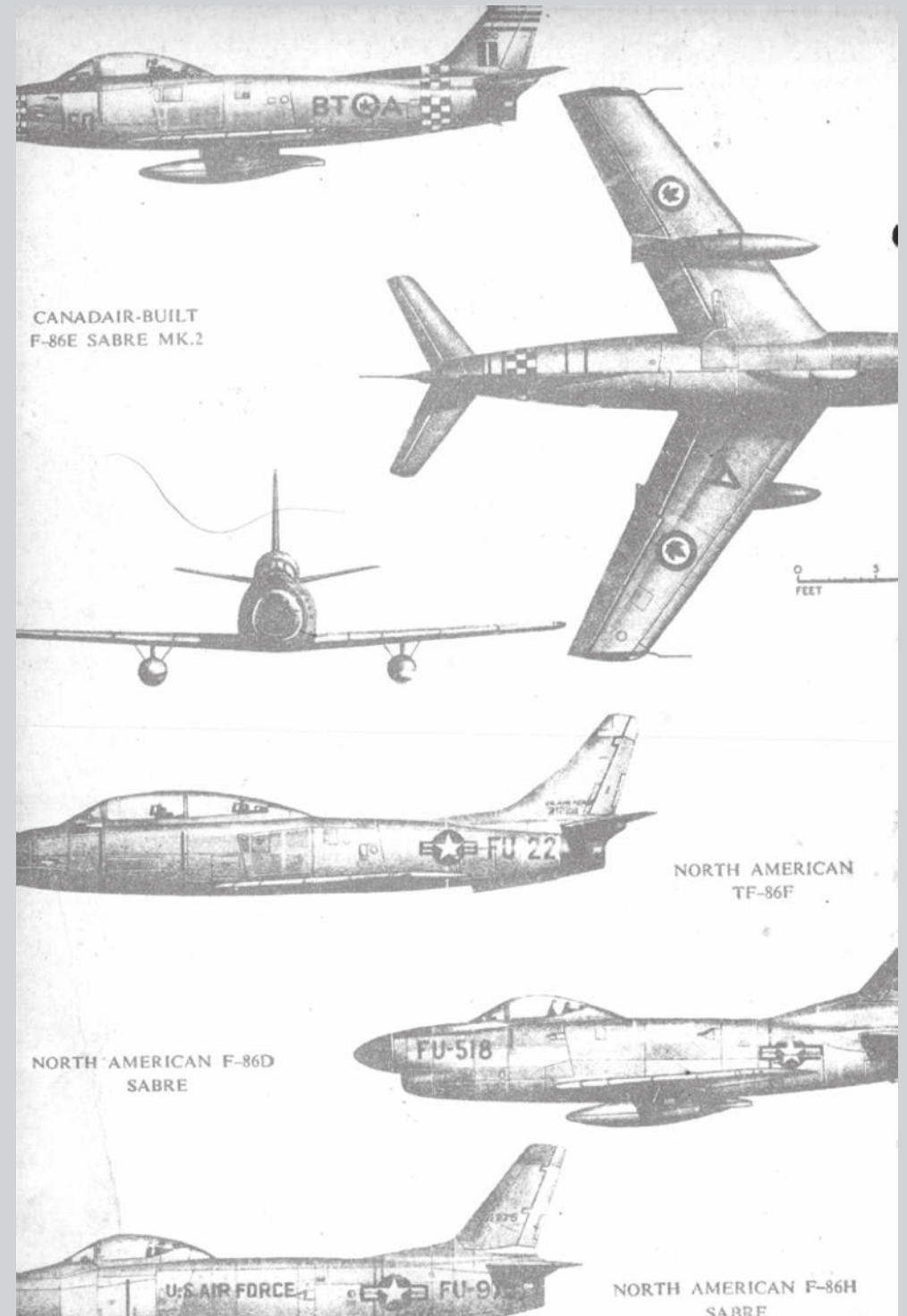
「코메트」는 여러분의 요청에 수응(酬應)하려고 풍부한 내용과 우수한 체재(體裁)를 갖추고자 노력을 하나마 좁은 지면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편집자의 알고도 못하는 노릇이외다.

벌써 입하이다. 각기(各己) 무한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자연을 맞이하자. 춘하추동의 계절의 바뀜과 변동이 없다면 그 얼마나 무미건조하라!

우리는 여름을 맞이함에 청쾌(淸快)한 기분과 신선한 포부로 닥쳐올 장애와 곤란을 극복하고 대공군(大空軍)의 전통과 건설을 위하여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조국과 우리 동포에게 번영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독자 제언(諸彦)의 건강을 빈다.

(편집자(編輯者))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이종승(李鍾勝)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중령(空軍中領) 이계환(李繼煥)

祝
發
展

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THE COMET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